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678-01

Ⓒ 2021-23 | 2021. 6.|

로컬푸드 확대 효과 분석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황윤재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박기환 | 선임연구위원 | 로컬푸드 확대 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 도출

박시현 | 연구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로컬푸드 확대 효과 분석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6월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황 윤 재 (연 구 위 원)
연구참여자: 박 기 환 (선임연구위원)
박 시 현 (연 구 원)

요 약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과 함께 로컬푸드의 공급 및 이용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의 지역 푸드플랜 정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확대를 추진하는 지역의 성과를 검토·분석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지역 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로컬푸드로 인해 지역 내 파급되는 효과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사례 지역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남도 청양군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 이 연구에서 로컬푸드(local food)는 장거리 수송이나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의미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 등의 행정구역 경계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로컬푸드는 지역농식품(농산물), 지역산농식품(농산물), 지역 먹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지역 푸드플랜 등 정부의 로컬푸드 관련한 정책을 통해서 로컬푸드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지역에서 로컬푸드 확대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경로를 통해서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요 초점을 맞추었다.

○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 관련한 국가 및 지역 단위 실태·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로컬푸드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례지역 생산자 313명(화성시 117명, 나주시 81명, 청양군 115명)과 소비자 302명(화성시 101명, 나주시 101명, 청양군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 관련한 정책 및 업무 담당자를 면담하였으며, 로컬푸드 확대에 따른 지역 산업, 경제 및 환경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성·정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후 유발된 식료품 소비량 추가 증가가 농림업생산액에 미친 파급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 3개 사례지역(화성시, 나주시, 청양군)에서 로컬푸드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①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 ② 식품소비 영향, ③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은 농업 부문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먹거리 소비부문 영향은 먹거리 공공성, 안전성, 접근성 개선 효과,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 효과는 지역 먹거리 순환 향상 효과, 지역 먹거리 가격 안정화 효과,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 인식 수준 향상 효과, 환경(푸드마일리지) 저감 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로컬푸드의 확대가 지역의 농업·경제, 식품소비,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파급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로컬푸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경우 향후에도 로컬푸드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적 마련과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① 지역별 여건과 지역민 ② 연계·협력 ③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로컬푸드 확산 전략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공공급식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밖에 로컬푸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확대, 로컬푸드 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첫째, 생산자가 로컬푸드 공급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① 소량의 농산물의 빈번한 납품 ② 가격 결정 ③ 주문량에 맞춘 생산량 조절 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로컬푸드 공급 체계 구축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가격 결정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생산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과정에서 배달이 되지 않거나, 다양한 종류의 상품 또는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배달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품 구색의 경우는 현재 로컬푸드 공급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 구색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은 로컬푸드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역 생산 또는 소비 여건에 따라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공공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농촌지역은 생산 규모에 비해 소비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도시 지역은 소비 규모는 큰 반면, 생산 규모는 작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컬푸드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시군과 연계한 로컬푸드 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기반에 비해 생산기반이 큰 농촌지역과 생산기반에 비해 소비기반이 큰 도시(도농복합) 지역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최근의 직매장, 공공급식 등을 통한 로컬푸드 확대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과정에서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거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없는 것을 주된 불편함으로 지적하였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론 공공급식에서의 로컬푸드의 상품구색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가공을 희망하는 지역 영세농·중소농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료공급,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자 대상 제품 개발, 위생·가공 교육, 마케팅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학교/공공급식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로컬푸드 주요 공급처로서 향후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식 이외에 로컬푸드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로컬푸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과는 달리 어린이집·유치원, 복지시설, 병원,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유형을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급식의 경우에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서는 가격적 측면에서의 이점 이외에도 공공급식에서의 로컬푸드 이용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로컬푸드 공급·판매 기능 이외의 지역민들이 로컬푸드에 관한 인식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로컬푸드 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별 먹거리 관련한 여건·환경에 대한 조사, 로컬푸드와 관련한 정량적, 정성적 요소들을 종합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점검·평가 및 분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평가 양식을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바로정보'와 같은 기존의 로컬푸드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점검·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의 효율성, 체계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및 관련 현황을 분석하는데 이용하고,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지원 기간 동안 연도별로 점검·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지원 마지막 년도(또는 종료 다음 년도)에 지역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의 성과·효과를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주요 연구 내용 ····· 3
3.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로컬푸드 발전 배경과 최근의 이슈

1. 로컬푸드 등장 배경과 개념 ····· 10
2. 먹거리 여건 변화와 이슈 진단 ····· 16

제3장 로컬푸드 유형별 특성과 정책 추진 체계

1. 로컬푸드 운영 현황 ····· 25
2.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로컬푸드 유형 및 특징 ····· 30
3. 로컬푸드 정책 추진 체계 및 실태: 중앙정부 중심 ····· 35

제4장 로컬푸드 유형별 사례지역의 먹거리 여건 및 추진 실태

1. 도농복합형 사례: 경기도 화성시 ····· 48
2. 도농복합형(혁신도시 입지) 사례: 전남 나주시 ····· 63
3. 농촌형 사례: 충남 청양군 ····· 76

제5장 사례지역 중심의 로컬푸드 확대 파급 효과 분석

1.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 효과 및 인식 전환 ····· 92
2. 소비자의 로컬푸드 이용 효과 및 인식 전환 ····· 102
3. 로컬푸드 확대 파급 효과 분석 ····· 113

제6장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1. 정책 방향 ····· 153
2. 정책 과제 ····· 155

부록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현황 ····· 164

참고문헌 ····· 166

표 차례

제1장

〈표 1-1〉 사례지역 조사 개요 ····· 7
〈표 1-2〉 로컬푸드 확대효과 분석 주요 내용 ····· 8

제2장

〈표 2-1〉 로컬의 공간적 범위: 해외 사례 ····· 14
〈표 2-2〉 취약계층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비율 ····· 20
〈표 2-3〉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표와 질병 유병률 ····· 20
〈표 2-4〉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 ····· 22

제3장

〈표 3-1〉 로컬푸드 직매장 유형별 현황 ····· 26
〈표 3-2〉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립·운영 형태 ····· 28
〈표 3-3〉 로컬푸드 가공센터 수립·운영 형태 ····· 29
〈표 3-4〉 농산물직거래법 구성 체계 ····· 36
〈표 3-5〉 외식산업진흥법 및 전통주산업법 상의 지역농산물 관련 조항 ····· 36
〈표 3-6〉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방자치단체(2020년 2월 현재) ····· 41
〈표 3-7〉 로컬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사업 개요 ····· 42
〈표 3-8〉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규모 ····· 42
〈표 3-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요 ····· 43
〈표 3-10〉 로컬푸드 지수 구성 ····· 46
〈표 3-11〉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 46

제4장

〈표 4-1〉 화성시 인구현황(2018년 기준) ····· 50

〈표 4-2〉 화성시 연령대별 성별 인구 현황(2018년 기준) ····· 51
〈표 4-3〉 화성시 농가인구(2010년-2019년) ····· 52
〈표 4-4〉 화성시 전·겸업별 농가 수(2010년-2019년) ····· 52
〈표 4-5〉 화성시 성별·연령별 농가인구(2015년 기준) ····· 53
〈표 4-6〉 화성시 경지면적 현황(2010년-2019년) ····· 53
〈표 4-7〉 화성시 전답별 경지면적(2010년-2019년) ····· 54
〈표 4-8〉 화성시 재배작물별 농가 수(2010년-2019년) ····· 54
〈표 4-9〉 화성시 식량작물 생산 현황(2018년 기준) ····· 55
〈표 4-10〉 화성시 채소류·과실류 생산 현황(2018년 기준) ····· 55
〈표 4-11〉 화성시 가축사육 현황(2018년 기준) ····· 56
〈표 4-12〉 화성시 친환경 농산물 출하현황(2018년 기준) ····· 56
〈표 4-13〉 화성시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2019년 기준) ····· 57
〈표 4-14〉 화성시 품목별 농업경영체 규모(2019년 기준) ····· 57
〈표 4-15〉 화성시 품목별 0.3ha 미만 농업경영체 비율(2019년 기준) ····· 58
〈표 4-16〉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 61
〈표 4-17〉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및 직매장 취급품목 수(2020년 기준) ····· 61
〈표 4-18〉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현황(2020년 기준) ····· 61
〈표 4-19〉 화성시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2020년 기준) ····· 62
〈표 4-20〉 화성시 패키지 지원사업 현황 ····· 62
〈표 4-21〉 나주시 인구현황(2018년 기준) ····· 64
〈표 4-22〉 나주시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2018년 기준) ····· 65
〈표 4-23〉 나주시 농가인구(2010년-2019년) ····· 66
〈표 4-24〉 나주시 전·겸업별 농가 수(2010년-2019년) ····· 67
〈표 4-25〉 나주시 성별·연령별 농가인구(2015년 기준) ····· 67
〈표 4-26〉 나주시 경지면적 현황(2010년-2019년) ····· 68
〈표 4-27〉 나주시 전답별 경지면적(2010년-2019년) ····· 68

〈표 4-28〉 나주시 재배작물별 농가 수(2010년-2019년) ····· 69
〈표 4-29〉 나주시 식량작물 생산 현황(2018년 기준) ····· 69
〈표 4-30〉 나주시 채소류 생산 현황(2018년 기준) ····· 70
〈표 4-31〉 나주시 가축사육 현황(2018년 기준) ····· 70
〈표 4-32〉 나주시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 현황(2018년 기준) ····· 71
〈표 4-33〉 나주시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2019년 기준) ····· 71
〈표 4-34〉 나주시 품목별 농업경영체 규모(2019년) ····· 72
〈표 4-35〉 나주시 품목별 0.3ha 미만 농업경영체 비율(2019년 기준) ····· 72
〈표 4-36〉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 74
〈표 4-37〉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및 직매장 취급품목 수(2020년 기준) ···· 74
〈표 4-38〉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2020년 기준) ····· 75
〈표 4-39〉 나주시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시설 현황(2020년 기준) ····· 75
〈표 4-40〉 나주시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2020년 기준) ····· 75
〈표 4-41〉 청양군 인구현황(2018년 기준) ····· 77
〈표 4-42〉 청양군 연령별·성별 인구 규모(2018년) ····· 78
〈표 4-43〉 청양군 농가인구(2010-2019년) ····· 79
〈표 4-44〉 청양군 전·겸업별 농가 수(2010년-2019년) ····· 80
〈표 4-45〉 청양군 성별·연령별 농가인구(2015년 기준) ····· 80
〈표 4-46〉 청양군 경지면적 현황(2010년-2019년) ····· 81
〈표 4-47〉 청양군 전답별 경지면적(2010년-2019년) ····· 81
〈표 4-48〉 청양군 재배작물별 농가 수(2010년-2019년) ····· 82
〈표 4-49〉 청양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2018년 기준) ····· 82
〈표 4-50〉 청양군 채소류 생산 현황(2018년 기준) ····· 83
〈표 4-51〉 청양군 가축사육 현황(2018년 기준) ····· 83
〈표 4-52〉 청양군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현황(2018년 기준) ····· 84
〈표 4-53〉 청양군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2019년 기준) ····· 84

〈표 4-54〉 청양군 품목별 농업경영체 규모(2019년 기준) ····· 85
〈표 4-55〉 청양군 품목별 0.3ha 미만 농업경영체 비율(2019년 기준) ····· 86
〈표 4-56〉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 89
〈표 4-57〉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및 직매장 취급품목 수(2020년 기준) ··· 89
〈표 4-58〉 청양군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시설 현황(2020년 기준) ····· 90
〈표 4-59〉 청양군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2020년 기준) ····· 90

제5장

〈표 5-1〉 응답자 특성 ····· 93
〈표 5-2〉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여부 ····· 94
〈표 5-3〉 2020년 생산 농산물 중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비중 ····· 95
〈표 5-4〉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의 장점 ····· 96
〈표 5-5〉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 증가 여부 ····· 97
〈표 5-6〉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생산량 증가 여부 ····· 97
〈표 5-7〉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농업소득 증가 여부 ····· 98
〈표 5-8〉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지역 내외 출하 비중 변화 ····· 98
〈표 5-9〉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인식 정도 ····· 99
〈표 5-10〉 로컬푸드 출하 이후 인식 전환 평가 ····· 100
〈표 5-11〉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의향 ····· 101
〈표 5-12〉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품목 수·출하량 증가 의향 ··· 101
〈표 5-13〉 응답자 특성 ····· 102
〈표 5-14〉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첫 이용 시기 ····· 103
〈표 5-15〉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빈도 ····· 104
〈표 5-16〉 사례지역 소비자의 전체 식료품 구입 금액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지출 비중 ··· 104
〈표 5-17〉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1회 방문 시 지출하는 금액 ····· 105
〈표 5-18〉 사례지역 가구 내 식료품 주요 조달처 ····· 105

〈표 5-19〉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이유 ····· 106
〈표 5-20〉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품목 ····· 106
〈표 5-21〉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첫 이용 시기 대비 최근 구매 품목 수/구매량/구입액 비중 변화 ····· 107
〈표 5-22〉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후 가구 내 식료품 소비량 증가 여부 ····· 108
〈표 5-23〉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으로 인한 전체 농식품 소비증가율 추정 ····· 109
〈표 5-24〉 KREI-KASMO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농업생산액 증가 영향 분석결과 ·· 110
〈표 5-25〉 로컬푸드 관련 사례지역 소비자의 인식 정도 ····· 111
〈표 5-26〉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이용 이후 인식 전환 평가 ····· 112
〈표 5-27〉 사례지역 소비자의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및 구매 품목 수·구매량 증가 의향 ····· 113
〈표 5-28〉 로컬푸드 확대 효과 분석 주요 내용 ····· 114
〈표 5-29〉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참여 농가 수·방문객 수 증가율 ····· 115
〈표 5-30〉 화성시 공공급식 식재료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증감률 ····· 118
〈표 5-31〉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참여 농가 수·방문객 수 증가율 ····· 120
〈표 5-32〉 나주시 공공급식 식재료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증가율 ····· 124
〈표 5-33〉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참여 농가 수·방문객 수 증가율 ····· 125
〈표 5-34〉 청양군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현황 ····· 127
〈표 5-35〉 로컬푸드 전국 확대 시 경제 및 고용 효과 ····· 131
〈표 5-36〉 화성시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 135
〈표 5-37〉 화성시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 효과 분석 ····· 136
〈표 5-38〉 나주시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 136
〈표 5-39〉 나주시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 효과 분석 ····· 137
〈표 5-40〉 청양군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 137
〈표 5-41〉 청양군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 효과 분석 ····· 138

〈표 5-42〉 화성시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2020년 기준) ····· 140
〈표 5-43〉 나주시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2020년) ····· 141
〈표 5-44〉 청양군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2020년) ····· 142
〈표 5-45〉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19년) ····· 143
〈표 5-46〉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20년) ····· 144
〈표 5-47〉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19년) ····· 145
〈표 5-48〉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20년) ····· 146
〈표 5-49〉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20년) ····· 147
〈표 5-50〉 화성시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5점 척도 기준) ····· 148
〈표 5-51〉 나주시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5점 척도 기준) ····· 149
〈표 5-52〉 청양군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5점 척도 기준) ····· 150
〈표 5-53〉 로컬푸드 확대를 통한 사례지역 푸드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규모 ····· 152
〈표 5-54〉 로컬푸드 전국 확대 시 푸드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규모 ···· 152

제6장

〈표 6-1〉 사례지역 생산자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시 애로사항 ···· 156
〈표 6-2〉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시 불편했던 점 ····· 156
〈표 6-3〉 사례지역 생산자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 문화 및
식생활 교육 기능 담당 필요성에 관한 인식 ····· 161
〈표 6-4〉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 문화 및
식생활 교육 기능 담당 필요성에 관한 인식 ····· 162

부록

〈부표 1〉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현황(2017-2019년, 28개소) ····· 164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 9

제2장

〈그림 2-1〉 광의의 로컬푸드와 협의의 로컬푸드 개념 ····· 15
〈그림 2-2〉 국내 식량자급률 및 곡물 자급률 변화 추세 ····· 17
〈그림 2-3〉 국내 품목별 자급률 현황 ····· 18
〈그림 2-4〉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 23

제3장

〈그림 3-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주요 내용 ····· 38
〈그림 3-2〉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 ····· 39
〈그림 3-3〉 로컬푸드 지수 추진경과 ····· 45
〈그림 3-4〉 로컬푸드 지수 운영체계 ····· 45

제4장

〈그림 4-1〉 화성시 행정구역 ····· 49
〈그림 4-2〉 화성시 토지 지목별 현황(2018년 기준) ····· 49
〈그림 4-3〉 화성시 인구추이(2004년-2018년) ····· 50
〈그림 4-4〉 화성시 푸드플랜 비전 및 전략 ····· 59
〈그림 4-5〉 화성시 먹거리 위원회 ····· 60
〈그림 4-6〉 화성시 (재)화성푸드지원센터 조직도 ····· 60
〈그림 4-7〉 나주시 행정구역 ····· 63
〈그림 4-8〉 나주시 토지 지목별 현황(2018년 기준) ····· 64
〈그림 4-9〉 나주시 인구추이(2004년-2018년) ····· 65

〈그림 4-10〉 청양군 행정구역 ····· 76
〈그림 4-11〉 청양군 토지 지목별 현황(2018년 기준) ····· 77
〈그림 4-12〉 청양군 인구추이(2004년-2018년) ····· 77
〈그림 4-13〉 청양군 푸드플랜 비전 및 전략 ····· 87
〈그림 4-14〉 청양군 먹거리 위원회 ····· 88
〈그림 4-15〉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 88

제5장

〈그림 5-1〉 화성시 전체 농가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비중 증가 ····· 115
〈그림 5-2〉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 ····· 116
〈그림 5-3〉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연평균 증가율 (2014-2020년) ····· 117
〈그림 5-4〉 화성시 공공급식 매출액 품목별 비중 변화 ····· 119
〈그림 5-5〉 나주시 전체 농가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비중 증가 ····· 120
〈그림 5-6〉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 ····· 121
〈그림 5-7〉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연평균 증가율 (2015-2020년) ····· 123
〈그림 5-8〉 나주시 공공급식 매출액 품목별 비중 ····· 125
〈그림 5-9〉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2020년, 매출액 기준) ····· 126
〈그림 5-10〉 청양군 공공급식 매출액 품목별 비중 ····· 127
〈그림 5-11〉 화성시 연도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 ····· 129
〈그림 5-12〉 나주시 연도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 ····· 130
〈그림 5-13〉 화성시 공공급식 참여 현황(2020년 기준) ····· 132
〈그림 5-14〉 화성시 공공급식 참여 시설 연평균 증가율(2018-2020년)과 인구 대비 수혜비율(2021년 현재 기준) ····· 132

〈그림 5-15〉 나주시 공공급식 참여 현황(2020년 기준) ····· 133
〈그림 5-16〉 나주시 공공급식 참여 시설 연평균 증가율(2018-2020년)과
인구 대비 수혜비율(2021년 현재 기준) ····· 133
〈그림 5-17〉 나주시 연도별 인구 대비 급식 로컬푸드 수혜비율(2017-2020년) ····· 133
〈그림 5-18〉 청양군 공공급식 참여 현황(2020년 기준) ····· 134
〈그림 5-19〉 청양군 공공급식 참여 시설 연평균 증가율(2018-2020년)과
인구 대비 수혜비율(2021년 현재 기준) ····· 134
〈그림 5-20〉 청양군 연도별 인구 대비 급식 로컬푸드 수혜비율(2018-2020년) ····· 135
〈그림 5-21〉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 및 직매장당 인구 수 ····· 138
〈그림 5-22〉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 및 직매장당 인구 수 ····· 139

1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과거에는 장거리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 농식품 생산·유통 체계가 형성되고 소비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산업화·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푸드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범위도 넓어지게 됨. 이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농식품 유통이 보편화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물류망을 통해서 농식품 교역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확대됨.

❍ 농식품의 대량생산·대량유통은 도시 발달과 인구 증가에 따라 개인·지역 단위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먹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줌. 그러나 유통 범위 확대, 효율화 과정에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 저하 및 환경부담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 단절이 유발되면서,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먹거리 생산 기반에 대한 국민의 중요성 인식이 약화되며, 영세·중소 생산자는 대량생산·대량유통 체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얻기가 어렵게 됨. 먹거리를 둘러싸고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지역사회·경제 유지 및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농식품의 대량생산·대량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로컬푸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함.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민간 부문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해졌으며, 정부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먹거리 공공성 등의 개념을 먹거리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도 '지속가능성'. '순환성', '공공성' 등의 개념을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로컬푸드를 핵심 요소로 하여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음.

- 지역단위에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함.

❍ 그러나 기존의 로컬푸드 정책·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효과·성과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요구를 반영한 로컬푸드 정책 방향 설정과 실행과제 마련,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와 참여를 통한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와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로컬푸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사회 유지와 발전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로컬푸드가 어떠한 영향·효과를 미쳤는지 실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과 함께 로컬푸드의 공급 및 이용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특히 최근의 지역 푸드플랜 정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확대를 추진하는 지역의 성과를 검토·분석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지역 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연구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함.

- 첫째,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의 로컬푸드 정책 추진 현황과 로컬푸드 활성화 실태를 검토함.
- 둘째, 주요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사례지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2. 주요 연구 내용

■ 로컬푸드 발전 배경과 최근의 이슈

❍ 로컬푸드의 등장 배경과 개념

❍ 최근의 먹거리 여건 변화와 이슈 진단

■ 로컬푸드 유형별 특성과 정책 추진 체계

❍ 로컬푸드 운영현황

❍ 지역별 푸드플랜과 연계한 로컬푸드 유형 및 특징

❍ 로컬푸드 정책 추진 체계 및 실태: 중앙정부 중심

■ 로컬푸드 유형별 사례 지역의 먹거리 여건과 추진 실태

❍ 도농복합형 사례: 경기도 화성시

❍ 도농복합형 사례(혁신도시 입지): 전남 나주시

❍ 농촌형 사례: 충남 청양군

■ 사례지역 중심의 로컬푸드 확대 파급 효과 분석

❍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 효과 및 인식 전환

❍ 소비자의 로컬푸드 이용 효과 및 인식 전환

❍ 로컬푸드 확대 파급 효과 분석

■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정책 방향

❍ 정책 과제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3.1.1. 연구 대상 지역

❍ 이 연구에서는 로컬푸드로 인해 지역 내 파급되는 효과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을 추진함. 사례 지역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남도 청양군 등 3개 지역을 선정함.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며,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지역 유형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사례 지역을 선정함.

- 농산물 생산 기반이 미흡하여 농식품 소비가 중심인 도시지역은 분석 대상 사례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나주시와 농촌 지역인 충청남도 청양군을 분석 대상 사례 지역으로 선정함. 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정부기관 지방분산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임.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함.

3.1.2. 연구 대상 로컬푸드

❍ 이 연구에서 로컬푸드(local food)는 장거리 수송이나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의미함. 특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약칭 「농산물직거래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 등의 행정구역 경계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함. 로컬푸드는 지역농식품(농산물), 지역산농식품(농산물), 지역 먹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로 명칭을 통일함.

- 「농산물직거래법」은 제2조(정의)에서 지역농산물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분석 대상 지역별 여건과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사례 지역에서 인접 지역에 자체 로컬푸드 공급망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농식품을 로컬푸드의 범주에 포함하여 일부 분석을 실시함.
- 예컨대, 충청남도 청양군의 경우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인접 지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개장한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로컬푸드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킴.

3.1.3. 연구 대상 사업

❍ 로컬푸드는 생산 이후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역 푸드플랜 등 정부의 로컬푸드 관련한 정책을 통해서 로컬푸드

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됨. 이에 따라서 최근 지역에서 로컬푸드 확대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경로를 통해서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요 초점을 맞추고자 함.

3.2.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 관련한 국가 및 지역 단위 실태·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과 문헌 검토

❍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 관련한 주요 사례의 현황·실태 분석

- 정책 자료 및 관련 보고서, 통계 자료 검토·분석
- 지역의 로컬푸드 관련 추진 실태 및 주요 사례 검토·분석

■ 지역 로컬푸드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사례지역 생산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 생산자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 위탁을 통해서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일부 이메일, 팩스, 대면조사를 병행
- 소비자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 위탁을 통해서 일대일 대면조사로 실시

❍ 조사대상 및 규모

- 주요 사례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 총 313명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화성시 117명, 나주시 81명, 청양군 115명 포함)
- 주요 사례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소비자 총 302명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화성시 101명, 나주시 101명, 청양군 100명 포함)

〈표 1-1〉 사례지역 조사 개요

단위: 명

구분		조사 규모	조사방법	조사일시
생산자 조사	화성시	117명	우편조사를 주로 하여 일부 이메일, 팩스, 대면조사 병행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원리서치연구소에 조사 위탁)	2021. 4. 29.~2021. 6. 4. (약 5주 간)
	나주시	81명		
	청양군	115명		
	합계	313명		
소비자 조사	화성시	101명	일대일 대면조사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원리서치연구소에 조사 위탁)	2021. 4. 23.~2021. 4. 26. (4일간)
	나주시	101명		
	청양군	100명		
	합계	302명		

자료: 저자 작성.

■ 기관 방문(면담) 조사

❍ 조사대상

-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 관련한 정책 및 업무 담당자 조사

■ 로컬푸드 확대 효과의 정성적·정량적 분석 실시

❍ 로컬푸드 확대에 따른 지역 산업, 경제 및 환경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등 3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정성·정량적으로 분석

- 로컬푸드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①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 ② 식품소비 영향, ③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후 유발된 식료품 소비량 추가 증가가 농림업생산액에 미친 파급영향 분석

〈표 1-2〉 로컬푸드 확대효과 분석 주요 내용

구분	세부 항목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	① 농업 부문 경제적 파급 효과
	②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먹거리 소비부문 영향	① 먹거리 공공성 개선 효과
	② 먹거리 안전성 개선 효과
	③ 먹거리 접근성 개선 효과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 효과	① 지역 먹거리 순환 향상 효과
	② 지역 먹거리 가격 안정화 효과
	③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 인식 수준 향상 효과
	④ 환경(푸드마일리지) 저감 효과

자료: 저자 작성.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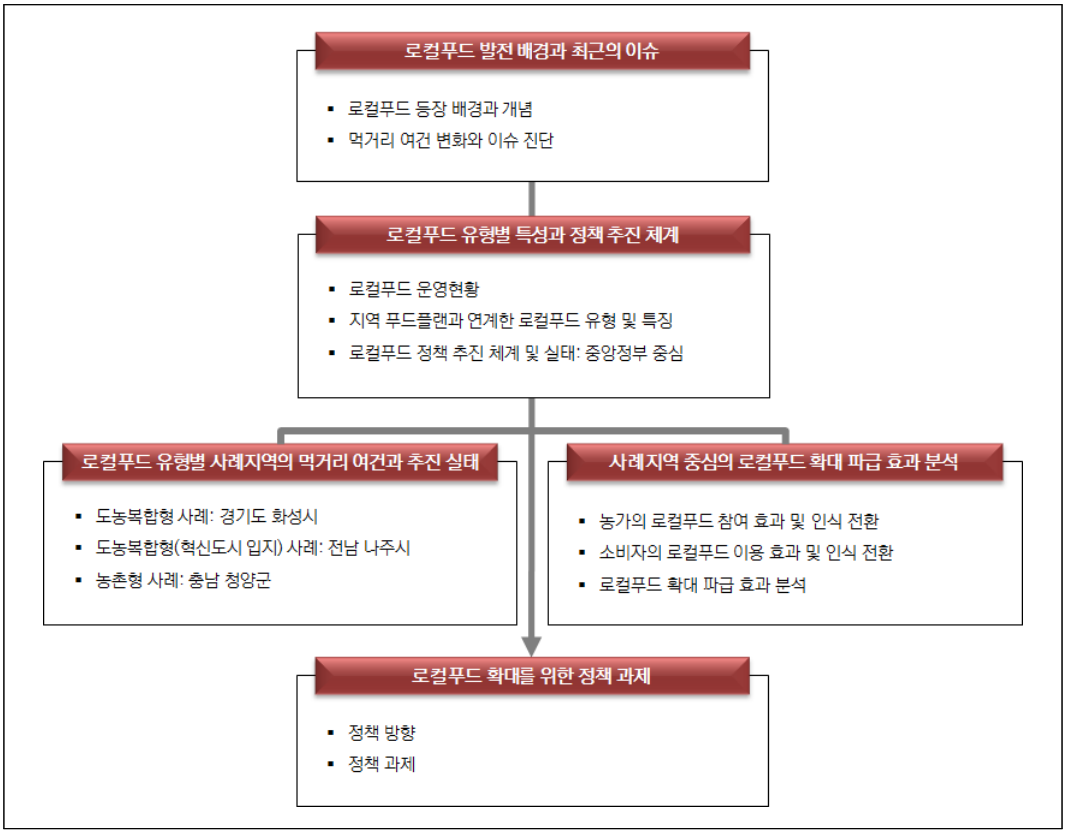
❍ 정부와 민간 부문의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및 연구소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정책협의회 개최

-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 추진 실태와 성과에 관한 점검 및 논의
-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 방향 및 필요 과제 검토

■ 발주처와 협업 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사 및 분석 진행 및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함.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2 로컬푸드 발전 배경과 최근의 이슈

1. 로컬푸드 등장 배경과 개념

1.1. 로컬푸드 등장 배경과 정책적 논의[1)]

❍ 산업화·도시화 이전에는 장거리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인구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 농식품이 생산·유통되고 소비됨. 즉, 대부분의 음식을 지역 생산 원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보편적인 농식품 유통 체계였음. 그러나 도시화·산업화·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푸드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범위가 넓어짐. 이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농식품 유통이 보편화되었으며, 국가 간 물류망을 통한 농식품 수입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확대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었던 1970년대까지는 도시지역은 지방과의 농식품 운송·거래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이 발달되고 농식품 유통이 이루어짐. 이에 비해 소비 기반이 약한 농촌지역은 상설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기시장이 지역의 농식품 유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2)] 이후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도시화, 산

1) 국승용(2012: 2-4)을 참조하여 정리함.

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식품 유통기구가 현대화되고 개별 유통기구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국 차원의 유통구조가 형성됨.

- 초기의 도매시장은 농산물을 전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도매시장의 인근지역에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함. 1985년 서울 가락도매시장이 개장되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단계적으로 건립되었음.
- 농촌지역은 정기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전환되고,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이 확산됨. 또한 농식품 시장 개방 추세가 확대되면서, 수입 농식품의 공급과 유통 대기업의 소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됨.
- 유통 대기업의 경우 독립적인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전국 또는 해외에서 수집한 농식품을 매장에 공급하는 현대적인 물류망을 운영함.

❍ 농식품의 대량생산과 전국적·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농식품유통은 인구 증가,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개인·지역 단위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먹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줌. 그러나 유통 범위 확대, 효율화 과정에서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의 저하 및 환경부담의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 단절이 유발되면서,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생산기반에 대한 국민의 중요성 인식이 약화됨. 또한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영세, 중소 생산자가 소외되면서 지역사회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함.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유통 먹거리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됨.

- 농산물 수송 거리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소요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 또한 유통시간이 길어지면서 농산물의 신선도가 저하됨.
- 대량유통이 주류인 농산물 시장에서 영세농가들이 재배한 소량의 농산물의 경우 판로가 제한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고령농과 영세농의 경우 낮은 소득으로 인해 농촌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됨.

---

2) 정기시장(定期市場)은 고정적으로 열리는 상설시장과 달리 지역 간 이구 이동이 별로 없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해주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방 중심지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열리는 시장을 말함(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21. 4. 2.).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사용 활성화 정책·사업을 실시함.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직거래 장터 등의 소비자 참여형 사업을 추진함. 2015년에는 로컬푸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하 「농산물직거래법」)을 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생산자 조직화 교육, 공동작업장 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을 직거래 운영주체에게 지원함.
- 「농산물직거래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됨.
- 2013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유통경로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 경로로서 직거래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2012년에 4%였던 직거래 비중을 2016년에 10%까지 증가시킬 것을 선언함.

❍ 기존 로컬푸드 정책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로컬푸드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함. 최근에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통해서는 로컬푸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먹거리 여건·환경을 반영하고,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국민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이에 정부는 2019년 '로컬푸드 3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인지도 제고, 지역 먹거리 여건과 중소 가족농 및 소비자를 고려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구함.

- '로컬푸드 3개년 추진계획'은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를 2019년 49.4%에서 2022년 70%까지, 로컬푸드 유통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2년엔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먹거리 공공성 등의 개념을 먹거리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지속가능성'. '순환성', '공공성' 등의 개념을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정과제

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이 포함되었음.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과정에서 '로컬푸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군 급식 품질 개선(국정 과제 83), 먹거리 복지 구현(국정과제 57) 등 먹거리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와 최근의 지역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역 농업과의 연계,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 등이 강조되는 등 지역농업,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2.2. 로컬푸드의 개념[3)4)]

❍ 로컬푸드는 '로컬(local)'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푸드(food, 식품)'가 결합된 개념임. 로컬푸드에서 '로컬'이 의미하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개념들은 '전국'에 상대되는 제한된 지역의 개념으로서 '로컬'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 로컬푸드에서 '로컬'이 의미하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국가별로 국토 규모, 행정구역 체계,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예컨대 국토 범위가 넓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전국이 로컬의 범위에 포함됨.

-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반경 48km를 로컬의 범위로 하고 있음. 그러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160km를 기준으로 함. 미국에서는 차를 이용하여 1일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반경 160km, 생산된 주(state)내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3) 국승용(2012: 5-6),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s://www.law.go.kr: 2021. 4. 16.), 바로정보 웹페이지(https://www.baroinfo.com: 2021. 4. 10) 등을 참조함.

4) 이 연구에서 로컬푸드의 관한 자료를 수집한 '바로정보 웹사이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정보를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통합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됨.

〈표 2-1〉 로컬의 공간적 범위: 해외 사례

국가	문헌 또는 단체	공간적 범위
영국	National Association of Farmer's Market	반경 48km 이내
	London Farmer's Market	외곽순환도로에서 160km 이내
미국	Fresh and local food in the USA	400km 이내 또는 차로 하루 내 갈 수 있는 거리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반경 160km 이내
	2008 Farm Act	생산지에서 640km 이내 생산된 주(州) 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 국승용(2012: 5).

❍ 절대적(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로컬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경우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로컬푸드에서의 '로컬'을 상대적·사회적 거리의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음.

❍ 국승용(2012: 5)은 "로컬의 범위를 절대적인 거리가 아닌 상대적인 거리로 이해한다면 로컬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함. 국승용(2012: 6)에서는 특정 거리(범위) 이내에서 생산되면 로컬푸드이고, 해당 권역 밖에서 생산되면 로컬푸드가 아니라는 절대적 관점보다는 가까울수록 로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상대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 즉, 상대적 개념을 적용할 경우 멀리서 생산된 것보다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하고, 멀리 떨어진 시군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해당 시군내 또는 인접 시군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정은미 외(2019: 12)의 경우에도 로컬푸드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협의의 개념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우, '광의의 개념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 축소'라고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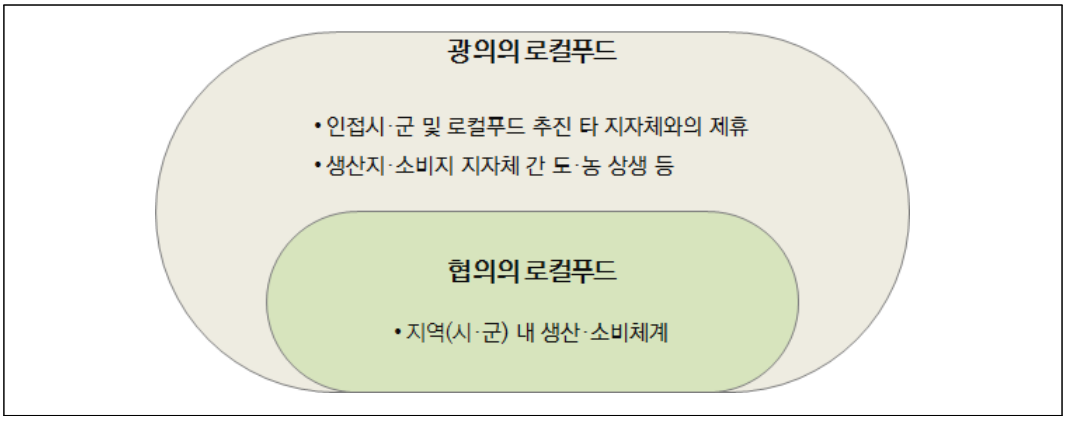
❍ 법률적으로는 법적 명확성을 적용하여 '지역농산물'을 일정 행정체계(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되어 해당 지역 범위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 법률적 측면에서는 로컬푸드의 정의에 행정적 개념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조(정의)에서 '지역농산물'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함)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함.

❍ 법률적 측면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개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행정)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함. 그러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활동들이 추진되는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할 경우 로컬푸드에서 '로컬'이 의미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접근·적용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정 지역(거리)내에서의 생산-소비를 로컬이라고 보는 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필요와 상황에 따라 로컬푸드를 통해 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가까운(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생산-소비도 로컬푸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그림 2-1〉 광의의 로컬푸드와 협의의 로컬푸드 개념



자료: 바로정보 웹사이트(https://www.baroinfo.com: 2021. 4. 7.).

2. 먹거리 여건 변화와 이슈 진단

❍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먹거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지역 단위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제기됨. 코로나19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확산되면서 먹거리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면서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2020년에 코로나19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확산되면서 국가, 지역, 개인 등 다양한 차원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먹거리 관련한 영역·부문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최근의 주요 먹거리 여건 변화와 이슈에는 ① 식량 공급 불확실성과 위기 확산, ② 먹거리 부족과 불균형 심화, ③ 먹거리에 기인한 환경 문제 지속, ④ 지방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 확대 등이 있음.

1.1. 식량의 공급 불확실성과 위기 확산[5)]

❍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증가, 식생활 다양화·서구화 추세와 함께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매년 막대한 양의 농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의 농식품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무역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상태임.

- 2009년에는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폭이 16,432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30,564백만 달러로 10년 만에 14,132백만 달러가 증가함.

5) 황윤재 외(2021: 223-2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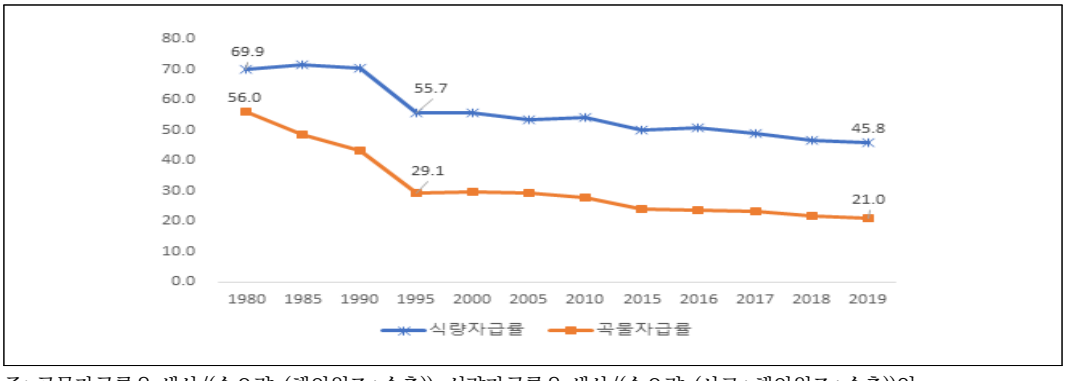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는 밀, 옥수수, 콩 등 대부분의 주요 곡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 곡물 수급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음.

- 2019년에 곡류 수출은 52백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3,782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은 1980년에 69.9%(56.0%)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45.8%(21.0%)에 그치고 있음. 자급률이 92.1%인 완전자급이 가능한 쌀은 식량자급률이 92.1%로 완전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나, 주요 곡물인 밀, 옥수수, 콩 등의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3.5%, 26.7%에 불과함. 옥수수와 콩의 경우 곡물자급률은 각각 0.7%, 6.6%에 불과함.

○ 국제 곡물 수급은 그동안 기상이변, 기후변화, 기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6]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이 낮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주기적인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 2-2〉 국내 식량자급률 및 곡물 자급률 변화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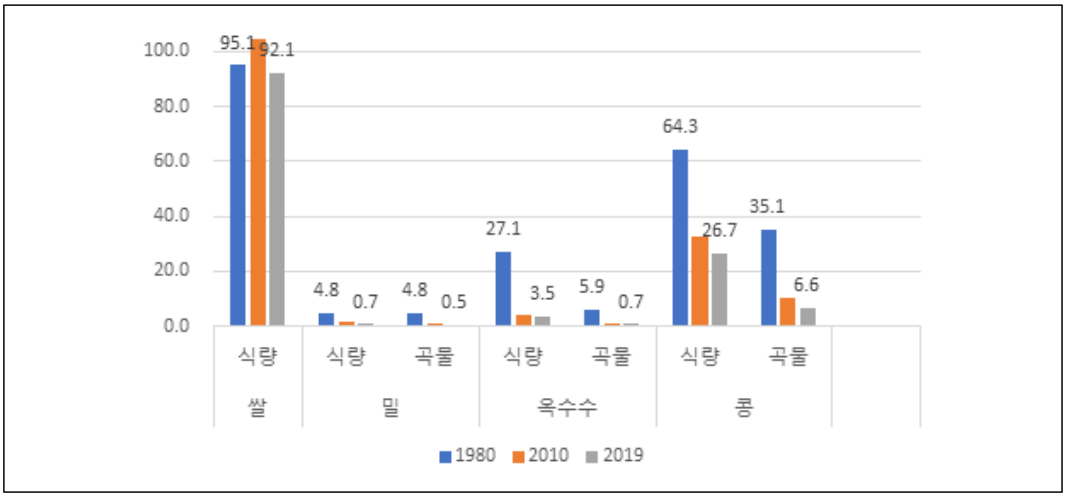


주: 곡물자급률은 생산/(수요량-(해외원조+수출)), 식량자급률은 생산/(수요량-(사료+해외원조+수출))임.
자료: 황윤재 외(2021: 224) 재인용.

6) 1980년대, 2010년대에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곡물 가격이 급등함. 또한 2007/08년의 애그플레이션과 2011/12년의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은 유가 상승,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급격한 식량 수요 급증,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사용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임(황윤재 외, 2021: 224-225).

〈그림 2-3〉 국내 품목별 자급률 현황

단위: %



주: 곡물자급률은 생산/(수요량-(해외원조+수출)), 식량자급률은 생산/(수요량-(사료+해외원조+수출))임.
자료: 황윤재 외(2021: 224) 재인용.

❍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공급 여건과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국물 접근성이 약화됨. 식량 위기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넘어서 엔데믹(endemic, 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이 때문에 식량 위기 의식과 식량 안보 확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음.

- 국제 곡물 재고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양호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각국의 국경 및 지역 봉쇄, 물류와 인력 이동 제한, 수출 항구의 방역 강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커지고, 곡물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됨.

❍ 식량안보 확보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며, 적정한 수준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2. 먹거리 부족과 불균형 심화[7)]

❍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는 먹거리가 풍요한 시대가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먹거리 풍요 속에서 기본적인 식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영양 섭취 부족과 영양 섭취 과다가 상존하는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은 식품비 지출액이 낮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식품을 섭취하기 어렵고, 균형 잡힌 영양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황윤재 외(2021: 227)에 따르면[8)],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경우 사회수혜금 혜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식료품지출액이 전체 가구의 8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9)][10)] 또한, 중위소득 30% 미만 수급자/비수급자의 경우 에너지(칼로리)는 물론 칼슘,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C 등 주요 영양소의 권장량 대비 섭취 비율이 낮은 수준인 반면, 식생활 불안정 비중과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식생활 관련 질병 유병률 등은 상대적으로 높음.

❍ 코로나19 발생·확산과 함께 경제·사회적 불안정·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먹거리 불안정성·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음.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은 먹거리에 기인한 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음. 또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 증가, 서구식 식생활 확산과 함께 영양 섭취가 불균형한 국민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

---

7) 황윤재 외(2021: 226-230)를 참조함.

8) 본 자료는 황윤재 외(2021)를 참고한 자료이며, 김상효 외(2021)가 원자료임.

9) 사회수혜금은 조직화된 사회보험기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혜금으로, 질병, 실직, 정년, 주거 및 교육 등의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 처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임. 사회보험 수혜금과 사회보조 수혜금으로 나뉨(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021. 6. 3).

10) 사회수혜금 혜택을 받은 경우 식료품 지출액(비주류음료 포함)이 전체 가구의 86.8%, 사회수혜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80.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황윤재 외(2021: 229)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이 심각했던 2020년 1분기에 가구의 대부분이 식품비 지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았음. 그러나 가구 소득이 100만 원대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 식품비 지출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오히려 유사하거나 낮았음. 2020년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이들 계층의 식품비 지출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이 식품비 지원에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줌.

〈표 2-2〉 취약계층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비율

단위: %

구분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중위소득 30%미만	수급자	88.1	124.9	61.4	124.4	112.1	43.4	105.0	99.5	83.9	48.4
	비수급자	88.1	114.4	55.6	122.9	114.9	44.9	111.1	95.7	82.0	53.2
중위소득 50% 이상		97.2	148.8	69.3	142.9	113.5	61.5	126.0	131.5	102.2	73.9

주: 식품섭취량 조사자료(24RC)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영양섭취비율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2015년)을 적용함.
자료: 황윤재 외(2021: 228)를 참조하였으며, 원자료는 김상효 외(2021)임.

〈표 2-3〉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표와 질병 유병률

단위: %

구분		식생활 불안정 비중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에너지 부족 비중	질병 유병률			비만율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위소득 30%미만	수급자	20.7	21.1	42.7	42.9	17.8	20.0	22.2
	비수급자	6.9	19.3	39.9	41.6	13.7	19.5	18.8
중위소득 50% 이상		1.2	12.4	30.1	18.9	6.4	14.0	18.0

주: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이며, 에너지 부족 비중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 섭취자 분율임.
자료: 황윤재 외(2021: 229)를 참조하였으며, 원자료는 김상효 외(2021)임.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 심화, 계층 간 식품 및 영양 섭취 불평등 확산, 국민 영양 불균형 등은 국민 삶의 질 저하와 영양·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의 의료 및 질병 비용이 증대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심화됨. 국민의 영양·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불안정과 불균형 등 먹거리에 기인한 건강·영양상의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국민 먹거리 보장, 먹거리 공공성 등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취약계층이 직면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충분하고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단위에서의 접근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보다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 단위에서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로컬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고 지역 생산 기반 강화에도 활용하고자 함.

2.3. 먹거리에 기인한 환경문제 지속

❍ 경제, 산업 및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을 초래하여 먹거리 생산은 물론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6년의 파리협정 이후에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며 탄소중립 선언을 함.[11]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함.

❍ 국가 간 농식품 교역이 확대되고, 대량유통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농식품이 생산된 이후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장거리를 이동하게 됨. 이로 인해 식품 수송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식량을 수입하는 식량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

- 푸드마일리지는 먹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임. 우리나라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2010년 기준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1) 네이버 블로그 자료 참조(https://blog.naver.com/adisabaa/222372710197: 2021. 6. 2.).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 유통, 대량소비 시스템 속에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되는 농식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푸드 마일리지가 해마다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됨.

❍ 최근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단위 푸드시스템 구축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 소비까지의 농식품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푸드마일리지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 차원에서도 접근되고 있음.

〈표 2-4〉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

단위: t·㎞/인

연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2003년	3,456	5,671	2,365	777
2007년	5,121	5,462	2,584	869
2010년	7,085	5,484	2,337	739

자료: 황윤재 외(201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웹페이지(http://www.klca.or.kr: 2021. 6. 1.)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글상자 1〉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 증대 및 식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 랭(Tim Lang)이 처음으로 사용함.
-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는 농축수산물이 생산된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로, 식품의 물량에 실제 이동거리를 곱하여 계측함. 푸드 마일리지의 값이 클수록 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송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짐을 나타내는 간접적 지표임.
- 푸드 마일리지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푸드 마일리지에 수송 수단별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2021. 4. 5.), 성미애 외(2010).

2.4. 지방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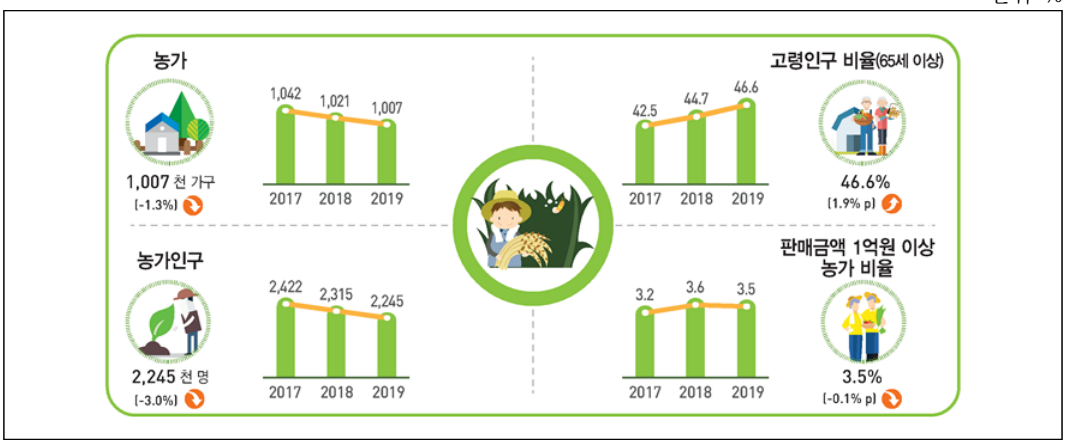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및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들로 인한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 변화가 농업·농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업·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경제사회적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농촌지역 내에서도 읍 지역과 면 지역 간 인구 격차가 확대되면서, 읍 지역의 과소화 경향이 보다 심화되는 추세임.[12)]

- 농가 수는 2017년 1,042천 가구에서 2019년 1,007천 가구로 약 35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2,422천 명에서 2,245천 명으로 177천 명이 감소함. 이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42.5%에서 46.6%로 3년 만에 4.1%p가 증가함.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46%(105곳)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으며, 인구 소멸 위험지역 105곳 중에서 92%(97곳)는 지방임.[13)] 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5년 전에 비해 11%p(25곳)가 상승함.

〈그림 2-4〉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재인용(2020년 4월 16일자 보도자료,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12)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 비율이 0.5이하인 지역,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나타냄(고용정보원 웹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keis.or.kr: 2021. 6. 1).

13) 파이낸셜 뉴스 보도자료(2021년 6월 1일자 보도자료, "'소멸위기'인구감소지역 100곳에 재정특례 부여").

❍ 농업·농촌인구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여건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못함. 농가소득 수준은 전국 가구(비농어가) 또는 도시근로자에 비해 낮은 편임. 또한 이들 계층 간 소득수준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농촌(읍·면)지역 거주 가구 비중이 도시(동)지역 비중보다 높은 편임(이계임 외, 2017: 26).

- 농가소득은 2003년 26,878백 원에서 2016년 37,197백 원으로 10여 년 동안 연평균 2.53% 증가함. 같은 기간 전국 가구소득은 21,117백 원에서 44,268백 원으로 연평균 3.84%,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9,308백 원에서 48,844백 원으로 연평균 4.01% 증가함.
-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1.2%가 읍·면지역에 거주함. 그러나 최저생계비(중위소득 29%) 이하 가구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 비중이 29.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사회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은 기초 먹거리의 안정적 제공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요구되는 기능·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국가적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와 코로나19 이후에 심화된 먹거리 위기의식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먹거리 생산 기반의 유지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 생산 기반의 유지·발전은 물론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사회의 유지·발전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3 로컬푸드 유형별 특성과 정책 추진 체계

1. 로컬푸드 운영 현황

1.1.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 최근의 로컬푸드 활성화는 주로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학교급식, 농가 레스토랑, 로컬푸드가공센터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을 통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 유통단계를 없앰으로써,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임. 2021년 3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매장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국 134개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운영 중이며, 전체 직매장은 554개소임.

- 전국 직매장 554개소 중에서 정부지원 매장이 134개소이며, 농협 운영 매장이 전체의 83% 비중을 차지함.

〈표 3-1〉 로컬푸드 직매장 유형별 현황

구분		계	독립매장	복합매장	코너
계		554	131	342	81
공공	소계	19	19	0	0
	지자체 직영	3	3	0	0
	재단법인	15	15	0	0
	민간위탁	1	1	0	0
민간	소계	535	112	342	81
	농협	469	47	341	81
	협동조합	24	24	0	0
	영농조합법인	18	17	1	0
	농업회사법인	17	17	0	0
	산림조합	5	5	0	0
	기타	2	2	0	0

주: 독립매장은 독립된 건물 또는 층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운영하는 매장, 복합매장은 하나로마트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직매장(shop in shop), 코너는 농축협 영업점, 농협은행, 관공서, 유통점포 등의 공간에 설치된 판매구역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웹페이지, https://nhlocalfood.com: 2021. 6. 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참조.

❍ 로컬푸드 직매장은 운영주체별로 지방자치단체운영형, 지역농협운영형, 생산자단체운영형 등이 있음.[14]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재단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직매장을 운영함. 재단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주시, 청양군, 화성시 등이 있음.
- 지역농협의 경우 기존 소매사업(하나로마트)의 공간 일부에 로컬푸드 매대를 설치하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주로 운영되며,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의 상당 비중을 점유함.
- 생산자단체가 개설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됨. 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직매장이 생산자단체가 직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임.[15]

14) 정은미 외(2019: 62) 참조.
15)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인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5년에 창립됨.

1.2. 로컬푸드 공공급식 현황

❍ 2010년대 이후 학교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급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추진됨.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식재료 공급의 거점으로 활용하였음.

❍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이 정부의 주요 먹거리 정책 과제로 제시되면서, 로컬푸드(지역 농산물)를 지역의 공공급식에 공급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식생활 필요를 충족하며, 지역의 농업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확산됨.

- 공공급식은 기존의 학교급식을 포함하거나,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공익적 성격을 갖는 기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

❍ 공공급식을 통해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두거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함.

- 대부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가 독립되어 있는 반면, 대전 유성구, 춘천시의 경우 통합 조례 내에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항이 분리되어 있으며, 대전 유성구와 춘천시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항이 통합되어 있음.[16)]

❍ 공공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완주군, 전주시와 같이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되거나(통합운영), 나주시와 같이 지역 내에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독립운영).[17)]

---

16) 황윤재 외(2019: 37) 참조.

〈표 3-2〉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립·운영 형태

구분	유형	주요 사례
운용체계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관계)	통합운영	완주군, 전주시, 청양군, 화성시
	독립운영	나주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운영단위	광역단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단위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나주시, 완주군, 청양군, 화성시
운영주체	법인형	나주시, 완주군, 전주시, 청양군, 화성시
	위탁형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형	세종특별자치시
시설입지 (생산기반 유무)	생산기반 미보유형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생산기반 보유형	나주시, 완주군, 전주시, 청양군,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황윤재 외(2019: 68)에서 재인용함.

1.3. 기타 로컬푸드 추진 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로컬푸드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서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가공센터 등이 활용되고 있음.

1.3.1. 로컬푸드가공센터

❍ 첫째, 로컬푸드가공센터는 신선농산물 중심의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함으로써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증대, 소비자의 수요 충족과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로컬푸드가공센터는 생산품목별로 품목중심 생산유형과 다품목 생산유형, 운영유형별로 행정직영, 위탁운영 등으로 구분됨.[18]

- 생산품목별로 품목중심 생산유형에는 장수군, 용인시, 유성구, 청양군 등, 다품목생산유형에는 완주군, 강화군, 의령군 등이 있음. 운영유형별로 행정직영에는 완주군, 청양군 등, 위탁운영에는 장수군, 유성구 등이 있음.

17) 황윤재 외(2019: 67) 참조.

18) 농림축산식품부(2021: 369-370) 참조.

〈표 3-3〉 로컬푸드 가공센터 수립·운영 형태

구분	유형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생산품목별	통합운영	• 설비형태: 중소규모 생산설비 • 가공품목: 지자체 핵심품목	장수군, 용인시, 유성구, 청양군
	독립운영	• 설비형태: 소형다품목 설비 • 가공품목: 다품목 농산물	완주군, 강화군, 의령군
운영유형별	광역단위	• 운영형태: 시/군 직영 • 시설소유: 지방자치단체 • 운영방법: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완주군, 청양군
	기초단위	• 운영형태: 위탁운영(관내 단체 등) • 시설소유: 지방자치단체 • 운영방법: 직영 후 지역 업체에 위탁운영	장수군, 유성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370)을 참조하여 작성함.

1.3.2. 농가레스토랑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로컬푸드를 식재료로 이용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지역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농가레스토랑은 운영형태별로 로컬푸드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형과 농가레스토랑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단독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19)]

-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지역 사례 중에서 복합형은 완주군(‘해피스테이션’), 순천시(‘여미락’), 청양군(‘농가밥상’), 진안군 등, 단독형은 완주군(‘새참수레’, ‘비비정’) 등이 있음.

19) 농림축산식품부(2021: 297) 참조.

2.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로컬푸드 유형 및 특징

❍ 최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정책은 지역별 먹거리 여건·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지역 푸드플랜을 기초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된 양상·내용에 차이가 발생함.

2.1. 지역 입지에 따른 분류[20)]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입지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 푸드플랜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기초단위 지역(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광역형으로 별도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도시형이 명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이들 3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분류가 필요함.

2.1.1. 도시형 푸드플랜

❍ 도시형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유통 및 소비가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추진됨. 이에 따라 생산 및 가공 등과 관련된 사항 보다는 먹거리 정의, 복지, 건강, 안전 등의 유통 및 소비 관련된 사항이 주요 관심사항임.

---

20)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서울특별시 공공급식 웹페이지(https://donong.seoul.go.kr: 2021. 6. 1.) 등을 참조함.

❍ 도시형 푸드플랜의 경우 지역 내에 로컬푸드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기 보다는 주로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이 당면한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이 있음.

❍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대덕구 등이 대표적인 도시형 푸드플랜 추진 지역으로 분류됨. 도시형 푸드플랜인 경우에도 지역민에게 충분하게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있음. 예컨대, 서대문구는 지역 농산물 생산기반이 전혀 없는 반면, 대전 유성구는 일부 지역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 경우 2018년에 전라북도 전주시와 '도농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이밖에도 강동구(협약산지: 완주군), 금천구(협약산지: 나주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등 동북4구(협약산지: 부여군, 홍성군, 원주시, 담양군), 동작구(협약산지: 강진군), 은평구(협약산지: 군산시), 중랑구(협약산지: 영광군), 송파구(협약산지: 안동시), 동대문구(협약산지: 남원시), 영등포구(협약산지: 김해시) 등이 협약을 맺고 협약지역의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고 있음.
- 대전시 대덕구는 2021년에 인구 30만 명 이상 소비지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협력해 운영하는 방식의 대도시형 직매장 조성사업에 선정됨.

2.1.2. 농촌형 푸드플랜

❍ 농촌형 푸드플랜은 생산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지역 또는 도농복합지역에 비해서는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비 기반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따라서 생산 구조 양극화, 농업소득 불안정 등 농업·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주요 관심사항임.

❍ 로컬푸드(지역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지역의 농업·농촌이 당면한 경제적, 구조적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 이어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 지역 먹거리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유지·발전을 도모함.

❍ 충청남도 청양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부안군 등 다양한 지역들이 농촌형 푸드플랜 지역으로 분류됨.

2.1.3. 도농복합형 푸드플랜

❍ 도농복합형은 지역 내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임. 일반적으로 생산기반이 약한 도시형과 소비기반이 약한 농촌형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을 갖추고 있음. 도시형과 농촌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지역 내에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로 이해 발생하는 지역 공동체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임.

❍ 도농복합형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도시 지역 소비자와 농촌 지역 생산자 간 연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지역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먹거리 보장 수준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 유지·발전을 도모함.

❍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는 다양한 지역이 도농복합형 푸드플랜으로 분류됨.

2.1.4. 광역형 푸드플랜

❍ 경상남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도시농업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 먹거리 생산기반이 없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 내에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 다양한 특성의 지역을 포함하며, 이들 기초 단위 지역에서 별도의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예컨대,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지원사업에 광역형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지역 내 금산군, 예산군, 청양군 등의 농촌형 푸드플랜 추진 지역과 서산시와 같은 도농복합형 푸드플랜 추진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형 푸드플랜의 경우 지역 내에서 광역 단위 푸드플랜과 기초 단위 푸드플랜 간에 협력·연계 및 보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2. 먹거리 역할에 기초한 분류[21)]

❍ 지역 푸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논의되는 지속가능성은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에 기초한 개념임. 이를 푸드시스템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내에서의 먹거리 역할에 따라 푸드플랜을 구분할 경우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으로 구분할 수 있음.

2.2.1.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지역생산과 지역소비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경제와 농촌사회의 활성화, 지역재생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둔 유형임. 농촌형 또는 도농복합형 등 먹거리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푸드플랜이 주로 이에 속함.

---

21) 김종안 외(2019: 178-213) 참조.

❍ 추진방식에 따라 공공기관 주도형 모델과 민관협력 모델로 구분할 수 있음. 공공기관주도형 모델은 재단법인 등의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업주체가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그리고 관계시장 구축 등을 주도하는 모델임. 나주시, 전주시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농촌형 또는 도농복합형 푸드플랜의 대부분이 이에 속함.

❍ 민관협력형 모델은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민간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임. 외국 사례 중에서 미국의 뉴욕시가 대표적인 사례임.

2.2.2. 먹거리 보장형 푸드플랜

❍ 건강·영양 수준 제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보장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유형으로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역과 비교할 때 먹거리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시형 푸드플랜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임. 서울시 서대문구, 대전시 유성구 등의 지역 푸드플랜이 이러한 유형에 속함.

2.2.3.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먹거리가 균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둠. 따라서 로컬푸드형과 먹거리보장형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며, 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민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에 비해 로컬푸드형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지역 경제 활성화, 먹거리 보장 등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함.

❍ 이에 따라 로컬푸드형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기반한 정책 수립·추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함. 그러나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의 참여·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사회가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3. 로컬푸드 정책 추진 체계 및 실태: 중앙정부 중심

3.1. 조직 및 법령

❍ 로컬푸드 관련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농촌사회복지과에서 로컬푸드, 지역푸드플랜 등 로컬푸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 로컬푸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가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식생활교육에 관한 업무는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에서 담당함.

❍ 로컬푸드는 국가단위 법령에서 이용하는 법률적 용어는 아님. 국가단위 법령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대신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함. 로컬푸드 관련 주요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하 '농산물직거래법')임.

❍ 「농산물직거래법」 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사 소득증대 및 소비자 이익보호 등을 도모함(제1조 목적). 이를 위해 동 법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농산물직거래법」 이외에 '지역농산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단위 법률은 「외식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등 일부 법령에 불과함.

〈표 3-4〉 농산물직거래법 구성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제5조~제8조)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제12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전문기관의 지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농업인의 조직화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제13조~제18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상생협력사업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제19조~제20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1조~제28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인증의 신청 등,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심사 서류 보관,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7장 보칙 (제29조~제31조)	청문,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32조~제34조)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s://www.law.go.kr: 2021. 2. 23.).

〈표 3-5〉 외식산업진흥법 및 전통주산업법 상의 지역농산물 관련 조항

법령 및 조항		주요 내용
외식산업 진흥법	제16조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s://www.law.go.kr: 2021. 2. 23.).

3.2. 주요 정책 및 사업

3.2.1. 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정책 계획임. 2016년에 처음으로 수립되어 2021년까지 이를 바탕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정책·사업이 추진됨.

- 직거래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표적인 직거래 모델임. 이밖에 직거래 유형으로 꾸러미, 직거래장터, 온라인쇼핑몰 등이 있음.[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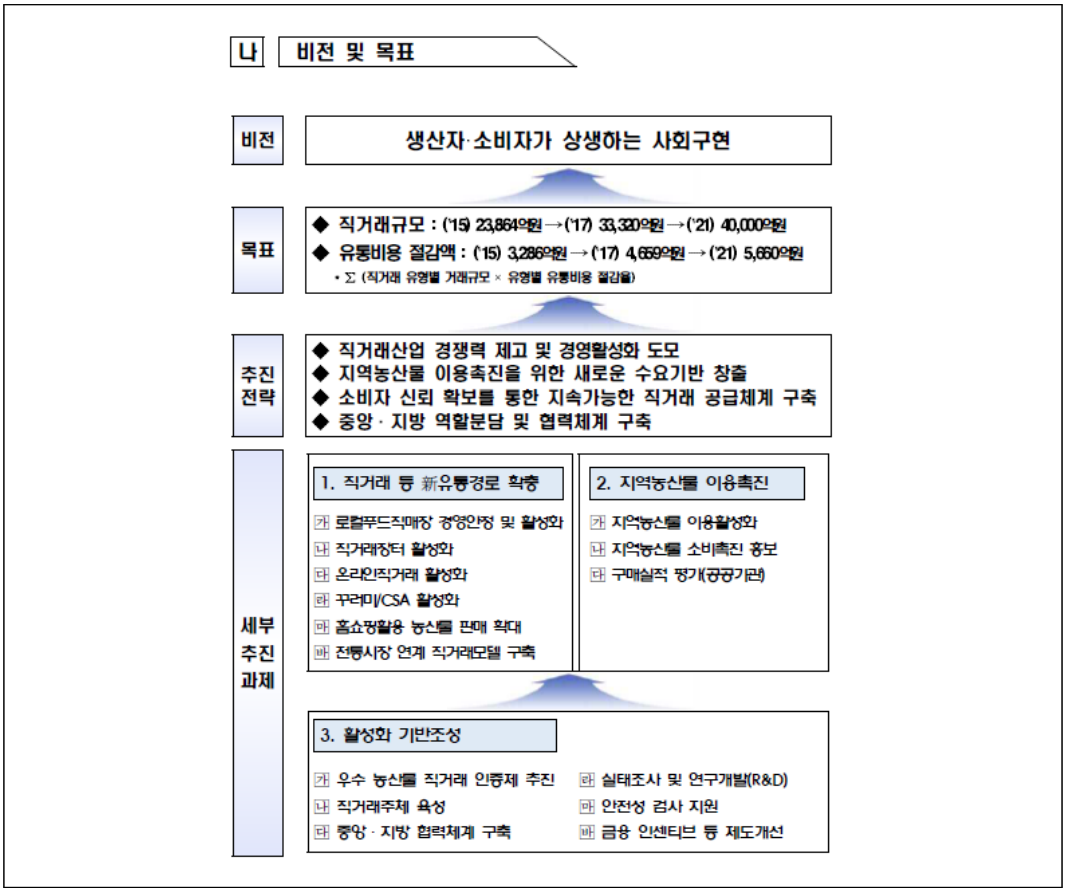
❍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은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① 직거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활성화 도모 ②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기반 창출 ③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직거래 공급체계 구축 ④ 중앙·지방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함.

❍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은 ① 직거래 등 신(新)유통경로 확충 ②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③ 활성화 기반조성 등 3개 부문에 걸쳐서 총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중 특히 ①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충에서 ‘㉮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안정 및 활성화’ ②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서 ‘㉮ 지역농산물 이용활성화’,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 구매실적 평가(공공기관)’ 등이 로컬푸드(지역농산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 이밖에 ③ 활성화 기반조성에서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추진’, ‘㉯ 직거래주체 육성’ 등도 로컬푸드와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음.

22) 농림축산식품부(2016: 5).

〈그림 3-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13).

3.2.2. 로컬푸드 확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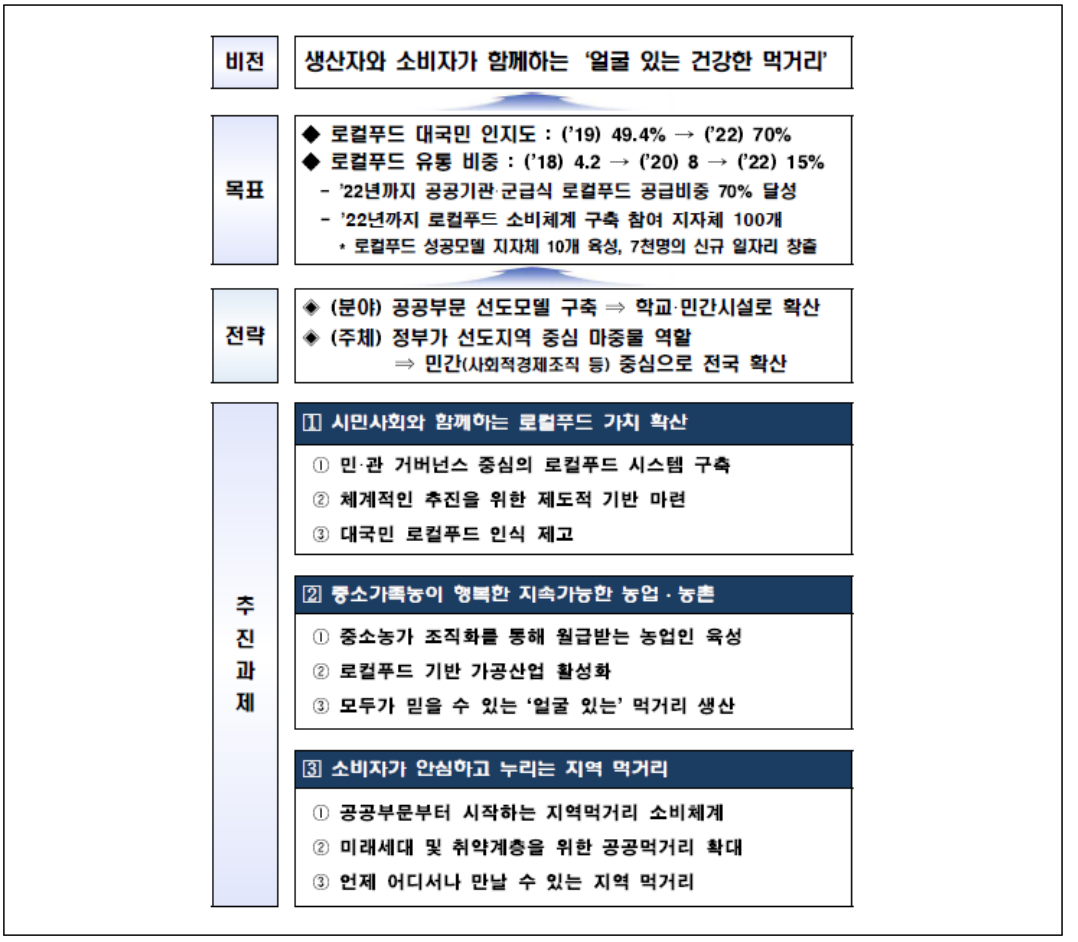
❍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이하 '로컬푸드 확산 계획')은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미래 장기 비전과 추진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개년 실행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됨.

❍ '로컬푸드 확산 계획'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비전으로 하여 ① '공공부문 선도모델 구축 ⇒ 학교·민간시설로 확산' ② '정부가 선도지역 중심 마중물 역할 ⇒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 중심으로 전국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추진과제로는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2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3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 등 3개 부문에 걸쳐서 총 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로컬푸드 확산 계획'은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마련되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로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음.

- 추진과제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의 '②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3-2〉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7).

3.2.3. 지역 푸드플랜 정책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은 2017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과제')에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본격화됨.

-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지역 풒드플랜 확산을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함.

❍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이전에는 전주시, 화성시, 옥천군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도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함.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글상자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먹거리 안전 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 • 직매장·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② 농업인 소득 증대, ③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④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년 5월 13일자, "우리 지역 먹거리를 더 가치있게! 농식품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푸드플랜이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① 먹거리 실태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지원하고, ②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팀으로 참여하여 해당지역의 푸드플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푸드플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을 묶어서 5년간 포괄적으로 지원(패키지 지원)하며, 푸드플랜 전담자문가(Family Doctor: FD)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푸드플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자문가를 위촉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표 3-6〉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방자치단체(2020년 2월 현재)

구분		지방자치단체(65개)	
		기초(50개)	광역(15개)
2017년	자체 수립(4개)	전주, 화성, 옥천	서울
2018년	수립 지원(9개)	서대문구, 유성구, 청양, 해남, 완주, 나주, 춘천, 상주	충남
	자체 수립(6개)	군산, 아산, 홍성	경기, 경남, 세종
2019년	수립 지원(23개)	경기 5(수원, 용인, 이천, 평택, 포천), 충북 1(괴산), 충남 2(서산, 부여), 전북 3(익산, 김제, 부안), 전남 3(담양, 순천, 장성), 경북 2(구미, 안동), 경남 3(거창, 김해, 진주), 대전 1(대덕구)	부산, 전남, 제주
	자체 수립(5개)	광주, 시흥, 평창, 당진	대전
2020년	수립 지원(18개)	강원 1(홍천), 충남 2(금산, 예산), 전북 1(남원), 전남 2(광양, 영암), 경북 3(김천, 영주, 칠곡), 경남 2(거제, 통영), 광주 1(광산구)	강원, 경북, 울산, 인천, 전북, 충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웹페이지(https://www.mafra.go.kr: 2021. 6. 1.).

■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함.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은 2019년 8개에서 2020년 16개로 확대됨.

- 2020년 대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12개, 농촌진흥청 2개, 시·도 2개 등 총 16개임.

〈표 3-7〉 로컬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사업 개요

구분	2019년(8개)	2020년(16개)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APC,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 농산물직거래(직매장설치, 교육·홍보)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APC,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 농산물직거래(직매장설치,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 기획생산체계구축)
농촌진흥청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시·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향토산업육성

주: 시·도 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육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에서 해당사업을 푸드플랜 추진 시·군에 지원할 경우 패키지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년 5월 13일자, "우리 지역 먹거리를 더 가치있게! 농식품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 패키지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5년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자문가(FD, Family Doctor) 제도를 운영함.

❍ 2020년에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중 8개를 선정하여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16개 농림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유형(도농복합형, 농촌형, 도시형)과 지역농산물 공급 기반(유통·가공시설 신설 또는 기존 시설 보완) 등에 따라 상이함. 2020년에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년간('20-'24) 4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2020년에 구미시, 김제시, 남해군, 서산시, 유성구, 이천시, 장성군, 진주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16개 농림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함.

〈표 3-8〉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규모

단위: 억 원

2019년	지자체	화성	세종	청양	군산	완주	전주	나주	해남	상주	합계
	지원예산(국고)	93	19	22	33	46	7	74	46	64	404

2020년	지자체	서산	장성	유성	이천	구미	남해	진주	김제	합계
	지원예산(국고)	29	49	2	67	118	27	112	27	431

주: 지방이양사업의 당초 국비 지원규모(지방이양으로 도비로 전환됨)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년 5월 13일자, "우리 지역 먹거리를 더 가치있게! 농식품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3.2.4.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선도 주체를 육성하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음. 인증 직매장에는 직거래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장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산물 직매장을 대상으로 하여 직거래농산물 비중, 고령 및 여성농업인 참여 비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인증함.
- 2020년 현재 총 28개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직매장이 운영 중임.

〈표 3-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육성하고 유사 직매장 난립에 따른 소비자 보호
	지원대상	직거래사업장(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사업장 등)
	사업내용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증부여
	추진근거	농산물직거래법 제21~28조, 세부실시요령
	인증기준	직거래(지역)농산물 취급비중, 취급수수료율, 직거래 생산정보 표시, 생산자관리, 안전성관리 등 * 유효기간 : 2년(기간 내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추진절차	신청접수 → 인증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 →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 심의 →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정기조사(연1회, 20%이내), 위반사업자 행정조치, 인증정보 관리 등
인증현황		총 28개 직매장('17년도: 12개소, '18: 9, '19: 7)
인센티브 지원		• 홍보마케팅비 지원 : 개소당 10백만 원(최초 1회에 한함) • 기타 홍보(사례집 제작, 기획기사 등) 및 해외연수 참가 지원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년 2월 27일자, "농식품부, 2019년 '우수 직거래 사업장' 7개소 선정!").

3.2.5. 로컬푸드 지수[23)]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인 '로컬푸드 지수(Localfood Index)'를 도입함. 로컬푸드 지수를 통해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며, 지역별 현재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 로컬푸드 지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별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공표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함.
-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소비자 시민모임, 지역사회, 학계·연구계,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협의를 하여 지수를 설계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수를 확정하였음.

❍ 로컬푸드 지수는 3개 대분류, 12개 평가과제, 1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대분류에는 ①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먹거리 거버넌스 등이 포함됨.

- 로컬푸드 지수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정연도에 각각의 지표별 배점을 총합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함. 평가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등급을 발표하여 우수 지역은 포상하고, 등급에 따라 정책 사업을 맞춤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2020년부터 현장에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역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함. 2020년에 전국 159개 시준의 로컬푸드 실적을 측정하고, 점수에 따라 6가지 등급(S-A-B-C-D-E)을 부여했으며, 그 결과 전북 완주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그룹으로 선정됨.[24)]

- 159개 시군 중 S등급 1개, A등급 2개, B등급 10개, C등급 이하 146개로 평가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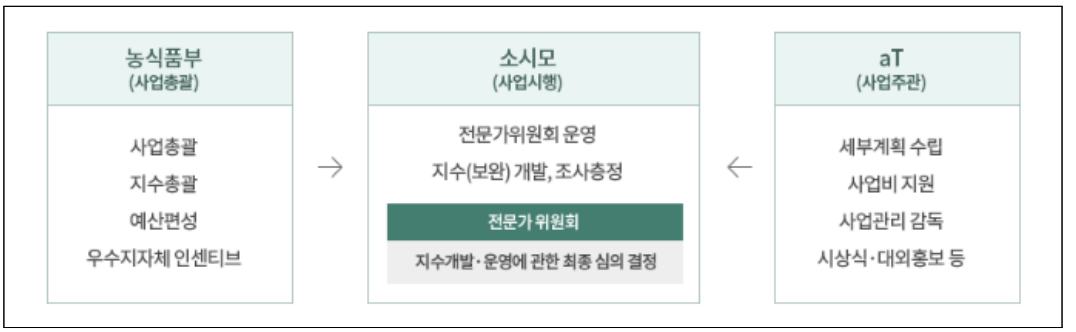
23) 바로정보 웹페이지(https://www.baroinfo.com/: 2020. 12. 29), (사)소비자시민모임 웹페이지(http://www.consumerskorea.org/press/reference?uid=953&mod=document: 2021. 2. 24)를 참고하여 작성함.

24) 2020년에는 3개 대분류, 7개 평가과제, 10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실천 노력과 확산 실적을 측정함.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3-3〉 로컬푸드 지수 추진경과

자료: 바로정보 웹페이지(https://www.baroinfo.com/front/M000000318/index/view.do: 2020. 12. 29).

〈그림 3-4〉 로컬푸드 지수 운영체계



주: 소시모는 소비자시민모임을 말함.
자료: 바로정보 웹페이지(https://www.baroinfo.com/front/M000000318/index/view.do: 2020. 12. 29).

대분류	중분류	평가과제	지표명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생산	1 기획생산 촉진	① 인구 대비 참여농업인 수, ② 참여농업인 중 취약농업인 비율
		2 안전성 관리	③ 참여농업인 대비 안전성 검사 건수, ④ 안전성 관련 인증건수 (④-1. 지역푸드 인증 여부 및 실적, ④-2. GAP 인증 실적), ⑤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중
	소비	3 지역먹거리 공공조달	⑥ 기타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액
지역경제 활성화	-	4 농가소득 안정	⑦ 적정 로컬푸드 소득(정산액) 농업인 비율(월평균 100~300만 원 구간)
		5 일자리 창출	⑧ 로컬푸드 관련 신규 고용효과
먹거리 거버넌스	-	6 시민참여	⑨ 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7 공공정책	⑩ 푸드플랜 공적추진체계 마련

자료: (사) 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2020년 11월 3일자, "2020 로컬푸드 지수 측정, '전북 완주군' 등 13개 우수 그룹 선정").

〈표 3-10〉 로컬푸드 지수 구성

대분류	중분류	평가과제	지표명	배점	비고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생산재편	기획생산 촉진	인구 대비 참여농가 수(명)	7.5	’20년
			참여농가 중 취약농가 비율(%)	가점	’21년 이후
		지역가공 장려	지역가공품 판매 비중(%)	5.0	’21년 이후
		환경농업 촉진	친환경인증 농가 비율(%)	5.0	’21년 이후
		안전성 관리	참여농가 대비 안전성 검사 건수(건)	7.5	’20년
			안전성 관련 인증 건수(건)	가점	
	소비촉진	먹거리 접근성 개선	인구 대비 직매장 수(개소)	7.5	’21년 이후
			인구 대비 직매장 매출액(백만 원)		
		먹거리 공공조달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중(%)	7.5	’20년
			기타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중(%)	가점	
		신뢰관계 증진	생-소 소통활동 참여자 수(명)	10.0	’21년 이후
			미래세대 먹거리교육 이수자 비율(%)	가점	
지역경제 활성화	-	농가소득 안정	적정소득 농가 비율	12.0	’20년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관련 신규 고용 효과(명)	5.0	’20년
		사회적경제 촉진	사회적경제조직 매출 비중(%)	5.5	’21년 이후
먹거리 거버넌스	-	시민참여	먹거리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15.0	’20년
		공공정책	푸드플랜 공적추진체계 마련	12.5	’20년

자료: 바로정보 웹페이지(https://www.baroinfo.com/front/M000000318/index/view.do: 2020. 12. 29).

〈표 3-11〉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구분	지방자치단체								
등급	경기 (31)	강원 (18)	충북 (11)	충남 (15)	전북 (14)	전남 (22)	경북 (23)	경남 (18)	기타 (7)
S : 1개	-	-	-	-	완주군	-	-	-	-
A : 2개	-	-	옥천군	-	-	나주시	-	-	-
B : 10개	화성시	원주시 춘천시	음성군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군산시	장성군	-	-	세종
C : 37개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인제군 홍천군	진천군 청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광양시 담양군 무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주시 안동시 칠곡군 포항시	김해시 진주시 함양군 하동군	제주

구분	지방자치단체								
등급	경기 (31)	강원 (18)	충북 (11)	충남 (15)	전북 (14)	전남 (22)	경북 (23)	경남 (18)	기타 (7)
D : 50개	수원시 양평군 연천군 파주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횡성군	단양군 영동군 증평군 충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고창군 순창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경산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청송군	거제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합천군	강화군 달성군 울주군
E : 59개 (실적 미제출)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괴산군 보은군 제천시	계룡시	무주군	고흥군	군위군 문경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기장군 옹진군
미제출율(%)	67.7	55.6	27.3	6.7	7.1	4.5	47.8	50.0	28.6

자료: (사) 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2020년 11월 3일자, “2020 로컬푸드 지수 측정, ‘전북 완주군’ 등 13개 우수 그룹 선정”).

4 로컬푸드 유형별 사례지역의 먹거리 여건 및 추진 실태

❍ 이 장에서는 지역 입지에 따라 분류되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지역 푸드플랜 중 서울특별시 등과 같은 도시형을 제외한 농촌형 사례로서 충남 청양군, 도농복합형으로는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를 선정하여 먹거리 관련 여건 및 환경, 로컬푸드 주요 추진 현황을 검토함.

1. 도농복합형 사례: 경기도 화성시

1.1. 지역 먹거리 여건과 환경

1.1.1. 일반 현황

❍ 화성시는 경기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693.9㎢으로 4읍 9면 15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임. 2020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66.3%로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쟁력이 가장 높은 지역임.[25][26]

25) 화성시는 인구증가율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2019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GRDP)도 78조 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고(2018년 기준), 제조업체 규모, 수출규모, 고용률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임(화성시 웹페이지 참조, https://www.hscity.go.kr: 2021.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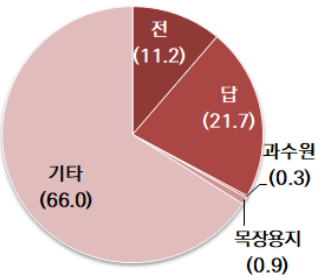
-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전, 답의 비중이 각각 11.2%, 21.7%이며, 과수원 0.3%, 목장용지 0.9%임(2018년 기준).

〈그림 4-1〉 화성시 행정구역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2021. 3. 6.).

〈그림 4-2〉 화성시 토지 지목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6)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함(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s://lofin.mois.go.kr: 2021. 3. 6.).

❍ 화성시는 지역 성장세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도 2004년 286,736명에서 2018년 798,100명으로 연평균 7.6%씩 증가하였음. 2018년 기준으로 화성시에 총 301,0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798,100명으로 세대 당 인구가 2.5명 수준이며, ㎢당 인구밀도는 1,150명임.

- 전체 인구 중 남성 422천명(52.8%), 여성 377천명(47.2%)으로 남성 인구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64천명으로 전체 지역 인구 중에서 8.0%를 점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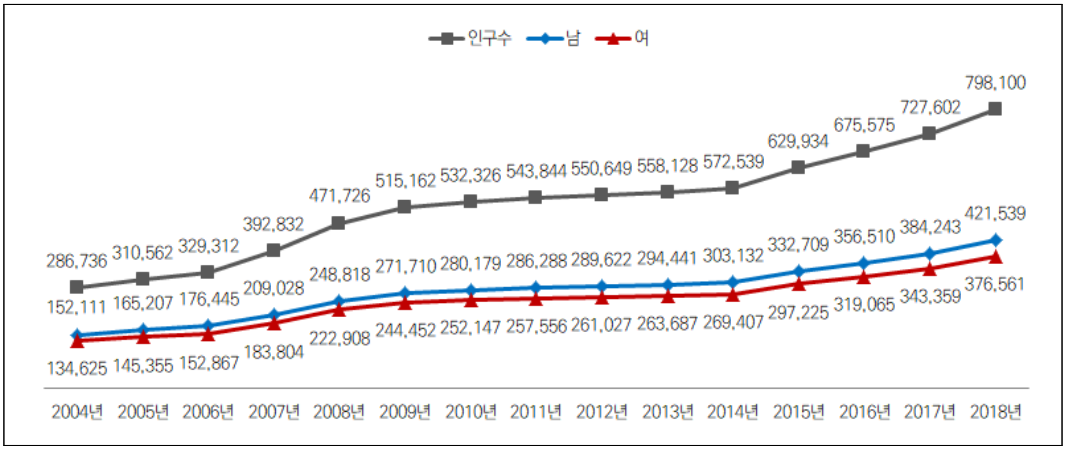
〈표 4-1〉 화성시 인구현황(2018년 기준)

세대수 (세대)	인구수 (명)			세대 당 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명)	면적(㎢)	인구밀도 (명/㎢)
		남성	여성				
301,025	798,100	421,539	376,561	2.5	63,705	694	1,150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 참조.

〈그림 4-3〉 화성시 인구추이(2004년-2018년)

단위: 명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화성시 인구를 연령별·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64세까지는 남성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나 65세 이상부터는 여성 인구가 다소 많았음. 또한 화성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5~39세(11.1%), 40~44세(9.8%) 순이었음.

〈표 4-2〉 화성시 연령대별 성별 인구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남성		여성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총계	758,722	100.0	392,871	100.0	365,851	100.0
0~4세	47,403	6.2	24,152	6.1	23,251	6.4
5~9세	53,962	7.1	27,671	7.0	26,291	7.2
10~14세	46,234	6.1	23,508	6.0	22,726	6.2
15~19세	41,149	5.4	21,251	5.4	19,898	5.4
20~24세	41,147	5.4	21,764	5.5	19,383	5.3
25~29세	47,842	6.3	25,707	6.5	22,135	6.1
30~34세	59,013	7.8	30,599	7.8	28,414	7.8
35~39세	84,119	11.1	43,572	11.1	40,547	11.1
40~44세	74,597	9.8	39,617	10.1	34,980	9.6
45~49세	68,294	9.0	37,122	9.4	31,172	8.5
50~54세	52,208	6.9	28,406	7.2	23,802	6.5
55~59세	45,838	6.0	24,509	6.2	21,329	5.8
60~64세	33,396	4.4	16,939	4.3	16,457	4.5
65~69세	21,284	2.8	10,496	2.7	10,788	2.9
70~74세	15,846	2.1	7,667	2.0	8,179	2.2
75~79세	12,366	1.6	5,248	1.3	7,118	1.9
80세 이상	14,024	1.8	4,643	1.2	9,381	2.6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 참조.

1.1.2. 농업 기반 및 생산 현황

가) 농가 인구

❍ 도농복합도시로서 2019년 기준 화성시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11,726가구, 29,567명이었음. 2019년 기준으로 전업농가 비중이 50.5%, 겸업농가가 49.5%로,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비중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농가인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편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업은 물론 겸업농가 수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화성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화성시의 농가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음.

○ 성별·연령별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남성 16,449명, 여성 16,314명,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50~59세, 70세 이상부터는 여성 농가인구가 남성 농가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화성시 농가인구(2010년-2019년)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0년	36,946	18,585	18,361
2011년	39,443	19,797	19,646
2012년	41,869	20,773	21,095
2013년	39,518	19,321	20,197
2014년	39,168	19,295	19,873
2015년	32,763	16,449	16,314
2016년	31,589	16,224	15,365
2017년	32,073	16,532	15,540
2018년	30,404	15,525	14,879
2019년	29,567	14,916	14,651
연평균 증감률	-2.4	-2.4	-2.5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4〉 화성시 전·겸업별 농가 수(2010년-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계	12,606	13,851	14,464	13,983	13,958	12,264	12,326	12,484	12,182	11,726	-0.8%
전업	6,395	6,344	6,596	6,651	6,412	5,935	6,071	6,195	6,214	5,922	-0.9%
겸업	6,211	7,507	7,868	7,332	7,547	6,329	6,255	6,289	5,968	5,804	-0.8%

주 1) 1종겸업은 연간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농가, 2종 겸업은 50% 미만인 농가.
2) 농림어업총조사 5년 마다 실시, 수치는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5〉 화성시 성별·연령별 농가인구(2015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남성	여성
계	32,763	16,449	16,314
0~14세	2,111	1,118	993
15~19세	1,290	673	617
20~29세	2,583	1,385	1,198
30~39세	2,230	1,270	960
40~49세	3,239	1,689	1,550
50~59세	6,255	3,078	3,177
60~69세	6,875	3,439	3,436
70세 이상	8,180	3,797	4,38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총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나) 경지면적

❍ 화성이 경지면적은 21,252ha이며(2018년 기준), 논 면적이 밭 면적보다 2배 정도 넓은 편임. 가구당 경지면적은 1.74ha이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지면적은 연평균 1.3%씩 감소하는 추세임.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답별 경지면적은 논, 밭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논 면적은 연평균 1.9%씩 감소하여 밭 면적 보다 많이 감소함.

〈표 4-6〉 화성시 경지면적 현황(2010년-2019년)

단위: ㏊, 가구, %

구분	경지면적(㏊)	농가 수(가구)	농가당 경지면적(㏊)
2010년	23,173	12,606	1.84
2011년	22,605	13,851	1.63
2012년	23,026	14,464	1.59
2013년	22,584	13,983	1.62
2014년	22,547	13,958	1.62
2015년	22,471	12,264	1.83
2016년	22,032	12,326	1.79
2017년	21,521	12,484	1.72
2018년	21,252	12,182	1.74
2019년	20,689	11,726	1.76
연평균 증감률	-1.3	-0.8	-0.5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농업면적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7〉 화성시 전답별 경지면적(2010년-2019년)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계	23,173	22,605	23,026	22,584	22,547	22,471	22,032	21,521	21,253	20,689	-1.3
논	15,290	14,825	14,976	15,035	14,861	14,796	14,326	13,662	13,488	12,920	-1.9
밭	7,883	7,780	8,050	7,548	7,686	7,675	7,706	7,859	7,764	7,769	-0.2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업면적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화성시의 재배작물별 농가 수 변화를 살펴보면, 채소·산나물 재배농가와 기타작물 재배농가는 각각 연평균 6.7%, 3.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축산, 식량작물, 과수, 논벼 농가는 각각 연평균 4.1%, 3.4%, 2.4%, 1.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가 수가 연평균 0.8%씩 감소하였음.

〈표 4-8〉 화성시 재배작물별 농가 수(2010년-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과수	기타작물	축산
2010년	12,606	7,344	1,027	1,361	1,548	323	1,003
2011년	13,851	8,252	758	2,094	1,579	458	711
2012년	14,464	8,094	1,109	2,408	1,669	293	891
2013년	13,983	7,950	1,193	2,080	1,696	241	823
2014년	13,958	8,037	1,335	1,875	1,665	217	830
2015년	12,264	6,910	1,324	1,503	1,410	365	752
2016년	12,326	6,464	928	2,279	1,282	802	570
2017년	12,484	6,511	1,004	2,289	1,338	647	694
2018년	12,182	6,456	712	2,933	1,120	358	602
2019년	11,726	6,182	751	2,439	1,243	425	688
연평균 증감률	-0.8	-1.9	-3.4	6.7	-2.4	3.1	-4.1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다) 생산 현황

❍ 화성시의 식량작물 생산 면적 및 생산량은 14,221ha, 72,553톤임(2018년 기준). 미곡이 생산 면적이 넓고 생산량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과실류 생산 면적 및 생산량은 과채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채소류 중에서는 과채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비교적 큰 편임.

〈표 4-9〉 화성시 식량작물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면적	생산량
미곡	12,986	68,012
맥류	74	203
잡곡	25	80
두류	948	1,294
서류	188	2,964
합계	14,221	72,553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 참조.

〈표 4-10〉 화성시 채소류·과실류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면적	생산량
채소류	과채류	192	4,168
	엽채류	54	3,755
	근채류	81	1,779
	조미채소	116	1,935
과실류		1,156	20,152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 참조.

❍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 사육농가가 826가구로 사육농가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젖소(370가구), 닭(195가구) 순임. 사육두수는 닭이 4,528천 마리, 돼지 128천 마리, 한육우 28천 마리, 젖소 25천 마리, 오리 26천 마리 등이었음(개 사육농가/사육두수 제외).

〈표 4-11〉 화성시 가축사육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가구, 마리

구분	사육농가(가구)	사육두수(마리)
한육우	826	27,571
젖소	370	25,365
돼지	73	128,035
닭	195	4,522,757
말	37	615
염소(유산양 포함)	73(산양)	3,055(산양)
면양	-	-
사슴	23	330
토끼	6	106
개	9,716	25,514
오리	6	3,123
칠면조	1	1
거위	2	11
꿀벌	169	18,956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 참조.

❍ 화성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466개 농가, 출하량은 47,396톤이었으며, 생산·출하되는 대부분의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농산물이었음(2018년 기준).

〈표 4-12〉 화성시 친환경 농산물 출하현황(2018년 기준)

단위: 건, 호, 천㎡, 톤

구분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합계			
	건수	농가수	면적	출하량	건수	농가수	면적	출하량	건수	농가수	면적	출하량
실적	196	326	309	3,394	140	140	-	44,002	336	466	-	47,396

자료: 화성시(2019), 「통계연보」 참조.

라) 농업경영체 현황

❍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을 살펴보면(2019년 기준), 전체 25,301개, 경영체 중에서 재배면적이 0.1ha~0.2ha 미만인 소규모 경영체가 6,720개(26.6%)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배면적이 0.3ha미만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45.5%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음.

〈표 4-13〉 화성시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재배면적(ha)	경영체 수(개)	경영체당 재배면적(ha)
계	15,561.7	25,301	0.62
0.1ha 미만	42.8	656	0.07
0.1ha~0.2ha 미만	975.8	6,720	0.15
0.2ha~0.3ha 미만	1,021.6	4,132	0.25
0.3ha~0.5ha 미만	1,893.5	4,869	0.39
0.5ha~1ha 미만	3,414.7	4,853	0.70
1ha~2ha 미만	3,943.8	2,856	1.38
2ha~3ha 미만	1,737.6	716	2.43
3ha~5ha 미만	1,249.3	332	3.76
5ha~10ha 미만	890.2	140	6.36
10ha 이상	392.3	27	14.53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수는 미곡류와 조미채소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019년 기준). 그러나 재배면적의 경우, 미곡류(10,075.0ha), 과실류(1,198.4ha)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경영체당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은 미곡류(0.64ha)이었음.

〈표 4-14〉 화성시 품목별 농업경영체 규모(2019년 기준)

구분	경영체 수(건)	재배면적(ha)	경영체당 재배면적(ha)
미곡류	15,657	10,075.0	0.64
맥류	122	42.6	0.35
두류	5,982	685.8	0.11
잡곡류	1,422	174.8	0.12
서류	3,848	269.5	0.07
과실류	4,470	1,198.4	0.27
수실류	541	81.9	0.15
과일과채류	527	51.8	0.10
과채류	1,384	118.2	0.09
엽경채류	2,981	230.2	0.08
근채류	617	90.1	0.15
조미채소류	10,109	1,001.2	0.10
양채류	27	5.7	0.21
산채류	405	29.8	0.07

구분	경영체 수(건)	재배면적(㏊)	경영체당 재배면적(㏊)
채소종자류	114	3.4	0.03
특용작물류	5,892	588.8	0.10
버섯류	113	32.9	0.29
인삼류	301	134.6	0.45
약용작물류	319	32.6	0.10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 품목별 0.3ha 미만 농업경영체 비율은 서류(98.2%), 채소종자류(98.2%), 엽경채류(97.0%), 산채류(96.5%), 조미채소류(96.1%)에서 높았으며, 미곡류(39.2%)는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소규모인 농업경영체 비중이 낮은 편임.

〈표 4-15〉 화성시 품목별 0.3ha 미만 농업경영체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0.1ha 미만	0.1ha~0.2ha 미만	0.2ha~0.3ha 미만	계
미곡류	3.7	18.5	16.9	**39.2**
맥류	18.9	25.4	22.1	66.4
두류	61.4	24.4	7.9	93.6
잡곡류	69.9	16.6	5.4	91.9
서류	78.4	16.7	3.0	**98.2**
과실류	33.7	25.1	13.4	72.2
수실류	55.8	24.6	8.1	88.5
과일과채류	73.6	12.7	5.3	91.7
과채류	73.8	16.0	5.3	95.2
엽경채류	83.5	11.0	2.5	**97.0**
근채류	75.5	10.2	3.6	89.3
조미채소류	63.5	25.9	6.7	**96.1**
양채류	48.1	29.6	11.1	88.9
산채류	78.3	14.1	4.2	**96.5**
채소종자류	91.2	6.1	0.9	**98.2**
특용작물류	64.5	24.9	6.5	95.9
버섯류	56.6	16.8	6.2	79.6
인삼류	14.6	18.9	20.6	54.2
약용작물류	66.1	21.0	8.5	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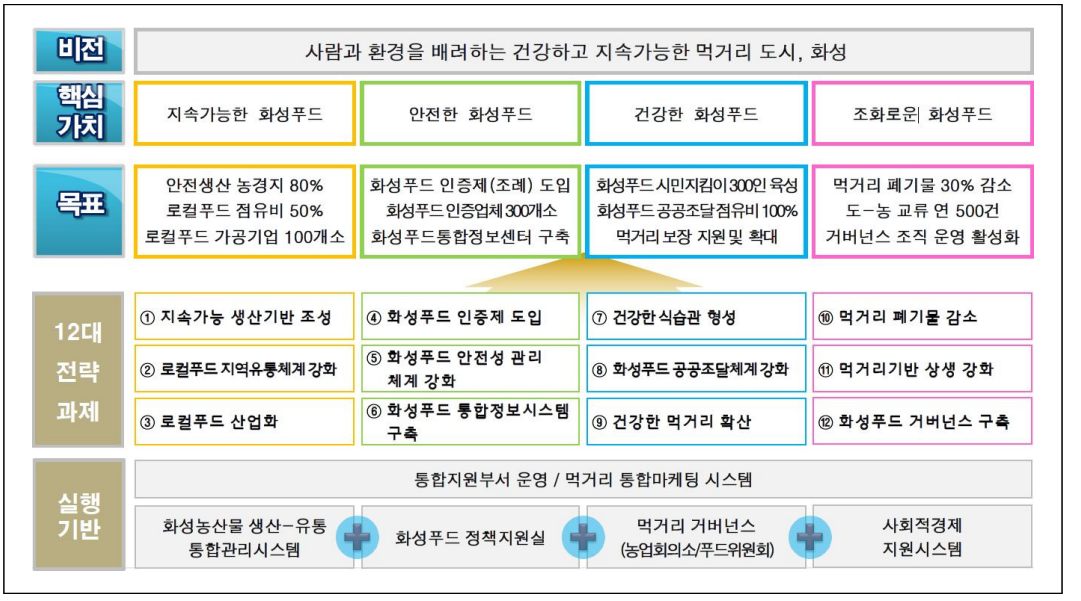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1.2. 로컬푸드 추진 현황

1.2.1. 추진 체계

❍ 화성시는 2017년 6월 「화성 푸드플랜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함. 로컬푸드에 관한 법적 근거로 2015년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7년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2018년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

〈그림 4-4〉 화성시 푸드플랜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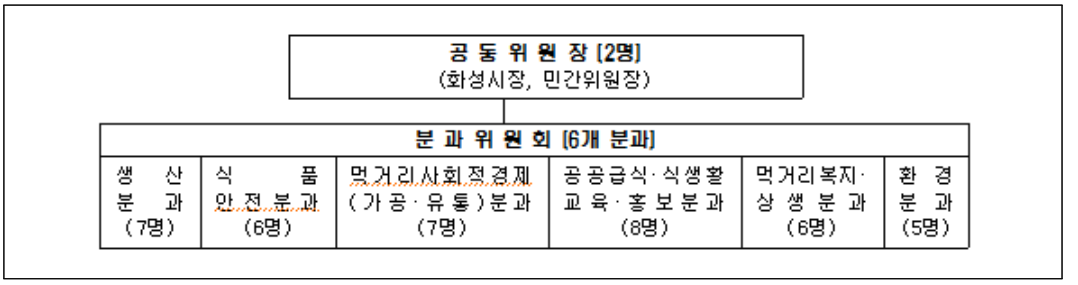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

❍ 로컬푸드 공급에 관한 주요 업무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로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를 2020년에 구성하였음.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2016년 1월에 설립되어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학교)급식사업을 축으로 하여 화성시 로컬푸드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통합지원센터는 경영기획국, 급식사업국, 유통사업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되어, 로컬푸드 직매장,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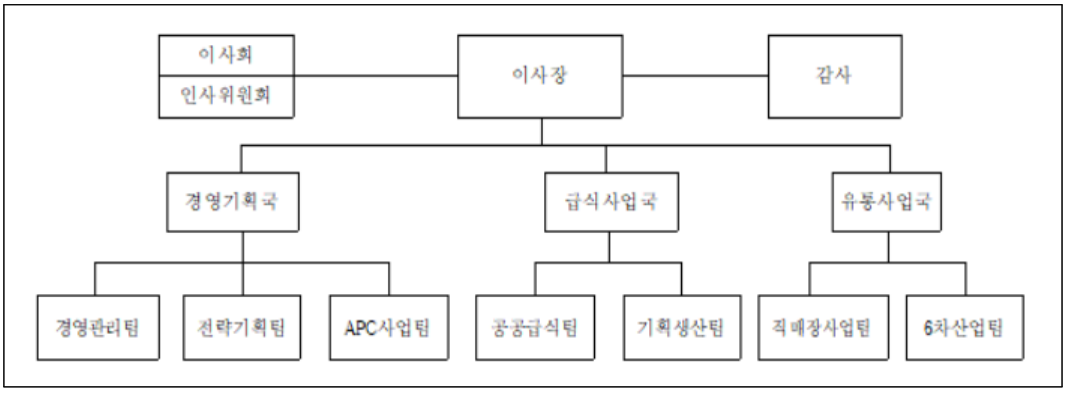
산물 생산·품질 관리, 농산물 홍보, APC사업, 공공(학교)급식사업 등을 추진함. 2020년 기준으로 정규직98명, 비정규직 2명 등 총 1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27]

〈그림 4-5〉 화성시 먹거리 위원회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

〈그림 4-6〉 화성시 (재)화성푸드지원센터 조직도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

1.2.2. 주요 사업

○ 화성시는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을 추진하며, 이밖에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임.

27)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이사장, 센터장은 인력 현황에서 제외함.

❍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는 총 9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음(2020년 기준). 이중 7개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이며, 2개는 농협에서 운영함.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2,273개 품목, 가공식품 672개 품목을 취급하며, 920농가가 참여하고 있음.

- 농협 운영 2개 매장의 운영 주체는 태안농협과 발안농협임.

〈표 4-16〉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구분	점포명	개점일	운영실적		
			영업일수(일)	매출액(천 원)	방문객 수(명)
직영	봉담점(1호점)	2014.05.	359	5,950,370	205,765
직영	능동점(2호점)	2015.06.	359	5,198,987	226,113
직영	행복장터(3호점)	2016.09.	359	997,503	50,363
직영	금곡점(4호점)	2017.07.	359	3,481,886	114,375
직영	동화점(5호점)	2017.12.	359	1,969,491	94,221
직영	어울림(6호점)	2018.04.	359	7,604,300	418,352
직영	동탄호수공원(7호점)	2019.08.	359	2,840,047	137,499
농협	태안농협	2017.05.	360	6,178,000	323,568
농협	발안농협	2018.01.	363	4,659,642	760,000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7〉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및 직매장 취급품목 수(2020년 기준)

총 참여농가 (호)	취급품목 수(개)	
	농산물	가공식품
920	2,273	672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8〉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현황(2020년 기준)

구분	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류	특용작물	화훼류	가공식품
매출량	312,738	2,942,973	203,344	698,388	305,772	75,586	1,423,708
매출액	3,053,517	7,745,532	2,136,305	6,753,489	1,332,156	341,463	6,045,421
참여농가 수	480	640	320	9	320	24	120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화성시는 2020년 9월 현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약 183개교를 대상으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48개소에 대해 공공급식시범사업을 실시함.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총 135농가가 참여하였으며, 공급품목은 농산물 65품목, 가공식품 18품목이고, 매출액은 농산물 1,278백만 원, 가공식품은 136백만 원이었음.

〈표 4-19〉 화성시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2020년 기준)

급식 식재료 공급 시설 현황						급식 식재료 공급 현황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포함)		합계		참여 농가 수	공급품목(개)		매출액(천 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농산물	가공식품	농산물	가공식품
48	-	185	-	233	-	135	65	18	1,278,339	135,735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화성시 패키지지원사업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식품소재반가공육성, 안전성분석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4-20〉 화성시 패키지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선정	사업자	사업기간 (년)	사업비(백만 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계	-	-	-	13,040	7,712	780.6	4,131.4	416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9.04.	화성시	2019~2021	4,000	2,000	600	1,400	
저온유통체계구축	'19.04.	수원원예농협	2019(완료)	340	102	30.6	71.4	136
농촌신활력플러스	'19.12.	화성시	2020~2023	7,000	4,900	-	2,100	-
식품소재반가공육성	'19.10.	화성한과	2020	700	210	-	210	280
안전성분석실	'19.09.	화성시	2020~2021	1,000	500	150	350	-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도농복합형(혁신도시 입지) 사례: 전남 나주시

2.1. 지역 먹거리 여건과 환경

2.1.1. 일반 현황

❍ 나주시는 전라남도 중서부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603.9㎢이며, 1읍 12면 4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임. 정부기관 지방분산정책에 따라 혁신도시가 입지하여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정부·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이전하였으며, 2014년부터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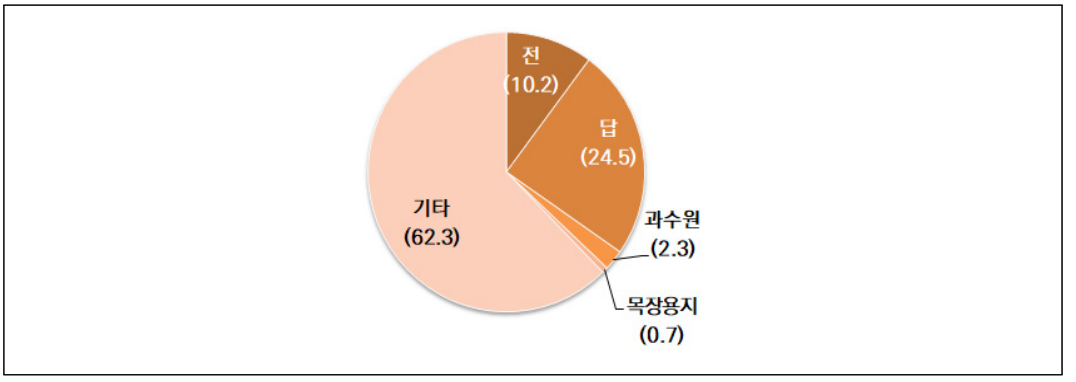
- 2018년 면적 기준으로 나주시는 전과 목장용지의 비중은 각각 10.2%, 0.7%이며, 답의 비중은 24.5%, 과수원은 2.3%로 비교적 큰 편임.
- 에너지, 방송통신, 농업지원, 문화예술,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함.

〈그림 4-7〉 나주시 행정구역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2021. 3. 6.).

〈그림 4-8〉 나주시 토지 지목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https://www.naju.go.kr: 2021. 3. 23.).

❍ 2018년 기준으로 총 54,87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총 인구는 116,640명, 세대 당 인구는 2.1명에 불과함. 나주시는 2014년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음.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00,054명에서 2018년 116,640명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하였음.

- 나주시 인구는 2000년대 이후 2013년에 최저점으로 감소하여 10만 명 미만이었으나, 2014년 혁신도시로 공기업·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4월 이후 10만 명선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함.[28)]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 정도임.

〈표 4-21〉 나주시 인구현황(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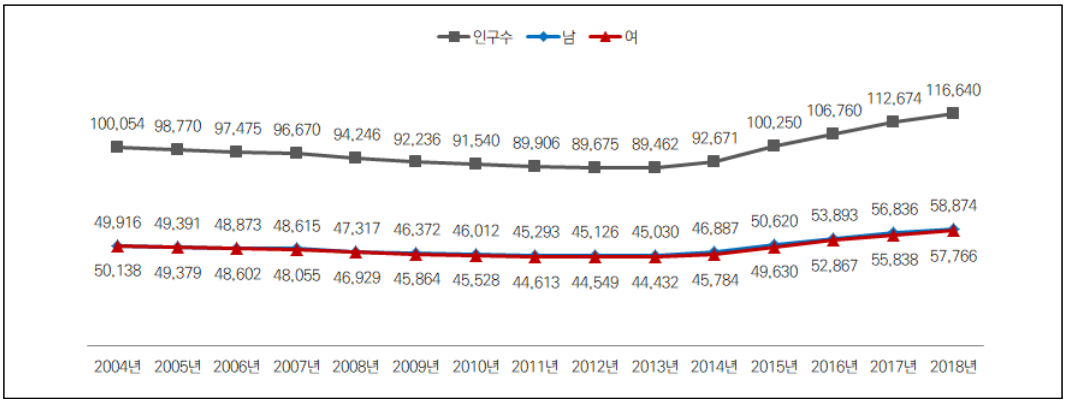
세대수 (세대)	인구수 (명)			세대 당 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명)	면적(㎢)	인구밀도 (명/㎢)
		남성	여성				
54,872	116,640	58,874	57,766	2.1	24,658	608	191.7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s://www.naju.go.kr: 2021. 3. 23.).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13).

〈그림 4-9〉 나주시 인구추이(2004년-2018년)

단위: 명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하여 저자 작성(https://www.naju.go.kr: 2021. 3. 23.).

❍ 나주시의 연령별·성별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남성 57,274명, 여성 56,565명으로 남성과 여성 인구가 유사한 수준임. 70세 이상부터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확연히 많은 편임. 연령대별로 55~59세(8.2%)와 35~39세(7.7%)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음.

〈표 4-22〉 나주시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남성		여성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총계	113,839	100.0	57,274	100.0	56,565	100.0
0~4세	5,245	4.6	2,711	4.7	2,534	4.5
5~9세	5,285	4.6	2,684	4.7	2,601	4.6
10~14세	4,391	3.9	2,314	4.0	2,077	3.7
15~19세	4,784	4.2	2,447	4.3	2,337	4.1
20~24세	6,082	5.3	3,165	5.5	2,917	5.2
25~29세	6,347	5.6	3,270	5.7	3,077	5.4
30~34세	6,646	5.8	3,406	5.9	3,240	5.7
35~39세	8,750	7.7	4,639	8.1	4,111	7.3
40~44세	7,742	6.8	4,363	7.6	3,379	6.0
45~49세	8,086	7.1	4,676	8.2	3,410	6.0
50~54세	8,315	7.3	4,586	8.0	3,729	6.6
55~59세	9,298	8.2	4,987	8.7	4,311	7.6
60~64세	8,210	7.2	4,208	7.3	4,002	7.1
65~69세	6,243	5.5	3,089	5.4	3,154	5.6
70~74세	5,657	5.0	2,547	4.4	3,110	5.5
75~79세	5,794	5.1	2,206	3.9	3,588	6.3
80세 이상	6,964	6.1	1,976	3.5	4,988	8.8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s://www.naju.go.kr: 2021. 3. 23.).

2.1.2. 농업 기반 및 생산 현황

가) 농가 인구

❍ 2019년 기준 나주시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9,496가구, 21,200명임. 전업농가가 겸업농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의 경우 여성이 10,981명이며, 남성이 10,219명으로 유사한 수준임.

- 나주시는 2019년 기준으로 전업농가가 51.7%, 겸업농가가 48.3%로 전업농가 비중이 경업농가에 비해 다소 큰 편임. 농가인구가 감소하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업 및 겸업농가 수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겸업농가가 연평균 3.2%씩 감소하여 비교적 감소세가 큰 편임.

❍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나주시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연평균 감소율이 3.1%임.

〈표 4-23〉 나주시 농가인구(2010년-2019년)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0년	28,117	13,527	14,590
2011년	27,985	13,569	14,415
2012년	27,732	13,646	14,086
2013년	28,615	13,816	14,799
2014년	28,608	13,764	14,843
2015년	21,663	10,513	11,150
2016년	22,772	11,019	11,753
2017년	20,984	9,849	11,135
2018년	21,132	10,062	11,070
2019년	21,200	10,219	10,981
연평균 증감률	-3.1	-3.1	-3.1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24〉 나주시 전·겸업별 농가 수(2010년-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계	11,790	12,260	11,985	12,311	12,360	10,124	10,327	9,329	9,579	9,496	-2.4
전업	7,227	6,962	7,275	7,044	6,784	6,705	7,448	6,928	6,216	6,076	-1.9
겸업	4,563	5,298	4,710	5,267	5,577	3,419	2,879	2,401	3,362	3,420	-3.2

주 1) 1종겸업은 연간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농가, 2종겸업은 50% 미만인 농가
2) 농림어업총조사 5년 마다 실시, 수치는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25〉 나주시 성별·연령별 농가인구(2015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남성	여성
계	21,663	10,513	11,150
0~14세	1,252	666	586
15~19세	624	314	310
20~29세	977	515	462
30~39세	1,053	588	465
40~49세	1,734	921	813
50~59세	4,140	1,962	2,178
60~69세	5,219	2,449	2,770
70세 이상	6,664	3,098	3,566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총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나) 경지 면적

❍ 나주시의 총 경지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21,449ha이며, 논 면적이 밭 면적보다 넓음. 전체 경지면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지면적이 연평균 0.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나주시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2010~2019년 연평균 0.7%), 농가 수의 감소에 따라 가구당 경지면적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2018년 가구당 경지면적은 2.24ha임.

- 경지면적은 연평균 0.7% 씩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 수 감소세가 경지면적보다 더 큰 편이어서, 농가당 경지면적은 오히려 연평균 1.7%씩 증가하였음.

❍ 가구당 경지면적 중에서 논은 1,46ha, 밭은 0.78ha이며, 전답별 경지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밭 면적은 연평균 0.8%씩 증가한 반면, 논 면적은 오히려 1.4%씩 감소함.

〈표 4-26〉 나주시 경지면적 현황(2010년-2019년)

단위: ha, 가구, %

구분	경지면적(ha)	농가 수(가구)	농가당 경지면적(ha)
2010년	22,626	11,790	1.92
2011년	22,129	12,260	1.80
2012년	22,410	11,985	1.87
2013년	22,394	12,311	1.82
2014년	22,379	12,360	1.81
2015년	22,226	10,124	2.20
2016년	21,959	10,327	2.13
2017년	21,663	9,329	2.32
2018년	21,449	9,579	2.24
2019년	21,286	9,496	2.24
연평균 증감률	-0.7	-2.4	1.7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농업면적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27〉 나주시 전답별 경지면적(2010년-2019년)

단위: ha,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합계	22,626	22,129	22,410	22,394	22,379	22,226	21,959	21,663	21,449	21,286	-0.7
논	15,471	15,010	14,819	14,838	14,822	14,606	14,471	14,192	13,997	13,629	-1.4
밭	7,155	7,119	7,591	7,556	7,558	7,620	7,488	7,471	7,452	7,658	0.8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업면적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나주시의 재배작물별 농가 수 변화를 살펴보면,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기타작물 재배농가는 각각 연평균 3.0%, 2.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축산, 논벼, 과수, 채소·산나물 농가는 각각 연평균 6.5%, 2.7%, 2.5%, 1.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 수는 연평균 2.4%씩 감소하였음.

〈표 4-28〉 나주시 재배작물별 농가 수(2010년-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과수	기타작물	축산
2010년	11,790	6,393	337	1,629	2,172	211	1,048
2011년	12,260	5,782	744	2,265	2,518	411	539
2012년	11,985	5,959	693	1,856	2,150	534	793
2013년	12,311	6,273	729	1,920	2,061	419	910
2014년	12,360	6,062	706	2,113	1,963	562	955
2015년	10,124	5,509	467	1,377	1,890	213	668
2016년	10,327	4,729	612	2,148	2,118	237	483
2017년	9,329	4,554	687	1,406	1,822	209	651
2018년	9,579	4,552	911	1,508	1,785	354	469
2019년	9,496	5,013	439	1,466	1,737	268	573
연평균 증감률	-2.4	-2.7	3.0	-1.2	-2.5	2.7	-6.5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다) 생산 현황

❍ 나주시의 작물별 생산 규모를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13,488ha, 63,486톤임(2018년 기준). 식량작물 중에서 미곡의 생산 규모가 가장 크고, 맥류, 잡곡류, 서류도 생산 규모가 큰 편임. 또한 채소류에 비해 과실류의 생산 규모가 큰 편임.

〈표 4-29〉 나주시 식량작물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면적	생산량
미곡	12,199	59,627
맥류	1,289	3,859
잡곡	110	194
두류	490	680
서류	275	4,578
합계	13,488	63,486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s://www.naju.go.kr: 2021. 3. 23.).

〈표 4-30〉 나주시 채소류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면적	생산량
채소류	과채류	389	19,407
	엽채류	706	23,500
	근채류	93	4,189
	조미채소	318	7,255
과실류		2,437	54,843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s://www.naju.go.kr: 2021. 3. 23.).

❍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 사육농가가 1,552가구로 가장 많고, 이밖에 닭이 218가구, 꿀벌이 202농가 정도임.

〈표 4-31〉 나주시 가축사육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가구, 마리

구분	사육농가(가구)	사육두수(마리)
한육우	1,552	50,183
젖소	87	6,666
돼지	88	170,314
닭	218	8,090,165
말	6	54
염소(유산양 포함)	77	9,685
면양	-	-
사슴	19	560
토끼	4	42
개	549	4,654
오리	110	1,891,355
칠면조	1	10
거위	3	9
꿀벌	202	26,649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s://www.naju.go.kr: 2021. 3. 23.).

❍ 나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출하농가가 농산물은 826농가, 면적은 891천㎡, 출하량은 10,351톤이며, 유기인증 보다 무농약 인증 농산물 출하비중이 높은 편임. 친환경축산물 농가는 154농가이며, 출하량은 36천 톤 정도임(2018년 기준).

〈표 4-32〉 나주시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건, 호, 천㎡, 톤

구분		건수	농가 수	면적	출하량
농산물	합계	259	826	891	10,351
	유기	21	171	257	1,010
	무농약	238	655	634	9,341
축산물	합계	154	154		35,955
	무항생제	154	154		35,955

자료: 나주시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s://www.naju.go.kr: 2021. 3. 23.).

라) 농업경영체 현황

❍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을 살펴보면(2019년 기준), 전체 19,432개 경영체 중 재배면적이 0.5ha~1ha 미만인 경영체가 4,005개 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0.1ha~0.2ha 미만인 경영체가 3,583개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33〉 나주시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재배면적(㏊)	경영체 수(개)	경영체당 재배면적(㏊)
계	21,943.3	19,432	1.13
0.1ha 미만	24.6	397	0.06
0.1ha~0.2ha 미만	521.6	3,583	0.15
0.2ha~0.3ha 미만	612.7	2,475	0.25
0.3ha~0.5ha 미만	1,282.3	3,316	0.39
0.5ha~1ha 미만	2,859.9	4,005	0.71
1ha~2ha 미만	4,276.5	3,042	1.41
2ha~3ha 미만	2,636.3	1,088	2.42
3ha~5ha 미만	2,954.5	767	3.85
5ha~10ha 미만	3,791.6	551	6.88
10ha 이상	2,983.4	208	14.34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규모는 미곡류와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는 경영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019년 기준). 그러나 재배면적의 경우, 미곡류(10,850.6ha), 과실류(2,680.2ha)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영체당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은 인삼류(1,31ha)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4〉 나주시 품목별 농업경영체 규모(2019년)

구분	경영체 수(건)	재배면적(ha)	경영체당 재배면적(ha)
미곡류	11,704	10,850.6	0.93
맥류	1,004	1,192.3	1.19
두류	5,464	837.4	0.15
잡곡류	593	100.9	0.17
서류	1,744	425.8	0.24
과실류	6,238	2,680.2	0.43
수실류	241	49.5	0.21
과일과채류	671	282.7	0.42
과채류	483	103.5	0.21
엽경채류	2,147	533.2	0.25
근채류	500	107.4	0.21
조미채소류	6,261	969.3	0.15
양채류	182	53.6	0.29
산채류	559	106.8	0.19
채소종자류	48	3.0	0.06
특용작물류	4,675	432.6	0.09
버섯류	49	43.7	0.89
인삼류	42	55.1	1.31
약용작물류	425	66.7	0.16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 품목별 재배면적이 0.3ha 미만인 농업경영체 수를 살펴보면(2019년 기준), 특용작물류(96.4%)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 비중이 높고, 인삼류(16.7%), 맥류(22.8%), 미곡류(32.5%)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 비중은 낮게 나타남.

〈표 4-35〉 나주시 품목별 0.3ha 미만 농업경영체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0.1ha 미만	0.1ha~0.2ha 미만	0.2ha~0.3ha 미만	계
미곡류	3.1	14.6	14.8	32.5
맥류	3.2	8.2	11.5	22.8
두류	55.6	24.9	8.3	88.7
잡곡류	61.7	16.4	7.1	85.2
서류	70.8	11.1	4.0	85.9
과실류	26.0	21.3	11.5	58.8

구분	0.1ha 미만	0.1ha~0.2ha 미만	0.2ha~0.3ha 미만	계
수실류	63.9	16.6	5.8	86.3
과일과채류	11.8	15.4	19.2	46.3
과채류	39.5	21.1	15.1	75.8
엽경채류	49.1	14.7	11.3	75.1
근채류	64.2	11.6	7.0	82.8
조미채소류	56.9	21.2	8.6	86.7
양채류	13.7	26.9	20.3	61.0
산채류	53.0	24.0	9.7	86.6
채소종자류	83.3	8.3	2.1	93.8
특용작물류	68.1	22.9	5.4	96.4
버섯류	30.6	26.5	6.1	63.3
인삼류	4.8	2.4	9.5	16.7
약용작물류	55.5	22.8	10.1	88.5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2.2. 로컬푸드 추진 현황

2.2.1. 추진 체계

❍ 나주시는 2019년 9월 나주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로컬푸드에 관한 법적 근거로 2018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4월에는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

- 나주시 푸드플랜은 “건강한 밥상,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나주시 푸드플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로 지속가능한 작부체계 확립, 관계시장 및 공공급식 확대, 먹거리 복지, 교육 및 공동체 강화 등을 포함함.

❍ 로컬푸드 공급에 관한 주요 업무는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인 ‘나주시 먹거리위원회’를 2020년에 마련하였음.

-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진흥재단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나주시는 행정조직과는 별개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 총 32명의 직원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사업을 축으로 하여 나주시 로컬푸드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행정 전담조직으로는 2018년에 먹거리계획과(인원 13명)를 마련함.

1.2.2. 주요 사업

❍ 나주시의 로컬푸드 관련한 주요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이며, 이밖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직매장 사업과 관련하여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총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음(2020년 기준). 1호점은(빛가람점)은 2015년, 2호점(금남점)은 2019년에 개장됨.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0년에 총 588농가가 참여하였으며, 농산물 765품목, 가공식품 491품목을 취급하고 있음.

- 품목별로 채소류 매출량이 312톤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가공식품(285톤), 과일류(85톤) 순임. 매출액도 채소류가 1,264백만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축산물(889백만 원), 가공식품(564백만 원), 과일류(476백만 원) 순임.

〈표 4-36〉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구분	점포명	개점일	운영실적		
			영업일수(일)	매출액(천 원)	방문객 수(명)
직영	빛가람점(1호점)	2015.11.	357	3,983,104	212,551
직영	금남점(2호점)	2019.10.	308	200,092	11,689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37〉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및 직매장 취급품목 수(2020년 기준)

총 참여농가 (호)	취급품목 수(개)	
	농산물	가공식품
588	765	491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38〉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2020년 기준)

구분	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류	특용작물	화훼류	가공식품
매출량(kg)	64,526	311,734	84,911	49,856	16,262	4,532	285,594
매출액(천 원)	252,144	1,263,834	475,748	888,881	136,838	37,379	564,035
참여농가수(명)	141	248	118	8	83	10	58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나주시는 2020년 현재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기타 관내 기관 219개소(식수인원 13,924명)를 대상으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29] 급식 식재료 공급에 총 156농가가 참여하였으며, 공급품목은 농산물 150품목, 가공식품 2,254품목이고, 매출액은 농산물 1,142백만 원, 가공식품은 344백만 원이었음.

〈표 4-39〉 나주시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시설 현황(2020년 기준)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관내 기관		합계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197	8,415	15	5,024	5	285	2	200	219	13,924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40〉 나주시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2020년 기준)

참여 농가	공급품목(개)		매출액(천 원)	
	농산물	가공식품	농산물	가공식품
156	150	2,254	1,142,363	344,485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나주시는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 패키지지원사업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 나주시 패키지지원사업은 2019~ 2023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직매장 설치 및 교육·홍보, 저온유통체계구축,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직매장 설치, 농산물종합가공기술, 기초지자체식생활교육,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등을 추진함.

29) 나주시의 경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가 분리되어 있음. 공공급식은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반면,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하여 호남권 친환경종합물류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함. 이 연구에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을 주요 연구범위로 하고 있음.

3. 농촌형 사례: 충남 청양군

3.1. 지역 먹거리 여건과 환경

3.1.1. 일반 현황

❍ 청양군은 충청남도 중부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479.1 ㎢으로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촌지역임. 충청남도 중앙에 위치하며, 대전광역시와 인접하고, 수도권과도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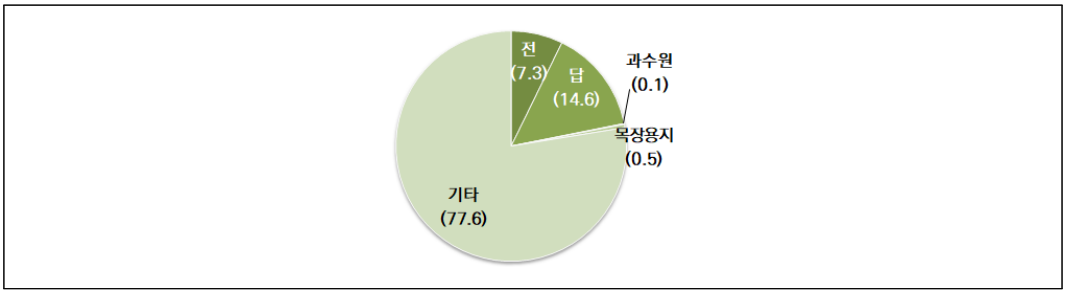
- 청양군은 2018년 면적 기준으로 전체 토지 중에서 전, 답의 비중이 각각 7.3%, 14.6%이며, 과수원 0.1%, 목장용지 0.5%으로 나타남.

〈그림 4-10〉 청양군 행정구역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2021. 3. 6.).

〈그림 4-11〉 청양군 토지 지목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 2018년 기준으로 청양군에는 16,27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총 인구는 32,910명으로 세대 당 인구가 2.0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임.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청양군은 2004년 35,828명에서 2018년 32,910명으로 인구가 연평균 0.6%씩 감소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0,499명으로 전체 인구의 31.9%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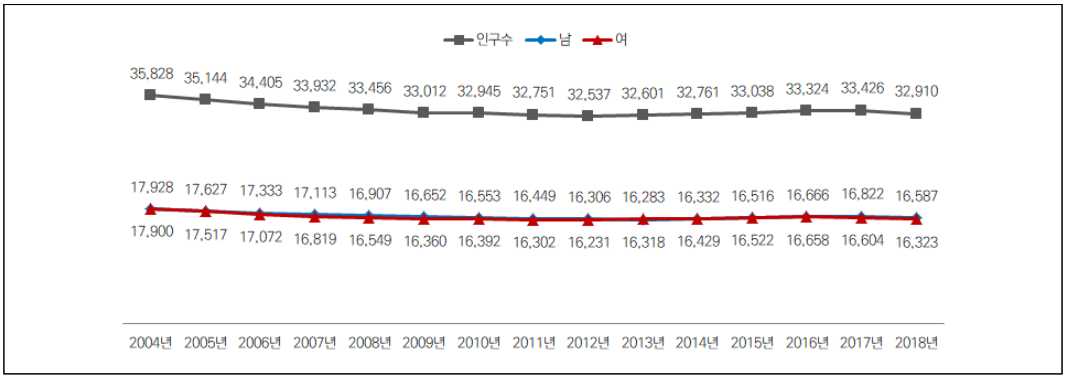
〈표 4-41〉 청양군 인구현황(2018년 기준)

세대수 (세대)	인구수 (명)			세대 당 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명)	면적(㎢)	인구밀도 (명/㎢)
		남성	여성				
16,274	32,910	16,587	16,323	2.0	10,499	479	68.7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그림 4-12〉 청양군 인구추이(2004년-2018년)

단위: 명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 청양군의 연령별·성별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남성 16,527명, 여성 16,310명으로 남성과 여성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수준임. 그러나 20~24세와 30대~60대까지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편이나, 70대 이상에서는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청양군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80세 이상(10.8%), 55~59세(10.0%) 순임.

〈표 4-42〉 청양군 연령별·성별 인구 규모(2018년)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남성		여성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총계	32,296	100.0	16,527	100.0	16,310	100.0
0~4세	626	1.9	351	2.1	349	2.1
5~9세	850	2.6	461	2.8	433	2.7
10~14세	887	2.7	465	2.8	450	2.8
15~19세	1,532	4.7	850	5.1	849	5.2
20~24세	1,864	5.8	1,055	6.4	773	4.7
25~29세	1,236	3.8	469	2.8	536	3.3
30~34세	1,114	3.4	672	4.1	498	3.1
35~39세	1,285	4.0	768	4.6	587	3.6
40~44세	1,466	4.5	944	5.7	674	4.1
45~49세	2,078	6.4	1,227	7.4	929	5.7
50~54세	2,452	7.6	1,299	7.9	1,077	6.6
55~59세	3,226	10.0	1,736	10.5	1,619	9.9
60~64세	3,164	9.8	1,524	9.2	1,484	9.1
65~69세	2,525	7.8	1,302	7.9	1,265	7.8
70~74세	2,127	6.6	939	5.7	1,112	6.8
75~79세	2,365	7.3	998	6.0	1,507	9.2
80세 이상	3,499	10.8	1,082	6.5	2,168	13.3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3.1.2. 농업 기반 및 생산 현황

가) 농가 인구

❍ 2019년 기준 청양군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5,612가구, 12,014명임. 전업농가가 2,901가구로 겸업농가(2,711가구)보다 190농가가 많은 편임. 농가인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012명과 6,003명으로 비슷한 수준임.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겸업농가 수 변화를 살펴보면, 청양군의 겸업농가는 연평균 0.4%씩 증가하였으나, 전업농가가 3.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농가 수는 1.5%씩 감소하였음.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가인구 수는 감소 추세로, 연평균 2.9%씩 감소였음. 특히 여성 농가인구가 연평균 3.2%씩 감소하여 남성 농가인구 감소 폭보다 다소 큰 편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농가인구 14,960명 중에서 60대 이상 농가인구가 55.9%로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음.

〈표 4-43〉 청양군 농가인구(2010-2019년)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0년	15,694	7,628	8,066
2011년	13,839	6,893	6,945
2012년	13,698	6,802	6,896
2013년	13,257	6,614	6,643
2014년	13,026	6,378	6,648
2015년	14,960	7,253	7,707
2016년	13,354	6,538	6,816
2017년	12,796	6,226	6,570
2018년	12,264	5,878	6,386
2019년	12,014	6,012	6,003
연평균 증감률	-2.9	-2.6	-3.2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44〉 청양군 전·겸업별 농가 수(2010년-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계	6,427	6,062	5,939	5,805	5,761	6,837	6,150	5,899	5,761	5,612	-1.5%
전업	3,821	3,622	3,484	3,478	3,274	4,261	3,503	3,271	3,230	2,901	-3.0%
겸업	2,606	2,441	2,455	2,326	2,487	2,576	2,647	2,629	2,530	2,711	0.4%

주 1) 1종겸업은 연간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농가, 2종겸업은 50% 미만인 농가
2) 농림어업총조사 5년 마다 실시, 수치는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45〉 청양군 성별·연령별 농가인구(2015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계	14,960	7,253	7,707
0~14세	969	508	461
15~19세	476	225	251
20~29세	483	251	232
30~39세	613	338	275
40~49세	1,267	679	588
50~59세	2,794	1,349	1,445
60~69세	3,383	1,671	1,712
70세 이상	4,975	2,232	2,74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총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나) 경지 면적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임. 청양군 경지면적은 연평균 1.0%씩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 수가 경지면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농가당 경지면적은 오히려 연평균 0.5%씩 증가하였음. 청양군의 경지면적은 2018년 기준, 8,257ha이며, 논 면적이 6,346ha로 밭 면적(1,911ha)보다 3배 이상 큰 편임. 가구당 경지면적은 1.43ha임.

❍ 청양군은 전답별 경지면적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밭 면적이 연평균 1.8%씩 감소하여 논 면적(-0.7%)보다 평균적인 감소율이 큰 편임.

〈표 4-46〉 청양군 경지면적 현황(2010년-2019년)

단위: ha, 가구, %

구분	경지면적(ha)	농가 수(가구)	농가당 경지면적(ha)
2010년	8,950	6,427	1.39
2011년	8,895	6,062	1.47
2012년	9,069	5,939	1.53
2013년	8,846	5,805	1.52
2014년	8,630	5,761	1.50
2015년	8,571	6,837	1.25
2016년	8,433	6,150	1.37
2017년	8,350	5,899	1.42
2018년	8,257	5,761	1.43
2019년	8,190	5,612	1.46
연평균 증감률	-1.0	-1.5	0.5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농업면적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표 4-47〉 청양군 전답별 경지면적(2010년-2019년)

단위: ha,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청양	계	8,950	8,895	9,069	8,846	8,630	8,571	8,433	8,350	8,257	8,190	-1.0
	논	6,720	6,607	6,703	6,613	6,542	6,367	6,364	6,386	6,346	6,288	-0.7
	밭	2,230	2,288	2,365	2,232	2,087	2,203	2,069	1,964	1,911	1,902	-1.8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업면적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청양군의 재배작물별 농가 수 변화를 살펴보면,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채소·산나물 재배농가는 각각 연평균 6.8%,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과수, 축산, 기타작물, 논벼 농가는 각각 연평균 31.3%, 9.4%, 9.2%, 1.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 수는 연평균 1.5%씩 감소하였음.

〈표 4-48〉 청양군 재배작물별 농가 수(2010년-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과수	기타작물	축산
2010년	6,427	3,477	322	1,219	411	323	675
2011년	6,062	3,886	73	908	435	340	421
2012년	5,939	3,704	249	1,288	117	247	333
2013년	5,805	3,392	339	1,401	73	182	418
2014년	5,761	3,244	330	1,575	45	243	324
2015년	6,837	3,172	453	1,749	512	484	467
2016년	6,150	2,875	194	2,500	69	150	363
2017년	5,899	3,091	450	1,610	83	360	305
2018년	5,761	3,022	449	1,559	83	312	337
2019년	5,612	3,020	584	1,582	14	135	277
연평균 증감률	-1.5%	-1.6%	6.8%	2.9%	-31.3%	-9.2%	-9.4%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 2021. 3. 16.) 참조.

다) 생산 현황

❍ 청양군의 식량작물 생산 면적 및 생산량은 6,057ha, 29,700톤임(2018년 기준). 미곡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두류의 생산 면적과 생산량도 비교적 많은 편임.

❍ 청양군은 과실류에 비해 채소류 생산 규모가 크며, 채소류 중에서 조미채소 생산 비중이 가장 큼. 조미채소는 재배면적이 835ha, 생산량은 34,423M/T이며, 다음으로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순으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49〉 청양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면적	생산량
미곡	5,335.6	27,478.2
맥류	18.4	65.1
잡곡	50.5	58.0
두류	592.2	1,723.2
서류	60.5	375.4
합계	6,057.2	29,699.8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표 4-50〉 청양군 채소류 생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면적	생산량
채소류	과채류	170.3	8,496.2
	엽채류	34.0	1,642.8
	근채류	1.8	110.0
	조미채소	835.3	34,422.7
과실류		197.6	2,481.8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 사육농가가 1,054가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닭 사육농가가 398농가로 많은 편임(개 사육농가 제외). 사육두수는 닭이 2,178천 마리, 오리 46천 마리, 돼지 53천 마리, 한육우는 23천 마리 정도임.

〈표 4-51〉 청양군 가축사육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가구, 마리

구분	사육농가(가구)	사육두수(마리)
한육우	1,054	23,019
젖소	18	558
돼지	35	52,523
닭	398	2,157,859
말	9	15
염소(유산양 포함)	104(산양)	3,941(산양)
면양	-	-
사슴	29	215
토끼	23	592
개	1,225	3,733
오리	20	45,573
칠면조	3	8
거위	11	41
꿀벌	227	23,686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 청양군은 친환경농산물 출하농가가 농산물은 368농가, 면적은 638천㎡, 출하량은 1,877톤이며, 유기인증 보다 무농약 인증 농산물 출하비중이 높은 편임. 친환경축산물 농가는 19농가에 불과하며, 출하량은 4,499톤임(2018년 기준).

〈표 4-52〉 청양군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현황(2018년 기준)

단위: 건, 천㎡, 톤

구분		청양군			
		건수	농가수	면적	출하량
농산물	합계	113	368	638	1,877
	유기	28	187	488	657
	무농약	85	181	150	1,220
축산물	합계	19	19		4,499
	무항생제	19	19		4,499

자료: 청양군청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cheongyang.go.kr: 2021. 3. 23.).

라) 농업경영체 현황

❍ 청양군은 전체 9,380개 경영체 중 재배면적이 0.1ha~0.2ha 미만인 경영체가 1,894개로 전체의 20.2%를 점하고 있음(2019년 기준). 또한 0.5ha미만의 농업경영체가 47,2%로 전체 농업경영체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하고 있음.

〈표 4-53〉 청양군 재배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재배면적(㏊)	경영체 수(개)	경영체당 재배면적(㏊)
계	11,739.2	9,380	1.25
0.1ha 미만	7.5	112	0.07
0.1ha~0.2ha 미만	272.6	1,894	0.14
0.2ha~0.3ha 미만	283.6	1,148	0.25
0.3ha~0.5ha 미만	498.2	1,270	0.39
0.5ha~1ha 미만	1,283.8	1,773	0.72
1ha~2ha 미만	2,234.1	1,587	1.41
2ha~3ha 미만	1,522.3	619	2.46
3ha~5ha 미만	2,094.8	543	3.86
5ha~10ha 미만	2,417.9	357	6.77
10ha 이상	1,124.3	77	14.60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 품목별로는 미곡류와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수가 가장 많은 편임(2019년 기준). 그러나 재배면적의 경우, 미곡류(5,221.9ha), 수실류(3,192.5ha)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경영체당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은 수실류임(1.54ha).

〈표 4-54〉 청양군 품목별 농업경영체 규모(2019년 기준)

구분	경영체 수(건)	재배면적(ha)	경영체당 재배면적(ha)
미곡류	5,543	5,221.9	0.94
맥류	48	41.4	0.86
두류	3,706	593.7	0.16
잡곡류	191	24.8	0.13
서류	862	65.0	0.08
과실류	1,044	242.9	0.23
수실류	2,072	3,192.5	1.54
과일과채류	421	322.8	0.77
과채류	76	14.8	0.19
엽경채류	316	50.4	0.16
근채류	47	4.8	0.10
조미채소류	5,198	923.8	0.18
양채류	11	4.0	0.36
산채류	378	67.5	0.18
채소종자류	415	16.3	0.04
특용작물류	2,965	329.6	0.11
버섯류	275	55.5	0.20
인삼류	86	72.7	0.85
약용작물류	1,076	146.5	0.14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 품목별 재배면적이 0.3ha 미만인 농업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2019년 기준), 청양군은 서류(98.3%), 채소종자류(97.3%)의 경우 소규모 재배 농가 비중이 높고, 과일과채류(24.5%), 미곡류(27.1%), 맥류(39.6%)는 소규모 재배 농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5〉 청양군 품목별 0.3ha 미만 농업경영체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0.1ha 미만	0.1ha~0.2ha 미만	0.2ha~0.3ha 미만	계
미곡류	2.7	11.2	13.2	**27.1**
맥류	10.4	12.5	16.7	**39.6**
두류	45.8	29.7	11.6	87.1
잡곡류	56.0	27.2	6.8	90.1
서류	78.0	16.8	3.5	**98.3**
과실류	47.1	25.4	9.6	82.1
수실류	21.5	14.1	7.3	42.9
과일과채류	9.0	7.6	7.8	**24.5**
과채류	52.6	18.4	6.6	77.6
엽경채류	71.5	12.3	5.4	89.2
근채류	66.0	21.3	6.4	93.6
조미채소류	39.4	30.9	14.3	84.5
양채류	18.2	27.3	9.1	54.5
산채류	51.1	25.7	11.4	88.1
채소종자류	92.8	3.4	1.2	**97.3**
특용작물류	57.6	29.4	8.1	95.1
버섯류	44.0	26.2	8.4	78.5
인삼류	5.8	12.8	27.9	46.5
약용작물류	61.7	23.3	6.7	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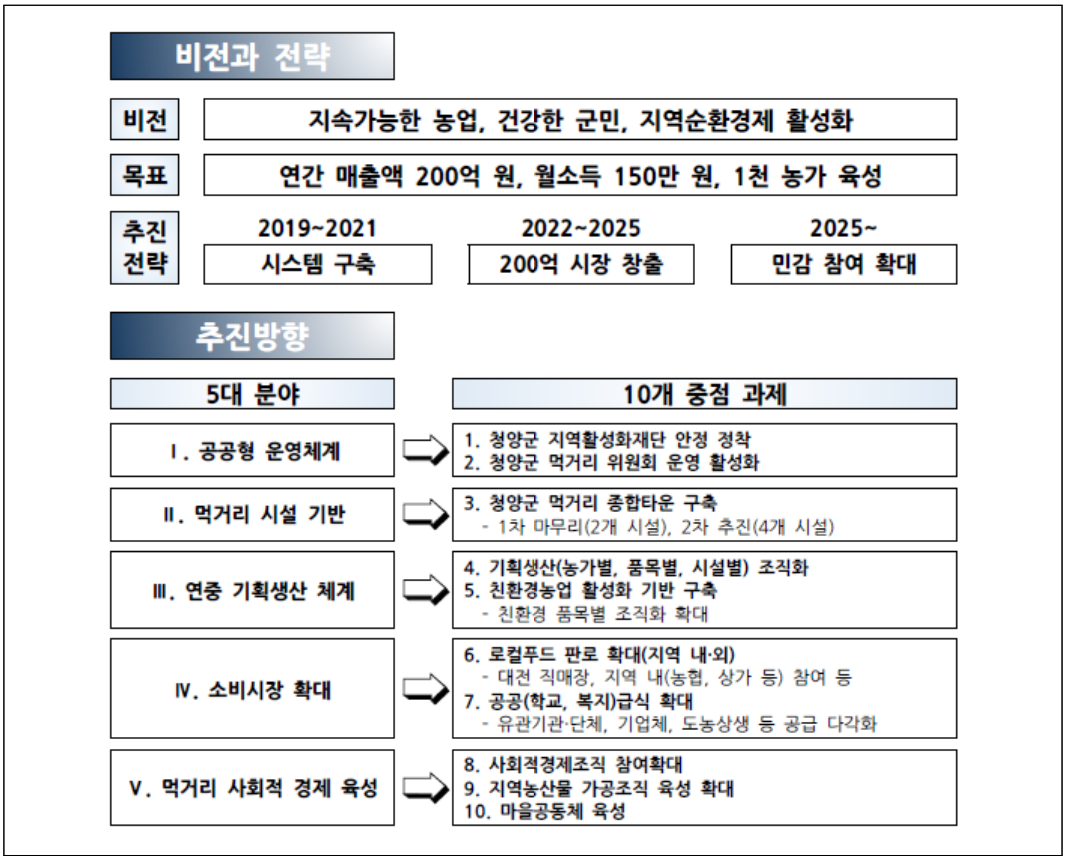
주: 재배면적은 노지·시설의 재배면적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http://uni.agrix.go.kr, 검색일: 2021. 2. 2.).

3.2. 로컬푸드 추진 현황

3.2.1. 추진 체계

❍ 청양군은 2018년 9월 「청양군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 2018년에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

〈그림 4-13〉 청양군 푸드플랜 비전 및 전략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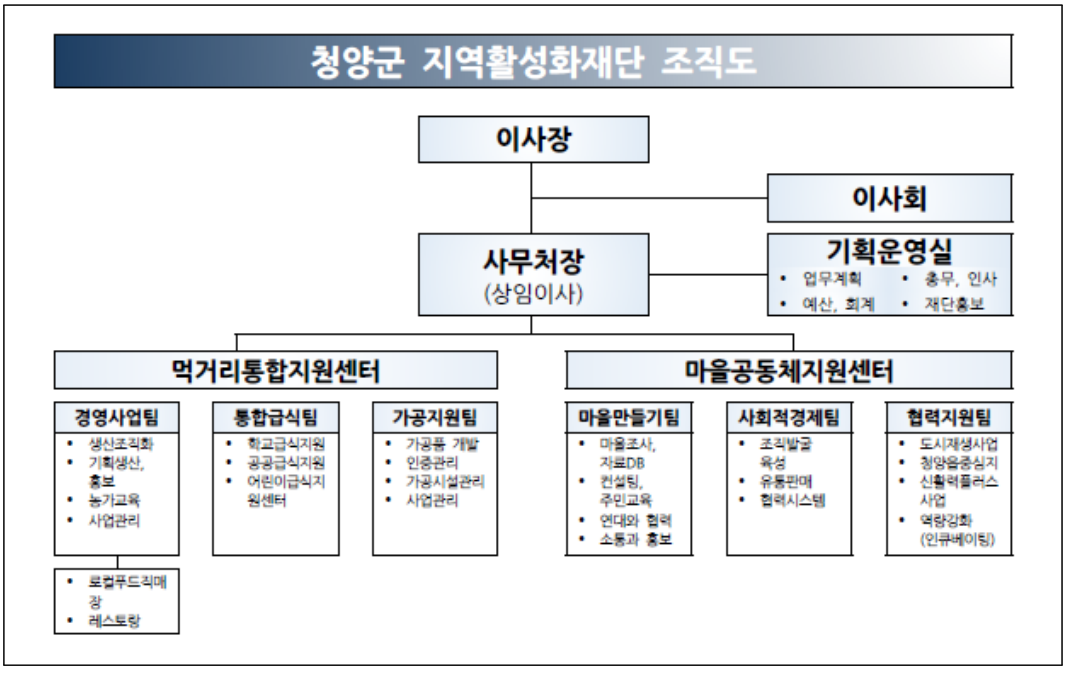
❍ 로컬푸드에 관한 주요 업무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로 '청양군 먹거리위원회'를 2020년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역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에 출범되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지역먹거리가공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 2021년 1월 현재 42명이 고용되어 있음.

〈그림 4-14〉 청양군 먹거리 위원회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5〉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2.2. 추진 사업

❍ 청양군의 로컬푸드 관련한 주요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 등임. 이중 청양군은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청양군 내 로컬푸드 직매장(청양로컬푸드직매장)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 운영하는 청양먹거리직매장(대전 유성점) 등 2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음.[30]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은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으로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농가레스토랑('농부밥상')과 청양군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농부마켓')을 개장함. 2017년 11월에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31]
- 청양군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은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반찬가공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청양군, 운영주체는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2020년 매출액은 약 801백만 원임.

〈표 4-56〉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구분	점포명	개점일	운영실적		
			매출액(백만 원)	영업일수(일)	방문객 수(명)
직영	청양 먹거리 직매장(대전 유성점)	'20. 8.	1,012	197	30,749
민간	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 '농부마켓'	'17.	801	-	3만 명

자료: 청양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57〉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및 직매장 취급품목 수(2020년 기준)

총 참여농가 (호)	취급품목 수(개)	
	농산물	가공식품
244	405	265

자료: 청양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0)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은 '소농이 행복한 청양'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2015년에 창립된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임(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gr22nade/221558455327, https://blog.naver.com/cylocalcoop: 2021. 4. 2.).

31) 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 블로그 참조(https://blog.naver.com/cylocalcoop: 2021. 4. 2.).

❍ 청양군은 2014년 현물급식센터를 설립하여 위탁 운영(위탁: 유기농영농조합법인)하였으며, 2018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직영 운영함. 2018년에는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통합하여 운영함. 2020년 7월에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 출범하여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20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총 65개소(식수인원 4,613명)를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였음. 급식 식재료 공급에 145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품목은 농산물 365품목, 가공식품 24품목, 매출액은 농산물 331백만 원, 가공식품 13백만 원 정도임.

- 청양군은 코로나19의 영향을 2020년 급식 식재료 공급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2019년에는 급식 식재료 공급에 참여한 농가가 156개 농가였으며, 매출액도 345백만 원이었음.

〈표 4-58〉 청양군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시설 현황(2020년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합계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시설 수	식수인원
13	446	12	239	20	3,054	20	874	65	4,613

자료: 청양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59〉 청양군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2020년 기준)

참여 농가 수	공급품목(개)		매출액(천 원)	
	농산물	가공식품	농산물	가공식품
145	365	24	331,062	12,811

자료: 청양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청양군은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안전한 먹거리 보장(품질인증제), 농가소득 안정,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복지급식), 먹거리 통합관리(먹거리종합타운)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 2019년에는 4개 사업 1,56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식품소재 및 반가공(10억 원), 안전성분석실(5억 원), 저온유통체계(0.5억 원), 직거래교육·홍보(0.15억 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 2020년에는 2개 사업 6,5억 원을 확보하여, 밭작물 공동경영체 1.5억 원,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5억 원)등을 추진함.

5 사례지역 중심의 로컬푸드 확대 파급 효과 분석

❍ 이 장에서는 사례 지역인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의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로컬푸드 인식, 출하 품목 증가 정도, 소득 기여 정도, 참여 영향, 향후 의향 등을 파악함. 해당 사례지역의 로컬푸드 방문 지역민을 대상으로도 로컬푸드 매장 방문 후 농식품 구매 증가 여부, 가정 내 식료품 소비량 변화 정도, 방문 영향 등을 조사함. 또한, 로컬푸드 매장 실적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확대에 따른 파급영향을 분석함.

1.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 효과 및 인식 전환

1.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1년 4월 29일(목)~2021년 6월 4일(금), 약 5주 간

❍ 조사 방법: 우편조사를 주된 조사방법으로 하여, 일부 이메일, 팩스, 대면조사 병행(원리서치연구소에 조사 위탁)

❍ 조사 대상: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등 3개 사례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본 규모: 화성시 117명, 나주시 81명, 청양군 115명 등 총 313명[32)]

❍ 사례지역 생산자 조사 응답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생산자 조사 응답자 중에서 화성시와 청양군은 남성 비중이 각각 55.6%, 52.6%, 나주시는 여성 비중이 58.0%로 높았으며, 연령대는 화성시는 60대(46.2%), 나주시는 50대(30.9%), 40대(29.6%), 청양군은 60대(47.8%)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 영농(농업) 종사기간은 화성시는 40년 이상(29.8%), 청양군은 10년 미만(45.5%) 생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나주시는 기간별로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었음.
- 재배면적은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모두 상대적으로 1천 평 미만 또는 1천 평-3천 평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표 5-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전체
성별	남성	**55.6**	42.0	**52.6**	51.0
	여성	44.4	**58.0**	47.4	49.0
연령	30대 미만	3.4	8.6	1.7	4.2
	40대	5.1	12.3	7.0	7.7
	50대	20.5	**30.9**	22.6	24.0
	60대	**46.2**	**29.6**	**47.8**	42.5
	70대 이상	24.8	18.5	20.9	21.7
영농(농업) 종사 기간	10년 미만	21.9	**36.7**	**45.5**	34.4
	10년-20년 미만	22.8	15.2	19.6	19.7
	20년-30년 미만	14.0	12.7	8.9	11.8
	30-40년 미만	11.4	16.5	9.8	12.1
	40년 이상	**29.8**	19.0	16.1	22.0
재배면적	1천 평 미만	**20.9**	**23.7**	**27.7**	24.2
	1천 평-3천 평 미만	**37.3**	**34.2**	**45.5**	39.6
	3천 평-5천 평 미만	16.4	18.4	11.6	15.1
	5천 평-7천 평 미만	8.2	11.8	7.1	8.7
	7천 평 이상	17.2	11.8	8.0	12.4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32) 청양군은 지역 내에는 민간 생산자 조직인 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직매장('농부마켓')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접지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직매장을 직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청양군의 생산자 대상 설문조사에는 지역 내의 민간 운영 직매장과 인접지역 직매장(대전 유성점)에 납품하는 생산자가 모두 포함됨.

❍ 사례지역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화성시는 96.6%가 로컬푸드 직매장, 70.9%가 지역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90.1%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학교/공공급식은 38.3%가 출하하고 있었음. 이밖에 청양군은 44.0%가 청양군 내 협동조합 운영 매장, 69.0%는 대전 유성점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공공급식에는 42.2%가 출하하고 있었음.

〈표 5-2〉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여부

단위: %, 년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출하하고 있음(%)	출하하고 있지 않음(%)	출하하고 있음(%)	출하하고 있지 않음(%)
화성시	96.6	3.4	70.9	29.1
나주시	90.1	9.9	38.3	61.7
청양군	44.0(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	56.0(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	42.2	57.8
	69.0(대전 유성점 직매장)	31.0(대전 유성점 직매장)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1.2. 로컬푸드 출하 실태와 참여 효과 분석

1.2.1. 출하 현황 및 장점

❍ 화성시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응답자 중에서 35.9%가 생산 농산물의 80% 이상을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였으며, 학교/공공급식의 경우 20% 미만인 경우가 69.6%였음(2020년 기준). 평균적으로 생산 농산물의 55.4%를 로컬푸드 직매장, 18.2%를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고 있어, 화성시 생산자의 경우 생산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나주시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33.9%는 생산 농산물의 20% 미만을 직매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25.0%는 80% 이상을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어 생산자별로 생산 농산물의 출하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급식의 경우 52.2%의 응답자가 20% 미만을 출하하였음.

- 나주시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생산 농산물의 39.5%를 로컬푸드 직매장, 34.4%를 공공급식에 출하하고 있었음.

❍ 청양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응답자 중에서 47.6%가 생산 농산물의 20% 미만, 20.6%는 20~40% 미만을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였으며, 학교/공공급식의 경우 73.3%의 응답자가 20% 미만을 출하하였음.

- 청양군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생산 농산물의 37.3%를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반면,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비중은 5.5%로 타 사례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음. 이는 농촌형 지역인 청양군 내 학교/공공급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5-3〉 2020년 생산 농산물 중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비중

단위: %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20% 미만	15.2	33.9	47.6	32.2	69.6	52.2	73.3	65.0
20-40% 미만	17.4	21.4	20.6	19.8	21.7	21.7	13.3	18.9
40-60% 미만	15.2	16.1	15.9	15.7	4.3	0.0	13.3	5.9
60-80% 미만	16.3	3.6	6.3	8.7	4.3	13.0	0.0	5.8
80% 이상	35.9	25.0	9.5	23.5	0.0	13.0	0.0	4.3
전체 평균	55.4	39.5	37.3	44.1	18.2	34.4	5.5	19.4

주: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는 장점으로는 화성시 생산자들의 경우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음'(30.4%), '소량 생산한 품목도 판매 가능함'(28.6%), '고정 납품처 확보가 가능함'(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주시의 참여 생산자들도 가장 큰 장점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음'(34.9%)을 제시하였으며, '소량 생산한 품목도 판매 가능함'이 28.8%로 높은 편이었음.

- 청양군 생산자들은 33.4%가 '소량 생산한 품목도 판매 가능함'(33.4%)을 가장 큰 장점으로 선택하여 타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다음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음'(24.5%), '고정 납품처 확보가 가능함'(20.4%) 등의 순임.

- 이밖에 화성시와 나주시는 '규격품이 아닌 농산물 출하가 가능함'을 장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청양군은 '다른 납품처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장점 중의 하나로 응답하였음.

❍ 이처럼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4〉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의 장점

단위: %

구분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음	다른 납품처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	규격품이 아닌 농산물 출하가 가능함	소량 생산한 품목도 판매 가능함	고정 납품처 확보가 가능함	인근에 매장/ 급식기관이 있어 운송비 등 비용이 적음	기타
화성시	30.4	5.5	7.0	28.6	24.6	3.0	0.9
나주시	34.9	8.3	10.0	28.8	15.7	2.2	0.0
청양군	24.5	8,7	5.6	33.4	20.4	5.9	1.5
평균	29.9	6.9	7.5	30.3	20.2	3.7	0.8

주: 1,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을 적용하여 합이 100%가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1.2.2. 재배품목 다양화 및 소득 증가 영향

❍ 화성시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과반 이상인 59.3%로 평균 4.8품목 정도가 늘어난 반면, 감소한 생산자는 11.1%에 그치고 있어 재배 품목이 다양화되는 효과를 얻고 있음.

❍ 나주시와 청양군 생산자들의 경우 재배 품목 수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57.4%, 5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 수가 증가한 비중이 38.3%, 37.1%인데 비해 감소한 비중은 4.3%, 3.2%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해당 지역 생산자들의 재배 품목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평균 증가 품목 수는 나주시가 2.4품목, 청양군은 5.0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사례지역 모두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가 증가했다는 생산자들이 감소 비중보다 크게 높아 로컬푸드 활성화는 생산자의 재배 품목 다양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5〉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 증가 여부

단위: %, 품목 수

구분	증가함	평균 증가 품목 수	변화 없음	감소함	평균 감소 품목 수
화성시	59.3	4.8	29.6	11.1	3.2
나주시	38.3	2.4	57.4	4.3	1.5
청양군	37.1	5.0	59.7	3.2	1.5
평균	44.9	4.1	48.9	6.2	2.1

주: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생산자들은 화성시가 69.6%, 나주시 34.8%, 청양군 40.4%이나, 감소한 비중은 1~4% 내외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참여 농가의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생산자들의 평균 증가율은 39~58%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표 5-6〉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생산량 증가 여부

단위: %

구분	증가함	평균 증가율	변화 없음	감소함	평균 감소율
화성시	69.6	56.7	29.1	1.3	-
나주시	34.8	39.3	60.9	4.3	20.0
청양군	40.4	58.1	59.6	0.0	0.0
평균	48.3	51.4	49.9	1.9	10.0

주 1)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화성시의 경우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생산자는 1명이었으며, 감소율을 응답하지 않음.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농업소득 변화를 조사한 결과, 화성시는 생산자들의 85.7%가 농업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67.0%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나주시도 72.3%의 생산자들이 농업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34.0%의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청양군의 경우 농업소득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지만, 감소한 농가는 전혀 없는 반면에 증가한 농가는 46.6%로 나타남.

- 즉, 로컬푸드 활성화로 인해 참여 생산자들의 농업소득 향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표 5-7〉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농업소득 증가 여부

단위: %

구분	증가함		변화 없음	감소함	
		평균 증가율			평균 감소율
화성시	85.7	67.0	13.0	1.3	-
나주시	72.3	34.0	27.7	0.0	-
청양군	46.6	39.4	53.4	0.0	-
평균	68.2	46.8	31.4	0.4	-

주 1)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화성시의 경우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생산자는 1명이었으며, 감소율을 응답하지 않음.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기 이전 생산자들의 지역 외 출하 비중은 화성시가 57.7%, 나주시 61.4%, 청양군 69.5%로 60~70% 내외가 관외로 농산물을 판매하였음. 그러나 로컬푸드 참여 이후에는 지역 내 출하 비중이 적게는 50% 정도에서 많게는 76%로 확대되면서 관내 판매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즉, 로컬푸드 확대로 인해 농가의 출하선이 지역 내로 이동함으로써 유통비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농업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농업소득이 로컬푸드 참여 이후 증가한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표 5-8〉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지역 내외 출하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로컬푸드 출하 이전		로컬푸드 출하 이후	
	지역 내 출하 비중	지역 외 출하 비중	지역 내 출하 비중	지역 외 출하 비중
화성시	42.3	57.7	75.9	24.1
나주시	38.2	61.4	55.0	45.0
청양군	30.5	69.5	48.6	51.4
평균	37.0	62.9	59.8	40.2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1.2.3. 로컬푸드 관련 긍정적 인식 전환 평가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로컬푸드와 관련된 품질과 건강, 환경, 경제 및 지역 일자리 등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화성시와 나주시, 청양군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 농산물의 소비는 환경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생산자 비중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다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가 환경에 이롭다는 긍정적 인식은 화성시가 89.7%, 나주시 91.0%, 청양군 81.9%로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

〈표 5-9〉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은 신선하다	0.9	1.3	0.9	1.0	0.0	0.0	0.9	0.3	5.3	3.9	6.3	5.3	31.0	31.6	35.7	32.9	62.8	63.2	56.3	60.5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0.0	1.3	0.9	0.7	0.9	0.0	0.0	0.3	4.4	3.9	7.1	5.3	37.2	27.6	36.6	34.6	57.5	67.1	55.4	59.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면, 차량 이동 거리가 줄어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에 이롭다	0.9	2.6	0.9	1.3	2.7	1.3	2.7	2.3	7.1	5.3	14.3	9.3	29.2	31.6	40.2	33.9	60.2	59.2	42.0	53.2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역 생산자 및 경제에 도움이 된다	0.9	1.3	0.9	1.0	0.0	0.0	0.0	0.0	0.0	0.0	1.8	0.7	26.5	25.0	42.9	32.2	72.6	73.7	54.5	65.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0.9	1.3	0.9	1.0	0.9	0.0	0.0	0.3	7.1	5.3	15.2	9.6	29.2	28.9	38.4	32.6	61.9	64.5	45.5	56.5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출하 이후 생산자들의 인식은 각 항목별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로컬푸드 출하 이후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으며,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인식 전환은 모든 사례지역 생산자들에서 90% 이상으로 분석됨.

-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먹이고 싶어졌다는 항목도 모든 사례지역에서 90% 이상의 긍정적 인식 전환을 보이고 있음.
-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대해 자부심이 생겼다는 생산자 응답은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순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아 도농복합지역에서의 인식 전환 평가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표 5-10〉 로컬푸드 출하 이후 인식 전환 평가

단위: %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0.0	1.3	0.0	0.3	0.0	0.0	1.0	0.3	6.3	6.4	8.7	7.1	43.8	48.7	46.2	45.9	50.0	43.6	44.2	46.3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0.0	1.3	0.0	0.3	0.0	0.0	1.0	0.3	6.3	3.8	5.8	5.4	36.6	51.3	44.2	43.2	57.1	43.6	49.0	50.7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0.0	1.3	0.0	0.3	0.9	5.1	2.9	2.7	17.0	12.8	15.4	15.3	45.5	41.0	45.2	44.2	36.6	39.7	36.5	37.4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역의 소비자에게 먹이고 싶어졌다	0.0	1.3	0.0	0.3	0.0	1.3	0.0	0.3	2.7	3.8	7.7	4.8	33.9	30.8	37.5	34.4	63.4	62.8	54.8	60.2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0.0	1.3	0.0	0.3	0.0	0.0	1.0	0.3	5.4	5.1	13.5	8.2	36.6	39.7	41.3	39.1	58.0	53.8	44.2	52.0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의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0.0	1.3	0.0	0.3	0.0	0.0	1.0	0.3	4.5	5.1	10.6	6.8	28.6	38.5	39.4	35.0	67.0	55.1	49.0	57.5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1.2.4. 로컬푸드 참여 충성도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는 생산자의 향후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화성시는 98.2%, 나주시 98.7%, 청양군 93.8%가 향후에도 계속 출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로컬푸드 참여 충성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로컬푸드 확대를 통해 재배 품목 다양화, 판로 확보, 농업소득 증가, 인식 전환 등 긍정적 효과를 체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5-11〉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의향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화성시	98.2	1.8
나주시	98.7	1.3
청양군	93.8	6.2
평균	96.9	3.1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향후에도 모든 사례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할 의향이 있는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품목 수를 증가시킬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청양군의 경우 증가시킬 예정인 생산자 비중이 70.6%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품목 수를 줄일 예정인 생산자는 미미한 수준임.

- 출하량도 과반 이상의 생산자가 향후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규모는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생산자들 가운데 학교/공공급식에 출하 품목을 증가시킬 예정인 비중은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높으며, 출하량은 70~80% 정도가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향후 학교/공공급식의 로컬푸드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

〈표 5-12〉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품목 수·출하량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증가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감소시킬 예정	증가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감소시킬 예정
품목 수	화성시	51.4	46.8	1.8	65.1	32.6	2.3
	나주시	54.5	40.3	5.2	74.0	20.0	6.0
	청양군	70.6	29.4	0.0	76.0	24.0	0.0
	평균	58.8	38.8	2.3	71.7	25.5	2.8
출하량	화성시	53.2	45.0	1.8	73.5	25.3	1.1
	나주시	54.8	41.1	4.1	70.0	26.0	4.0
	청양군	75.5	24.5	0.0	82.4	17.6	0.0
	평균	61.2	36.9	2.0	75.3	23.0	1.7

주: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2. 소비자의 로컬푸드 이용 효과 및 인식 전환

2.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1년 4월 23일(금)~2021년 4월 26일(월), 4일간

❍ 조사 방법: 1:1 대면면접조사(원리서치연구소에 조사 위탁)

❍ 조사 대상: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등 3개 사례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지역: 경기 화성시 직매장 2개소(봉담점, 어울림점), 전남 나주시 직매장 1개소(빛가람점), 충남 청양군 직매장 2개소(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 '농부마켓', 청양먹거리직매장(대전 유성점)) 등 총 5개소를 조사함.[33]
- 표본 규모: 화성시 101명, 나주시 101명, 청양군 100명 등 총 302명의 사례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소비자를 조사함.

〈표 5-1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중(%)
전체		302	100.0
	화성시	101	33.4
	나주시	101	33.4
	청양군	100	33.1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33) 청양군은 지역 내에는 민간 생산자 조직인 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직매장('농부마켓')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접지역에서 직매장(대전 유성점)을 직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청양군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는 지역 내 민간 운영 직매장과 인접지역 직매장(대전 유성점)을 운영하는 소비자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함.

2.2. 로컬푸드 방문 실태와 이용 효과 분석

2.2.1. 이용 실태 및 구매 품목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직매장 첫 방문 시기를 살펴보면, 화성시는 2014년 5월 처음 봉담점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되었는데, 2017년부터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2.6%, 2018년은 23.8%로 이 시기에 소비자 방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됨.

- 나주시는 2015년 11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빛가람점)을 개장하였는데, 소비자들은 첫 해인 2015년부터 방문하였다는 비중이 23.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연도별로 8~17% 정도임.

- 청양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유성점)을 2020년 8월에 대전 유성구에 임시 개장하고 9월에 정식 개장하였음. 이로 인해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첫 이용 시기는 최근인 2020년 46.0%, 2021년 32.0%로 2020년~2021년이 전체의 78.0%의 비중을 차지함. 2019년 이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유성점) 이용 소비자(22.0%)들은 지역 내에서 다른 로컬푸드 직매장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유성점)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됨.

〈표 5-14〉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첫 이용 시기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화성시	1.0	11.9	42.6	23.8	7.9	10.9	2.0
나주시	23.8	12.9	7.9	16.8	16.8	13.9	7.9
청양군	1.0	1.0	3.0	3.0	14.0	46.0	32.0
평균	8.6	8.6	17.8	14.5	12.9	23.6	14.0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화성시 소비자들의 방문주기는 주 1회(47.5%) 또는 주 2~3회(27.7%) 정도로 응답하였음. 나주시의 경우는 주 2~3회 이용하는 소비자가 3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용하는 소비자는 25.7%, 거의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

도 17.8%에 달하고 있음.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 1회가 29.0%, 주 2~3회가 26.0%로 조사됨.

-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정고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5-15〉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화성시	6.9	27.7	47.5	5.9	9.9	2.0
나주시	17.8	39.6	25.7	9.9	3.0	4.0
청양군	8.0	26.0	29.0	14.0	14.0	9.0
평균	10.9	31.1	34.1	9.9	9.0	5.0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소비자들이 전체 식료품 구입 금액 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출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40.6%이며, 나주시의 경우도 38.3%로 비슷한 수준임. 반면, 청양군은 평균 27.5%의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중 구간별로는 화성시가 20~60% 미만, 나주시와 청양군은 40% 미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16〉 사례지역 소비자의 전체 식료품 구입 금액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지출 비중					평균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화성시	5.9	38.6	39.6	9.9	5.9	40.6
나주시	23.8	31.7	17.8	11.9	14.9	38.3
청양군	42.0	30.0	14.0	8.0	6.0	27.5
평균	23.9	33.4	23.8	9.9	8.9	35.5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 1회 방문용 시 소비자들의 평균 지출액은 화성시가 3만 8,416원으로 2만~4만 원 미만이 전체의 39.6%를 차지함. 나주시 소비자의 1회 평균 지출액은 2만 8,238원으로 가장 적은데, 이는 거의 매일 직매장을 방문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아 1회당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론됨. 청양군 소비자의 경우 평균 지출액이 4만 4,750원으로 타 지역보다 많은데, 직매장 이용 빈도가 낮아 한 번 방문 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5-17〉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1회 방문 시 지출하는 금액

단위: %, 원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1회 방문 시 지출 금액 비중					평균
	2만 원 미만	2만~4만 원 미만	4만~6만 원 미만	6만~8만 원 미만	8만 원 이상	
화성시	9.9	39.6	38.6	5.9	5.9	38,416
나주시	16.8	62.4	16.8	3.0	1.0	28,238
청양군	6.0	47.0	27.0	6.0	14.0	44,750
평균	10.9	49.7	27.5	5.0	7.0	37,135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가구 내 식료품 주요 조달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례지역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35~39%의 비중을 차지함. 일반 소비자가 대형유통업체나 슈퍼, 농협마트 등을 농식품 주요 조달처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데 비해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5-18〉 사례지역 가구 내 식료품 주요 조달처

단위: %

구분	대형 유통업체	슈퍼마켓	재래시장 (전통시장)	편의점	농협마트 (하나로 마트)	친환경 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에게 직접 구매	가족/지인 으로부터 얻음	직접 재배 하여 조달
화성시	28.5	6.9	0.4	5.0	18.1	0.8	38.8	0.0	1.5	0.0
나주시	18.9	5.7	3.9	2.8	26.0	3.2	35.9	0.7	1.4	1.4
청양군	16.9	11.0	11.0	0.3	13.8	8.6	34.8	1.7	1.4	0.3
평균	21.4	7.9	5.1	2.7	19.3	4.2	36.5	0.8	1.4	0.6

주: 복수 응답(모두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례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이유는 '신선한 농산물이어서'라는 응답이었음. 다음으로는 '믿을 수 있는 생산자의 판매 상품 이어서'와 '맛/품질이 좋은 농산물 이어서'라는 비중이 높음. 이처럼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신선도, 품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밖에 '집 근처라 이용이 편리해서' 이용한다는 소비자도 다수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임.

〈표 5-19〉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이유

단위: %

구분	지역 농업/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믿을 수 있는 생산자의 판매 상품이어서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 근처라 이용이 편리해서	신선한 농산물이어서	맛/품질이 좋은 농산물이어서	건강에 좋은 농산물이어서	안전한 농산물이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음	기타
화성시	8.4	5.9	0.8	10.3	42.9	12.1	7.4	4.4	3.7	4.0	0.0
나주시	13.9	14.4	2.4	12.0	30.1	6.8	3.6	5.3	10.3	0.9	0.3
청양군	9.7	19.8	2.4	7.0	33.9	5.9	8.3	8.7	2.4	0.9	0.9
평균	10.7	13.4	1.9	9.8	35.6	8.3	6.4	6.1	5.5	1.9	0.4

주: 1, 2, 3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3:2:1)를 적용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화성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구입하는 주요 품목은 엽채류(14.4%), 조미채소류(13.7%), 근채류(12.8%), 과채류(12.8%) 등의 순이었음. 나주시는 엽채류(16.5%), 과채류(14.0%), 과일류(13.8%), 조미채소류(11.1%) 등의 순이며, 청양군 소비자의 경우 엽채류(15.6%), 과채류(14.9%), 육류(10.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 생산 품목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품목도 조금씩 다르지만, 농산가공품의 구매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표 5-20〉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품목

단위: %

구분	주곡(쌀)	잡곡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과일류	과채류	버섯류	육류	계란류	유제품	건조나물	농산가공품	기타
화성시	4.3	6.1	14.4	12.8	13.7	8.3	12.8	5.2	8.6	7.9	2.0	0.7	1.6	1.8
나주시	2.3	3.7	16.5	8.4	11.1	13.8	14.0	8.2	8.6	4.9	3.3	3.9	0.6	0.6
청양군	2.7	7.8	15.6	5.1	6.2	8.0	14.9	7.6	10.0	6.7	4.9	4.2	5.3	1.1
평균	3.1	5.9	15.5	8.8	10.3	10.0	13.9	7.0	9.1	6.5	3.4	2.9	2.5	1.2

주: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2.2.2. 구매 품목 다양화 및 식료품 소비 증가 영향

❍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 1회 방문 시 구매 품목 수와 구매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증가했다는 비중이 크게 높음. 화성시(50.5%)와 나주시(65.6%)는 과반 이상인 소비자가 최근 구매 품목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량은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모두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즉, 이처럼 로컬푸드 확대는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근에 구매 품목 수 및 구매량이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식료품 구입액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화성시 소비자의 53.5%, 나주시 62.4%, 청양군은 4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1〉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첫 이용 시기 대비 최근 구매 품목 수/구매량/구입액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구분	증가함	증가율	변화 없음	감소함	감소율
방문 1회당 구매 품목 수	화성시	50.5	26.3	49.5	0.0	-
	나주시	65.6	28.3	34.4	0.0	-
	청양군	47.1	21.3	51.5	1.5	5.0
	평균	54.4	25.3	45.1	0.5	5.0
방문 1회당 구매량	화성시	54.5	28.1	45.5	0.0	-
	나주시	64.5	25.3	35.5	0.0	-
	청양군	50.0	18.5	48.5	1.5	5.0
	평균	56.3	24.0	43.2	0.5	5.0
식료품 구입액 대비 로컬푸드 비중	화성시	53.5	26.7	46.5	0.0	-
	나주시	62.4	27.7	36.6	1.1	70.0
	청양군	48.5	17.9	48.5	2.9	5.0
	평균	54.8	24.1	43.9	1.3	37.5

주: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이후 가구 내 식료품 소비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한 정도인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높음. 화성시 소

비자의 경우 직매장 이용 후 식료품 소비가 늘었다는 비중이 과반 이상인 51.5%로 나타났으며, 나주시와 청양군은 각각 47.5%, 44.0%로 조사됨. 가구 내 식료품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증가율은 20~26% 내외로 파악됨.

- 로컬푸드 확대가 소비자의 추가적인 식료품 소비를 일정 정도 유발하는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

〈표 5-22〉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후 가구 내 식료품 소비량 증가 여부

단위: %

구분	증가함	증가율	변화 없음	감소함	감소율
화성시	51.5	26.3	48.5	0.0	-
나주시	47.5	27.3	50.5	2.0	20.0
청양군	44.0	20.4	55.0	1.0	5.0
평균	47.7	24.7	51.3	1.0	12.5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후 유발된 식료품 소비량 추가 증가가 농림업생산액에 미친 파급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함.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을 활용하였으며[34], 사례지역의 평균 인구수,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객 수, 영업 일수, 소비자 조사를 통한 직매장 방문 빈도, 식료품 소비 증가량 등의 수치를 이용함.

❍ KREI-KASMO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증가율이 도출되어야만 함. 소비증가율 산출을 위해 각 사례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연평균 방문객 수와 영업 일수, 한 달 중 1인당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일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연평균이 아닌 평균으로 환산하였음.

- 환산된 수치로 지역 인구 대비 평균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객 수를 추정하고,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후 농식품 소비가 증가한 소비자 비중 및 증가한 비중으로 증가 정도를 계상하였음.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는 한국 농업부문에 국한된 동태(dynamic)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은 외생변수로 취급되어 있음. 품목 상호간에 생산 및 소비대체 관계가 있는 품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계량경제학적 연립방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 인구 대비 평균 방문객 수 비중은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통 적용되는 수치로 가정한 후, 이를 농식품 소비증가 정도에 곱하여 국가 전체 농식품 소비증가율로 적용하고자 함.
- 최종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후 유발된 추가 소비증가율은 4.0%인 것으로 추정됨.

〈표 5-23〉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으로 인한 전체 농식품 소비증가율 추정

단위: %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연평균 방문객 수 (명) (A)	로컬푸드 직매장 영업 일수(일) (B)	로컬푸드 직매장 한 달 연평균 방문객 수(명) (C=A/B*30)	1인당 로컬푸드 직매장 한 달 중 방문 일수 (일)(D)	로컬푸드 직매장 한 달 평균 방문객 수 (E=C/D)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방문객 수 (명) (F=E/30*B)	지역 총인구수 (명) (G)	지역 인구 대비 평균 방문객 수 비중(%) (H=F/G)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후 농식품 소비증가 정도(%) (I)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인한 전체 농식품 소비 증가율(%) (J=H*I)
수치	861,624	297	87,130	8.1	10,814	106,941	315,883	33.9	11.8	4.0

주 1) 각각의 수치는 3개 사례지역의 평균 개념임.
2) 연평균 방문객 수는 동일 소비자가 연간 여러 차례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한 것도 모두 합한 수치임.
3) 1인당 로컬푸드 직매장 한 달 중 방문 일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표 5-15)의 이용 빈도 비중을 이용하여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수치임.
4)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후 농식품 소비의 추가 증가 정도는 소비자 조사 결과(표 5-22)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음(증가 소비자 비중×증가한 비중).
자료: 저자 작성.

❍ 산출된 전체 농식품 소비증가율은 김치를 포함한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모형이 설계된 KREI-KASMO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곡물, 채소류, 과일류에 한정하였음. 소비증가율은 통계청의 판매가격지수 가중치를 활용하여 각 품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산출된 소비증가율 4%가 되도록 하였음.

❍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은 소비증가율 4%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의 품목별 농림업생산액 전망치이며, 소비증가 시 변화되는 생산액 추정치는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분임. 다만, 연차별로 소비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이로 인한 가격 인하 등의 조건이 연동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2021~2025년간 각각의 증가분을 추정하여 5개년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 분석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농식품 추가 소비량 증가는 곡물의 생산액이 평균 345억 원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베이스라인 대비 0.31% 증가한 수준임. 채소류의 경우 베이스라인 대비 생산액이 0.20% 증가한 238억 원, 과일류는 0.34% 증가한 168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으로 인해 농식품 소비량은 추가적으로 4% 증가시켰으며, 이는 농업부문 생산액이 전체 751억 원 증가하는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어 로컬푸드 추진이 농산물 생산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됨.

〈표 5-24〉 KREI-KASMO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농업생산액 증가 영향 분석결과

단위: 억 원(%)

구분	베이스라인(기준) 대비 생산액 증가분(변화율)			
	곡물	채소류	과일류	계
분석 결과	344.8 (0.31)	238.2 (0.20)	167.6 (0.34)	750.6

주: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액 증가는 수요 증가가 없을 경우(베이스라인) 대비 증가분으로 2021~2025년간의 추정결과를 평균한 값임.
자료: 저자 작성.

2.2.3. 로컬푸드 관련 긍정적 인식 전환 평가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로컬푸드와 관련된 품질과 건강, 환경, 경제 및 지역 일자리 등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사례지역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 농산물의 소비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렇지 않는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가 환경에 이롭다는 긍정적 인식은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화성시는 긍정적 응답이 51.5%인데 비해 나주시와 청양군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관련 인식 수준도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크게 높아 로컬푸드 확산은 사회·경제와 농업부문 인식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가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 평가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향후 이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표 5-25〉 로컬푸드 관련 사례지역 소비자의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은 신선하다	0.0	1.0	2.0	1.0	0.0	0.0	0.0	0.0	5.9	5.0	4.0	5.0	27.7	38.6	60.0	42.1	66.3	55.4	34.0	52.0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0.0	1.0	2.0	1.0	2.0	1.0	0.0	1.0	9.9	5.9	6.0	7.3	31.7	31.7	60.0	41.1	56.4	60.4	32.0	49.7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면, 차량 이동 거리가 줄어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에 이롭다	0.0	1.0	1.0	0.7	3.0	0.0	6.0	3.0	45.5	14.9	11.0	23.8	26.7	32.7	53.0	37.4	24.8	51.5	29.0	35.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역 생산자 및 경제에 도움이 된다	0.0	1.0	1.0	0.7	0.0	1.0	3.0	1.3	14.9	3.0	9.0	8.9	44.6	32.7	55.0	44.0	40.6	62.4	32.0	45.0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0.0	1.0	3.0	1.3	1.0	1.0	3.0	1.7	13.9	9.9	13.0	12.3	39.6	31.7	54.0	41.7	45.5	56.4	27.0	43.0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후 소비자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로컬푸드 출하 이후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으며,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인식 전환은 모든 사례지역 소비자들에서 평균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싶어졌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어 로컬푸드 확대는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비자들도 사례지역 평균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처럼 로컬푸드 확대는 지역의 농업 여건과 소비 등의 인식 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앞으로 지역 농업 기반 유지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26〉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이용 이후 인식 전환 평가

단위: %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평균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0.0	0.0	1.0	0.3	0.0	1.0	1.0	0.7	24.8	11.9	8.0	14.9	43.6	39.6	64.0	49.0	31.7	47.5	26.0	35.1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0.0	0.0	1.0	0.3	0.0	0.0	2.0	0.7	21.8	8.9	13.0	14.6	50.5	42.6	60.0	51.0	27.7	48.5	24.0	33.4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0.0	0.0	1.0	0.3	4.0	1.0	5.0	3.3	35.6	15.8	18.0	23.2	42.6	34.7	57.0	44.7	17.8	48.5	19.0	28.5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싶어졌다	0.0	1.0	1.0	0.7	0.0	0.0	0.0	0.0	9.9	5.0	7.0	7.3	28.7	33.7	65.0	42.4	61.4	60.4	27.0	49.7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0.0	0.0	1.0	0.3	0.0	0.0	5.0	1.7	34.7	8.9	18.0	20.5	41.6	38.6	52.0	44.0	23.8	52.5	24.0	33.4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0.0	0.0	2.0	0.7	0.0	1.0	2.0	1.0	30.7	18.8	20.0	23.2	41.6	35.6	51.0	42.7	27.7	44.6	25.0	32.5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2.2.4. 로컬푸드 이용률 향상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향후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사례지역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의 직매장 만족도가 크게 높음을 알 수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시 구매 품목 수는 감소시킬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없으며, 증가시킬 예정이라 응답한 비중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농산물의 종류가 현재보다 더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판로 확보나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의 재배 품목 다양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수반할 있음.

❍ 구매량의 경우도 현재보다 줄이겠다는 소비자는 없는 상태이며, 59~69%는 현 수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의향이 크게 높음. 즉, 로컬푸드 확대는 향후 지역 농산물의 판매 품목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며, 판매량도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농업 기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5-27〉 사례지역 소비자의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및 구매 품목 수·구매량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이용 의향		구매 품목 수 및 구매량 증가 의향					
			구매 품목 수 증가 의향			구매량 증가 의향		
	있음	없음	감소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증가시킬 예정	감소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증가시킬 예정
화성시	100.0	0.0	0.0	38.6	61.4	0.0	30.7	69.3
나주시	100.0	0.0	0.0	32.7	67.3	0.0	39.6	60.4
청양군	100.0	0.0	0.0	38.0	62.0	0.0	41.0	59.0
평균	100.0	0.0	0.0	36.4	63.6	0.0	37.1	62.9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3. 로컬푸드 확대 파급 효과 분석

3.1. 분석 개요

❍ 이 절에서는 로컬푸드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①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 ② 식품소비 영향, ③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분석은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의 3개 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함.

❍ 로컬푸드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 지역의 통계자료, 지역 관련 기관의 내부자료와 지역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함.

〈표 5-28〉 로컬푸드 확대 효과 분석 주요 내용

구분	세부 항목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	① 농업 부문 경제적 파급 효과
	②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먹거리 소비부문 영향	① 먹거리 공공성 개선 효과
	② 먹거리 안전성 개선 효과
	③ 먹거리 접근성 개선 효과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 효과	① 지역 먹거리 순환 향상 효과
	② 지역 먹거리 가격 안정화 효과
	③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 인식 수준 향상 효과
	④ 환경 영향(푸드마일리지) 저감 효과

자료: 저자 작성.

3.2.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 분석[35)]

3.2.1. 농업부문 경제적 파급 효과

❍ 로컬푸드 참여 농가 조사를 통해 농업소득 향상 등의 영향을 파악하여 앞 절에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매출, 참여 농가 수, 방문객 수, 공급시설 수는 지역 생산자들의 판매 실적, 판로 확보 정도 등 경제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지표의 증감률 여부를 농업부문 경제적 파급 효과로 간주할 수 있음.

가) 화성시

❍ 화성시는 2014년 5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봉담점)을 개장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지역 내 총 9개 매장에서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음.[36)] 매장 수와 직매장 참여 농가 수가 증가함과 함께 매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 농가 수 증가세에 비해 매출 규모 증가세가 상당히 큰 편임. 방문객 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35) 로컬푸드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경제 파급 영향은 직매장 및 급식사업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확대를 통해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함. 사례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규모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러나 학교/공공급식 매출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20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정체 내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36) 9개 매장 중 태안농협(2017. 5), 발안농협(2018. 1)은 농협이 운영하는 직매장임.

❍ 직매장 참여 농가 수는 2014년 646개 농가에서 2020년 1,889개 농가로 연평균 19.6% 증가하였음. 매출액은 2014년 18억 원(1개 매장)에서 2020년 270억 원(9개 매장)으로 연평균 57.4%, 직매장 방문객 수는 2014년에 95천 명이었으나 2017년에 307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25만 명에 달하여, 연평균 53.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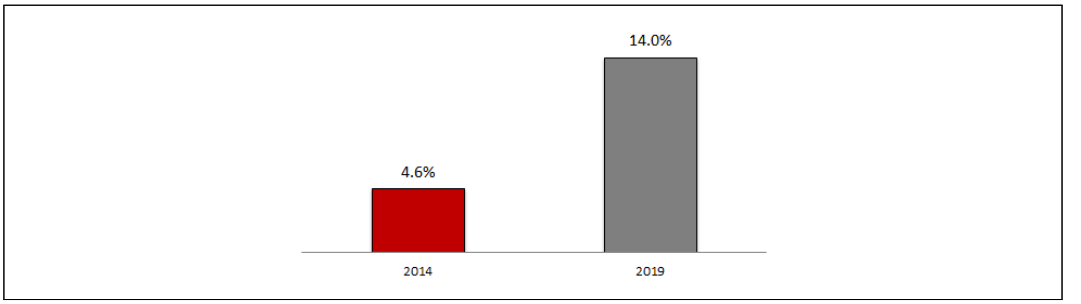
- 지역 내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2014년에는 전체 농가 중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 비중이 4.6%이며, 2019년에는 14.0%로 9.4%p나 증가함.

〈표 5-29〉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참여 농가 수·방문객 수 증가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천 원)		1,780,201	4,047,613	5,899,052	6,857,333	13,571,748	18,461,125	27,066,420	3,246,212	57.4%
매출량(개)		525,799	1,123,891	1,510,264	1,687,597	3,179,258	4,288,584	5,886,923	1,414,958	49.6%
참여 농가 수(호)		646	964	1,237	1,385	1,486	1,644	1,889	950	19.6%
방문객 수(명)		95,121	201,968	276,443	306,621	708,500	993,792	1,246,688	170,361	53.5%
취급 품목 수(개)	농산물	1,039	1,311	1,809	1,692	1,959	2,009	2,273	1,104	13.9%
	가공식품	80	408	256	448	640	680	672	432	42.6%

주 1) 화성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봉담점)이 2014년 5월에 개장함. 2014년 직매장 운영 현황은 5월에 개장된 이후 집계된 자료임.
2) 화성시는 매출량 자료가 '개' 단위로 집계되어 제공됨.
3) 매출량, 매출액은 화훼류는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 화성시 전체 농가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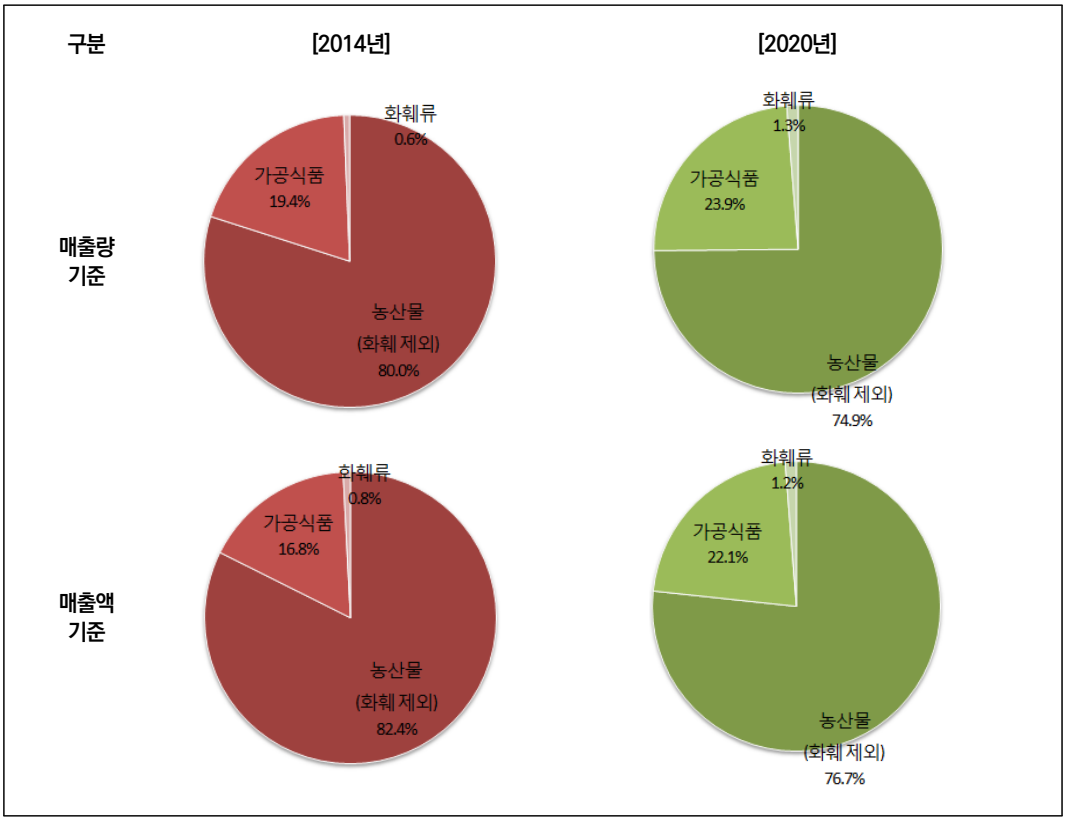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취급품목 수도 매년 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농산물 1,039개 품목, 가공식품은 80개 품목을 취급하였으나, 2020년에는 농산물은 2,273개 품목으로 2014년 대비 1,234개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은 672개 품목으로 2014년 대비 592개 품목이 증가함.

❍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품목 중에서 농산물(화훼 제외)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 화훼류 순임. 그러나 2014년에 비해 2020년의 경우 농산물 점유 비중이 다소 낮아짐. 매출량 기준(화성시는 판매갯수로 집계함)으로, 2020년에 농산물(화훼 제외) 점유 비중이 74.9%, 가공식품 23.9%, 화훼류 1.3%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각각 76.7%, 22.1%, 1.2%임.

- 농산물(화훼 제외)은 2014년 대비 5.1%p가 감소하였으며, 가공식품은 4.5%p가 증가함. 화훼류 점유 비중도 0.7%p가 증가함.

〈그림 5-2〉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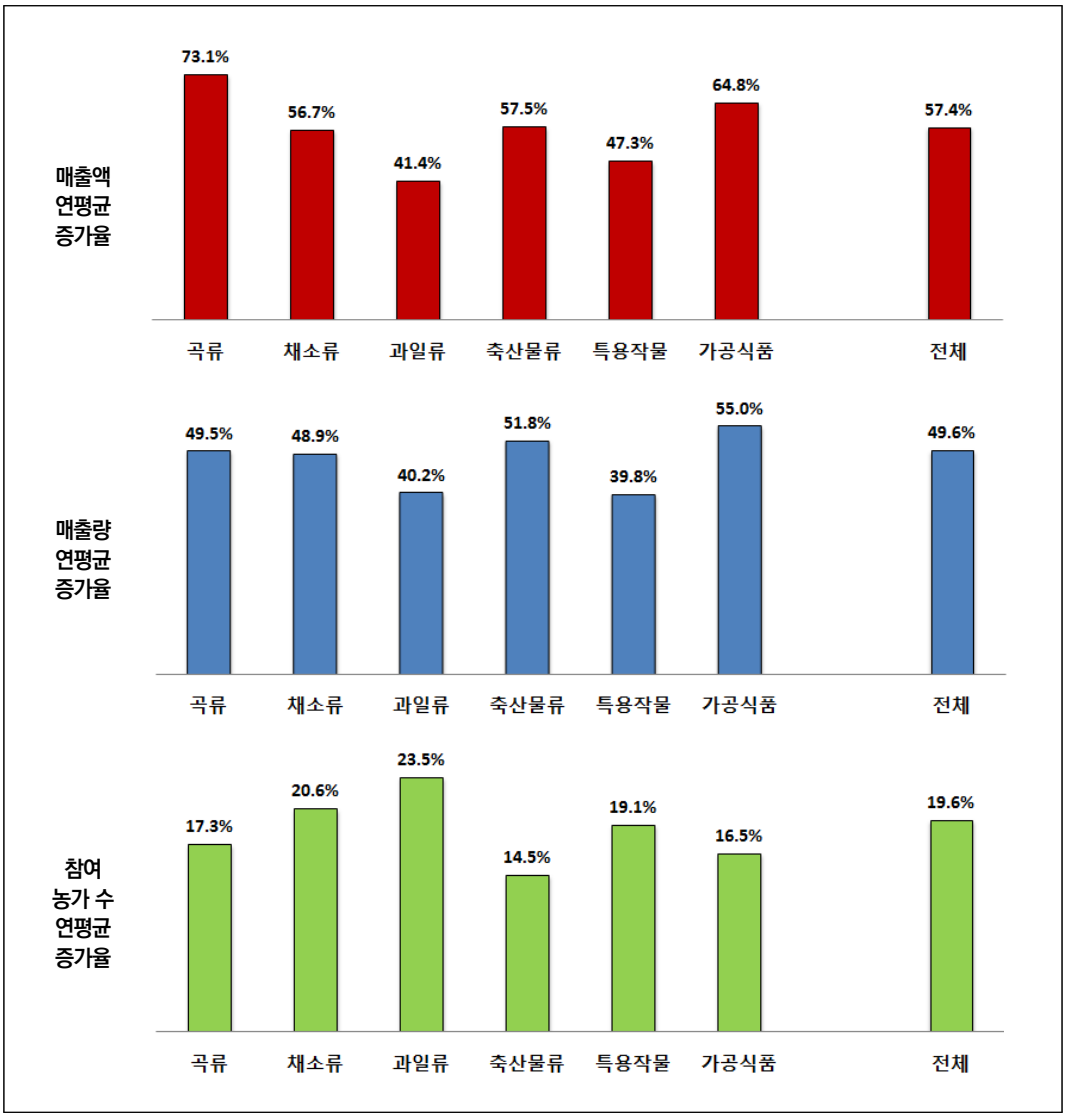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화훼류 제외) 중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곡류(73.1%), 축산물류(57.5%), 채소류(56.7%) 순

으로 높은 편임. 이밖에 매출량 증가율은 축산물류(51.8%), 곡류(49.5%), 채소류(48.9%) 순, 참여 농가 수는 과일류(23.5%), 채소류(20.6%), 특용작물(19.1%)의 순임.

- 화훼류의 연평균 매출량 증가율은 67.5%, 매출액은 69.1%로 상당히 큰 편이며, 참여 농가 수는 7.0% 증가함.

〈그림 5-3〉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연평균 증가율(2014-2020년)



자료: 저자 작성.

❍ 화성시의 공공급식 식재료 매출량과 매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한 2018~2019년 2개년 간 모두 증가하였음. 매출량은 2019년 744톤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매출액은 공급 품목 수가 전년 대비 6.7%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662백만 원으로 9.1%가 증가하였음.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매출의 큰 비중을 농산물이 점하고 있음. 2019년에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따른 매출액 전체 중에서 가공식품 매출액 비중은 16.9%에 불과함.
- 2018년 대비 2019년에 농산물이 공급 품목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가가 높은 곡류 등의 품목의 판매가 증가하여 매출액은 늘어난데 비해, 가공식품은 공급 품목 수는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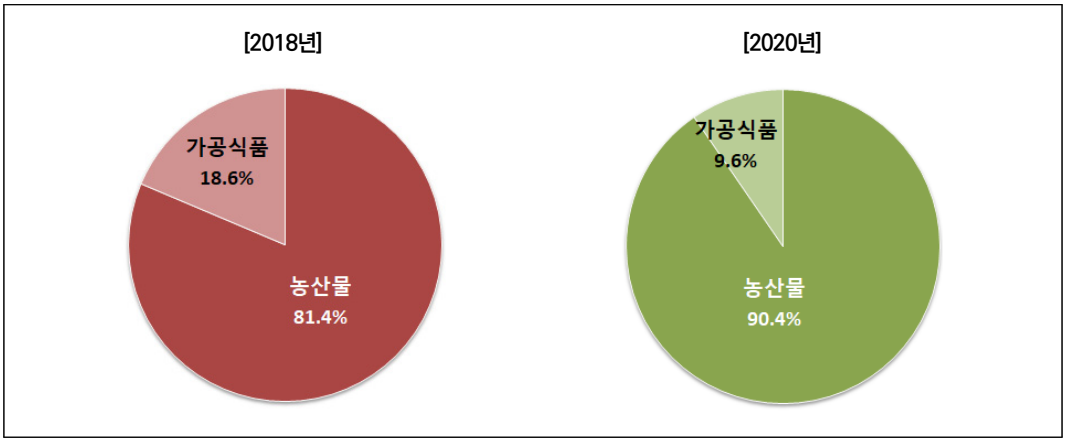
〈표 5-30〉 화성시 공공급식 식재료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증감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가율(%) ('18-'19)
매출량(톤)		721	744	313	3.2
매출액(천 원)	농산물	2,439,105	2,662,192	1,278,339	9.1
	가공식품	558,121	540,946	135,735	-3.1
	합계	2,997,226	3,203,138	1,414,074	6.9
공급 품목 수(개)	농산물	60	56	65	-6.7
	가공식품	9	13	18	44.4
참여 농가 수(호)		75	62	135	-17.3
공급시설 수(개소)		175	188	233	7.4

주: 참여 농가 중에서 조합은 1농가로 계산함.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화성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규모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공공급식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매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농가 수는 135개 농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공급시설 수도 233개소로 전년 대비 45개소가 증가하여, 공공급식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생산자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5-4〉 화성시 공공급식 매출액 품목별 비중 변화



자료: 저자 작성.

나) 나주시

❍ 나주시는 2015년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빛가람점)을 개장하고, 2019년에 2호점(금남점)을 개장하여 현재 지역 내에서 총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직매장 참여농가 수,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매출 증가 폭이 참여 농가 수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로컬푸드 확대에 따라 생산 부문에 돌아가는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큰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수는 2015년 257개 농가에서 2020년 656개 농가로 연평균 20.6% 증가하였음. 매출액은 매장 개장 첫해인 2015년에 1억 4천만 원에서 2016년 1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6억 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1.7%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6년부터 계산하여도 연평균 증가율은 19.6%인 것으로 분석됨.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량도 2015년 2만 1천kg에서 2020년 81만 3천kg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8.3%에 달하고 있음.

- 나주시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 비중이 2015년 1.2%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7.8%로 6.6%p나 신장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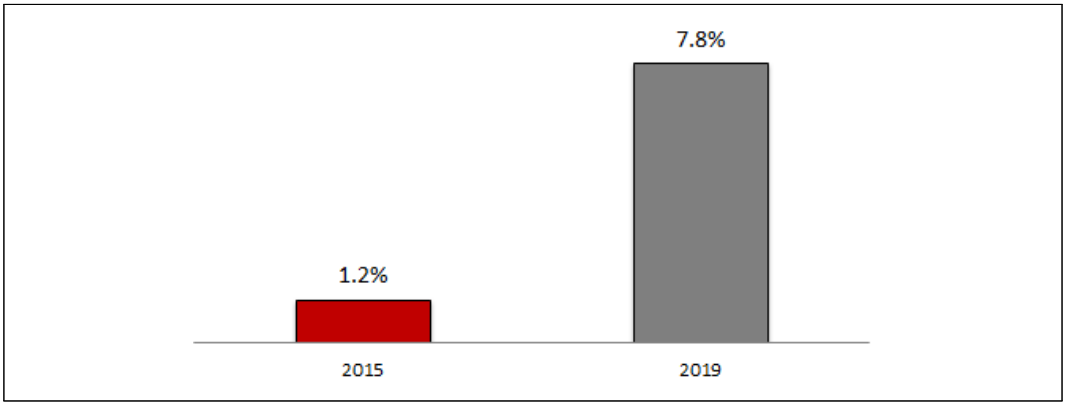
❍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객 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1.7% 증가함.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객 수는 개장 초기인 2015년에 8,7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22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방문객 수가 급증하였음. 방문객 수 증가는 매출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참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컬푸드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부문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임. 이 때문에 나주시의 직매장 방문객 수 급증은 지역 농업의 기반 유지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론됨.

〈표 5-31〉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참여 농가 수·방문객 수 증가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천 원)		138,517	1,750,701	2,456,715	2,918,224	2,995,408	3,581,480	965,458	91.7%
매출량(kg)		20,721	258,150	425,053	598,302	427,491	812,883	203,739	108.3%
참여 농가 수(호)		257	471	499	602	634	656	369	20.6%
방문객 수(명)		8,661	108,261	150,926	178,309	196,387	224,240	44,900	91.7%
취급 품목수(개)	농산물	239	720	799	809	764	765	429	26.2%
	가공식품	80	173	274	339	472	491	299	43.7%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5〉 나주시 전체 농가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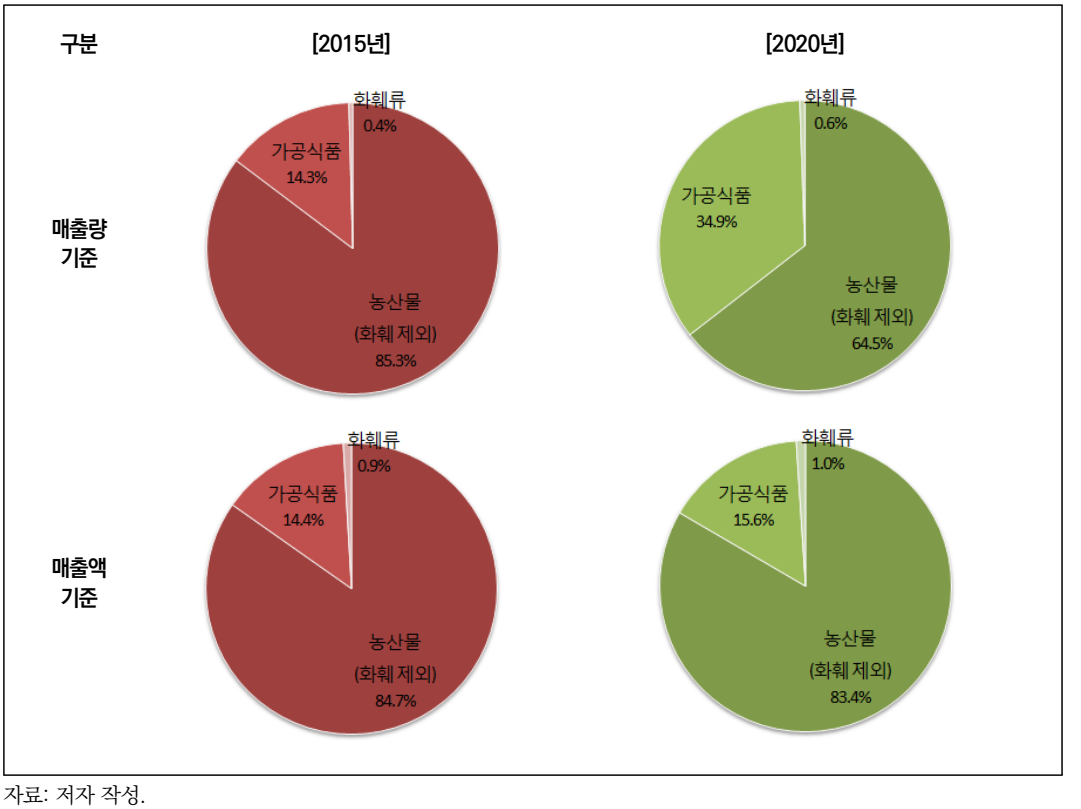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취급 품목 수의 경우 개장 첫해인 2015년에 농산물은 239개 품목이었으나, 2018년 809개 품목으로까지 확대되다가 최근에는 760여개 품목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6.2%에 달함. 참여 생산자 조사결과에서도 출하

품목 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로컬푸드 확대는 재배 품목의 다양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품목 중에서 농산물(화훼 제외)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 화훼류 순임. 2015년에 비해 2020년의 경우 매출량 기준으로 농산물 점유 비중이 낮아졌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가공식품의 경우 비교적 저가의 다양한 제품이 많이 판매된 데 비해 농산물은 취급 품목 수가 늘다가 정체되고 있지만, 판매단가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므로 농가소득 측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님.

〈그림 5-6〉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



자료: 저자 작성.

- 매출량 기준으로, 농산물(화훼 제외)이 2015년에 전체의 85.3%, 가공식품 14.3%, 화훼류가 0.4%를 점유함. 매출액 기준으로는 농산물(화훼 제외), 가공식품, 화훼류 비중이 각각 84.7%, 14.4%, 0.9%임.
- 2020년에는 매출량 기준으로 농산물(화훼 제외)이 64.5%%, 가공식품 34.9%, 화훼류 0.6%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각각 83.4%, 15.6%, 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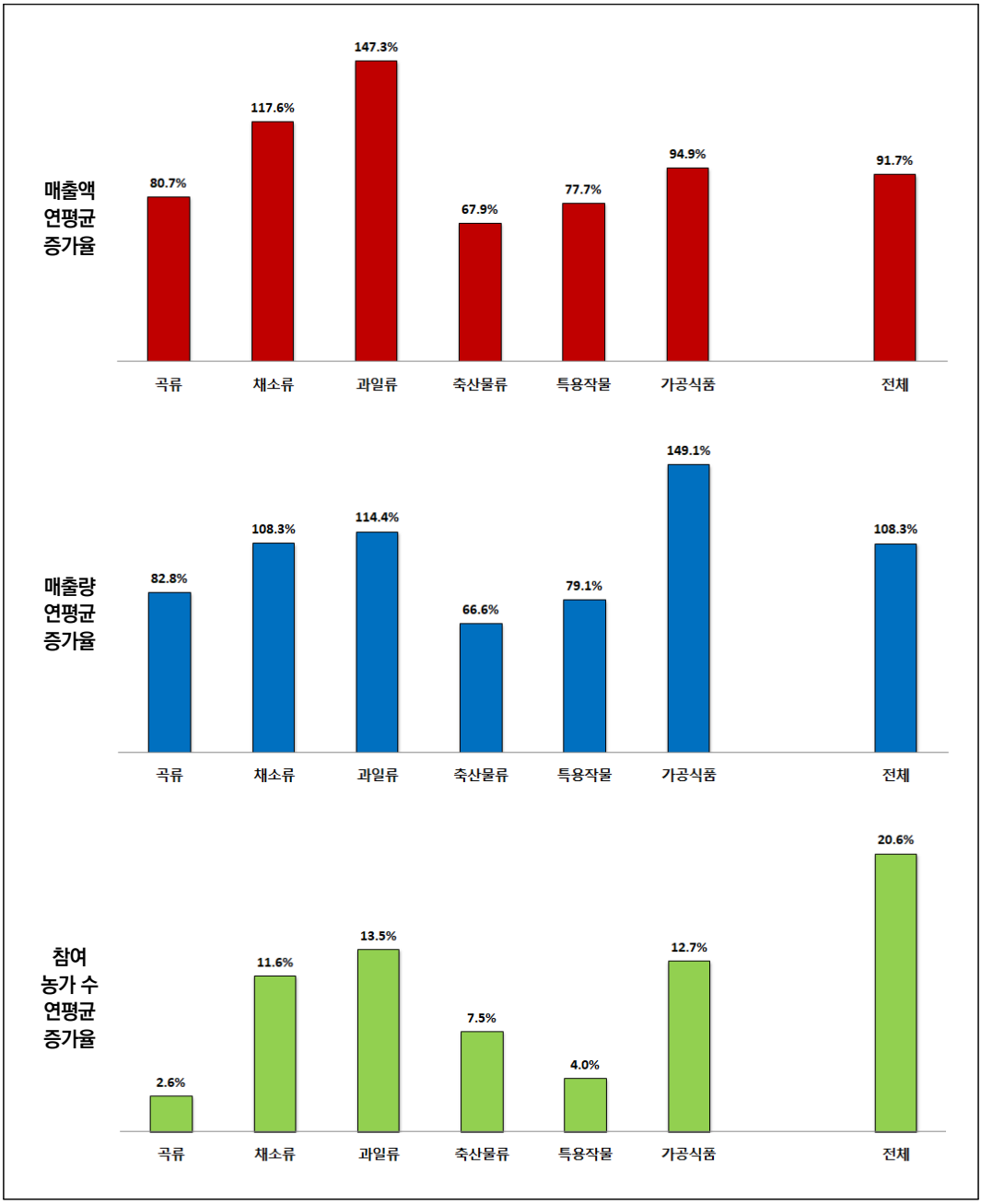
❍ 품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모든 품목에서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015~2020년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91.7%에 달하며, 품목별로는 과일류(147.3%), 채소류(117.6%), 곡류(80.7%)의 매출액 증가세가 큰 것으로 분석됨. 매출량 기준으로도 과일류, 채소류, 곡류의 연평균 증가율이 큰 것으로 조사됨. 연평균 참여 농가 수 증가율은 과일류(13.5%), 채소류(11.6%), 축산물류(7.5%) 순임.

❍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곡류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컸음. 그러나 나주시는 과일류가 가장 큼. 이는 해당 지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즉, 경기도 화성시는 쌀을 비롯한 곡류 재배가 많으며, 전남 나주시는 대표적인 배의 주산지이므로 로컬푸드는 각 지역별 생산 여건이 감안된 매출 전략의 효과로 볼 수 있음.

❍ 나주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외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따른 매출량과 매출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매출량은 2019년 377톤으로 전년 대비 94.3%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매출액은 2019년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9%가 증가함.

- 공급 품목 수도 농산물의 경우 2019년 145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61.1%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참여 농가 수도 2018년 80개 농가에서 2019년에 161개 농가로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과 함께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생산자의 참여 의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5-7〉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연평균 증가율(2015-2020년)



자료: 저자 작성.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시설 수는 2018년 220개소에서 2019년 224개소로 1.8% 증가에 그쳤음. 그러나 공급 품목 수가 농산물의 경우 2018년 90개 품목에서 2019년 145개 품목으로 61.1%가 증가함. 이를 통해 참여 농가의 생산·공급 품목이 다양화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획생산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공급 시설 수가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 내 급식시설들이 로컬푸드의 이용 비중을 확대하였음을 의미하므로 결국 농업부문의 경제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나주시는 지역 내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식재료 중에서 농산물 비중이 2018년에 84.9%였으며, 2019년에는 88.3%로 3.4%p가 증가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농산물이 점유하고 있음. 2018년 대비 2019년에 농산물 공급품목 수가 61.1% 증가한데 비해, 가공식품 공급품목 수는 372.9%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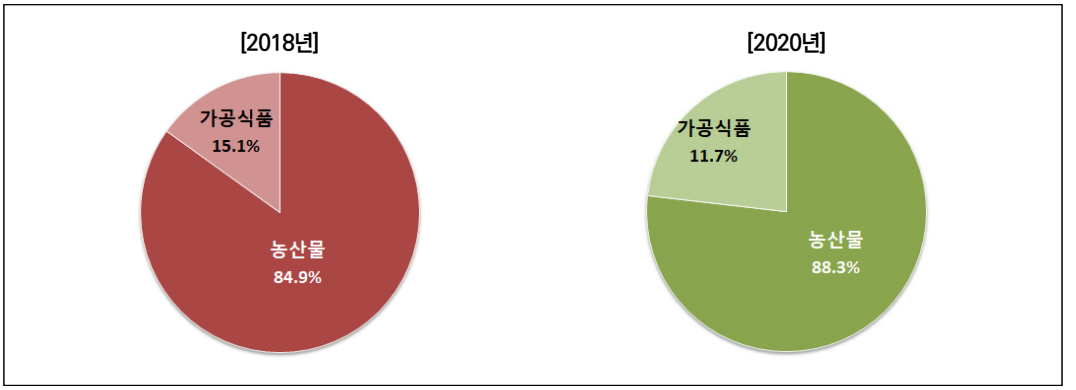
❍ 나주시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식일수가 많은 어린이집의 비중이 크며, 연중 급식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도 식재료 공급 대상임. 이에 따라 2020년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줌. 이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급식 식재료 공급 대상인 학교, 유치원 이외에도 공급대상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표 5-32〉 나주시 공공급식 식재료의 매출 및 참여 농가 수 증가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가율 ('18-'19)
매출량(톤)		4	194	377	449	94.3
매출액(천 원)	농산물		555,746	1,166,247	1,142,363	109.9
	가공식품		98,932	154,205	344,485	55.9
	합계		654,678	1,320,452	1,414,074	101.7
공급 품목수(개)	농산물		90	145	150	61.1
	가공식품		214	1,012	2,254	372.9
참여농가 수(호)			80	161	156	101.3
공급시설 수(개소)		33	220	224	219	1.8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8〉 나주시 공공급식 매출액 품목별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다) 청양군

❍ 청양군은 2017년에 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청양군 내 로컬푸드 직매장, 2020년에는 청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청양먹거리직매장(유성점)이 개장됨. 청양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은 연간 30.9%, 방문객 수는 8.2%가 증가함. 청양군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 중에서 약 3.8%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음.[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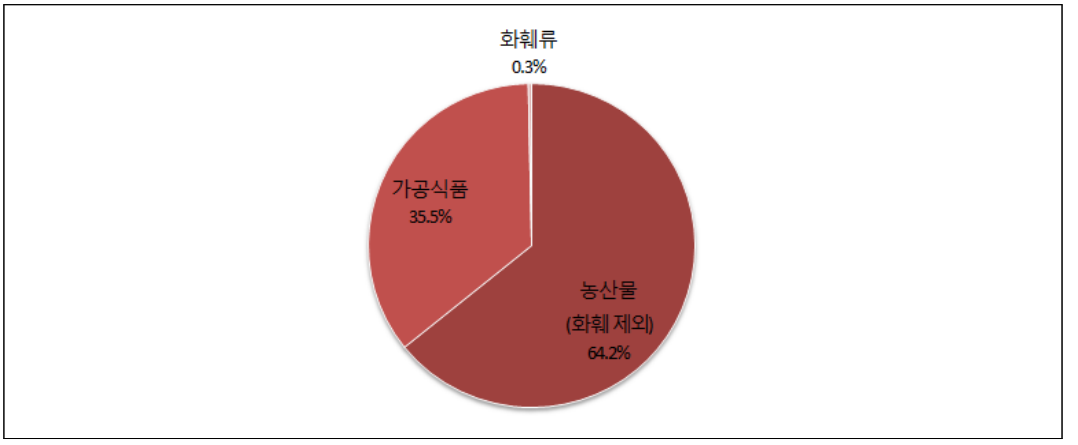
〈표 5-33〉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참여 농가 수·방문객 수 증가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백만 원)		808	1,183	1,195	1,813	479	30.9%
매출량(kg)		-	-	-	112,028	29,423	-
참여농가 수(호)		-	-	-	244	210	-
방문객 수(명)		48,000	55,000	58,000	60,749	6,066	8.2%
취급 품목 수 (개)	농산물	-	-	-	405	530	-
	가공식품	-	-	-	265	282	-

주 1) 2021년(현재) 자료에는 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직매장 자료가 포함되지 않음.
2)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는 청양군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매장 자료임.
3)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수는 청양먹거리직매장(유성점) 자료임.
4) 매출량 자료는 가공품, 건류, 화훼가 제외되어 있음.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7) 청양군 농가인구 수 통계는 2019년까지 발표되어, 2020년 농가인구 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청양군 연평균 농가인구 증감률(-1.5%)을 적용하여 산출함.

〈그림 5-9〉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별 매출 현황(2020년, 매출액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청양군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따른 매출량과 매출액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매출량은 2019년 92톤으로 전년대비 14.3%가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매출액은 2019년 3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9.3%가 증가함. 청양군의 매출 규모는 식재료 공급 시설 수가 2018년 35개소에서 2019년에 34개소로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함. 로컬푸드 이용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급식시설들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이용 의향도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청양군은 공급품목 수가 농산물의 경우 2019년 274개 품목으로 전년대비 83.8%가 증가함. 참여 농가 수도 2018년 38개 농가에서 2019년에 156개 농가로 크게 증가함. 이를 통해 참여 농가의 생산·공급 품목이 다양화되고, 지역 생산자의 참여 의지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청양군은 지역 내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식재료 중에서 농산물 비중이 2018년에 82.8%였으며, 2019년에는 96.3%로 13.5%p가 증가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농산물이 점유하고 있음. 가공식품 공급 품목 수가 2018년에는 1개에 불과하며, 2019년에는 21개로 20개 정도 증가하였으나, 가공식품의 매출 규모는 15.1%가 증가한데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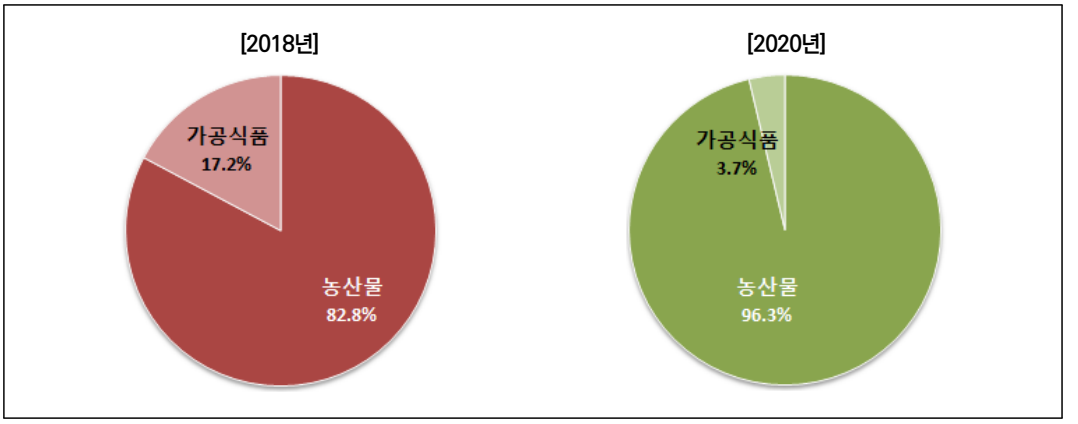
❍ 청양군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음. 어린이집, 경로당은 2020년부터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어, 식재료 공급대상 시설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로컬푸드 공급 시설을 다양화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하여 2020년에 매출 규모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2020년 매출액은 344백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4.8%가 감소함.

〈표 5-34〉 청양군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가율 ('18-'19)
매출량(kg)		80,439	91,936	64,608	14.3%
매출액(천 원)	농산물	247,435	344,583	331,062	39.3%
	가공식품	51,459	59,237	12,811	15.1%
공급품목 수(개)	농산물	108	274	365	153.7%
	가공식품	1	21	24	2000.0%
참여농가 수(호)		38	156	145	310.5%
공급시설 수(개소)		35	34	65	-2.9%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0〉 청양군 공공급식 매출액 품목별 비중



자료: 저자 작성.

3.2.2.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38)]

❍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는 사례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사례 지역의 경우 대체로 일자리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이 점유하는 비중이 사업 개시 이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일자리의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화성시는 2016년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47개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개에 달하는 등 2016~2020년에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이 20.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즉,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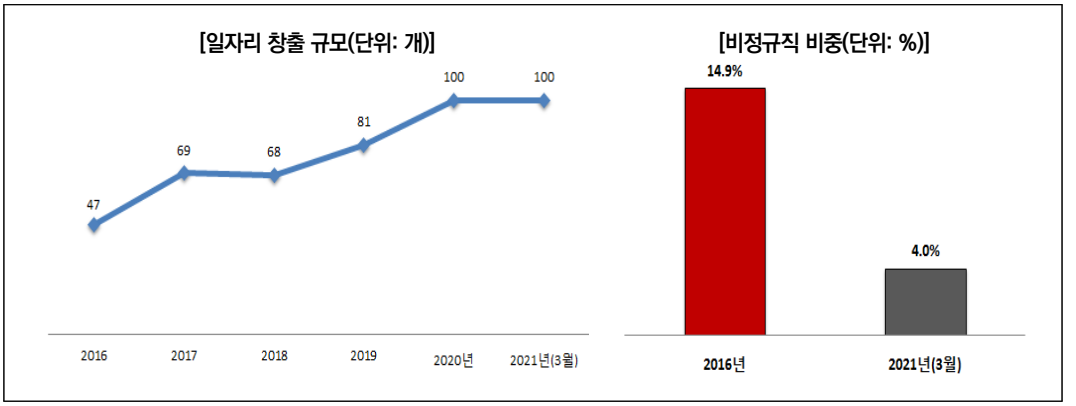
❍ 화성시의 경우 지역 내 공공행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일자리가 2016년 1,676개에서 2020년에 2,566개로 연평균 11.2%증가함(공무원 정원 기준). 이에 비해 화성시의 로컬푸드 관련한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 등을 통한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은 20.8%로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화성시는 로컬푸드 사업의 시작 이후에 로컬푸드 관련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의 점유 비중이 감소하면서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안정화되는 질적 개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화성시는 2016년에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체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14.9%였으나,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2021년 현재는 4.0%인 것으로 분석됨.

---

38) 이 연구에서는 자료 이용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로컬푸드 관련 정책·사업과 연관되어 창출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함. 즉, 민간부문에서의 로컬푸드와 연관되어 창출되는 일자리는 분석에서 제외함. 지방자치단체별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민간부문에서도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공과 민간 부문을 모두 합할 경우 지역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1〉 화성시 연도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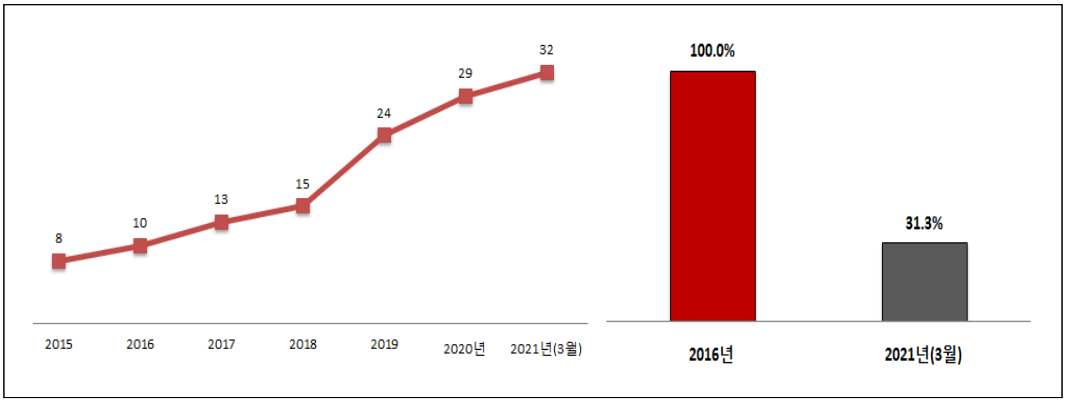
주 일자리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중을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 직매장과 공공급식을 통한 나주시의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는 나주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나주시는 2015년 8개 일자리에서 시작하여 2020년에 29개(2021년 현재 32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2015~2020년에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이 23.7%에 달하였음.

❍ 나주시의 공공행정 일자리는 2015년 978개에서 2020년에 1,157개로 연평균 3.4%증가함(공무원 정원 기준). 이에 비해 나주시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 등의 로컬푸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23.7%에 달하고 있어,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로컬푸드 관련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나주시의 경우 2015년에는 사업 시작과 함께 창출된 8개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이었으나 2021년 현재 전체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31.3%로 감소하였음.

〈그림 5-12〉 나주시 연도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



자료: 저자 작성.

❍ 청양군은 2021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로컬푸드 관련 일자리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출됨.[39] 청양군에서 2021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출된 일자리는 40개임. 또한 창출된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27.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안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20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6.3%(통계청 자료, 2020년 8월 기준)임.

❍ 청양군의 경우 2021년 지역 내 공공행정 일자리 규모가 652명임(2021년 공무원 정원 기준). 청양군의 로컬푸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일자리가 40개로 공공행정 일자리 규모의 6.1% 수준에 달하고 있어, 농촌지역인 청양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정책·사업 추진으로 창출된 일자리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40]

39) 청양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함. 민간 생산자 조직인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 일자리는 분석 대상이 아님.

40) 청양군은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직영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됨. 따라서 공공행정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과 로컬푸드 관련 공공사업에서의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한 화성시, 나주시와는 달리 2021년의 청양군 공공행정 일자리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하여 창출된 일자리 규모를 상호 비교함.

❍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등 3개 사례지역의 일자리 확대 효과(2020년 기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로컬푸드 확대로 인해 전국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3,129개 정도임. 이는 현재의 로컬푸드 사업 추진 수준을 고려할 경우 추산된 일자리 창출 규모임. 향후 지역별로 로컬푸드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표 5-35〉 로컬푸드 전국 확대 시 경제 및 고용 효과

구분	일자리 수
로컬푸드 고용 효과(일자리 창출)	13,129

주: 사례지역인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의 2020년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일자리 창출 규모를 평균한 값에 전국 시군구 지역 수를 감안하여 추산함.
자료: 저자 작성.

3.3. 지역 먹거리 소비부문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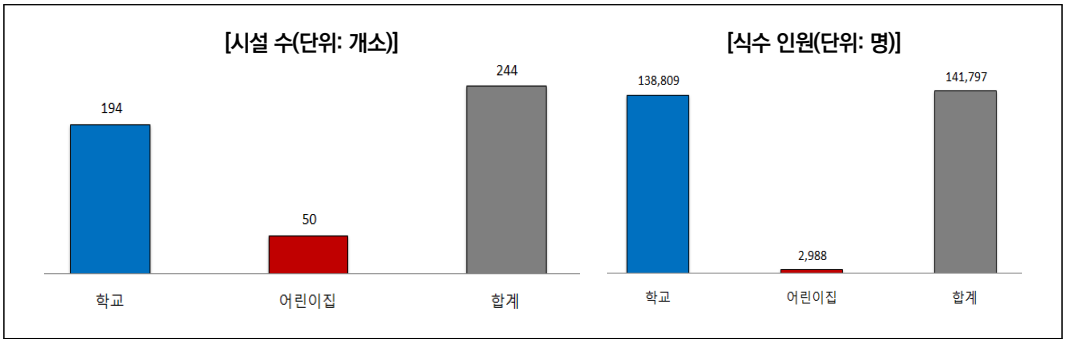
3.3.1. 먹거리 공공성 개선 효과

❍ 최근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이 활성화되는 추세임. 화성시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에 참여하는 시설 수가 연평균 15.4% 증가함.[41] 2020년에 공급센터를 통해 로컬푸드를 공급받는 화성시 급식시설은 244개소, 식수인원은 141,797명에 달하고 있음.

❍ 전체 인구와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공급식에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의 수혜를 받는 비율이 17.1%에 달하고 있음.

41) 화성시는 2020년을 제외하고 식수인원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그림 5-13〉 화성시 공공급식 참여 현황(2020년 기준)



주: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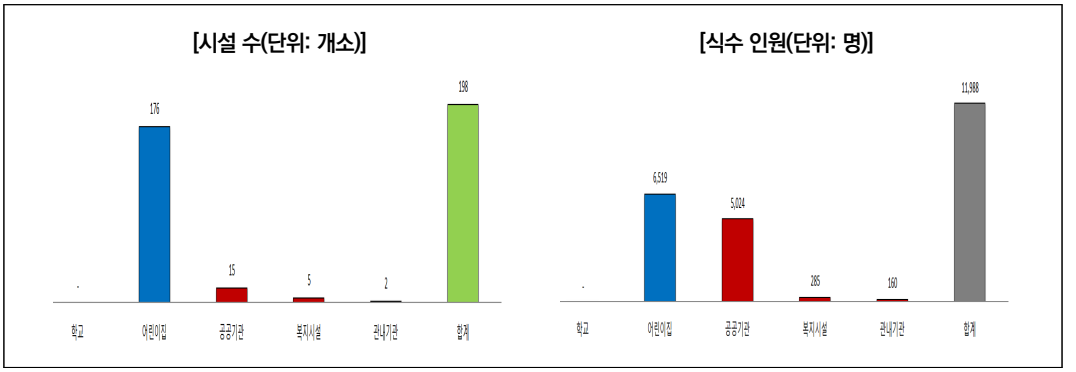
〈그림 5-14〉 화성시 공공급식 참여 시설 연평균 증가율(2018-2020년)과 인구 대비 수혜비율(2021년 현재 기준)

주: 인구 대비 수혜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식수인원 비율로 계산함. 2021년 주민등록인구는 1월 기준 인구임.
자료: 저자 작성.

❍ 나주시에서 로컬푸드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198개, 식수인원은 11,988명임(2020년 기준). 나주시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에 참여하는 시설 수와 식수인원이 모두 크게 증가함. 시설 수는 연평균 87.9%, 식수인원은 연평균 228.0%로 크게 증가하였음. 나주시의 인구 대비 공공급식 로컬푸드 수혜 비율은 10.5%정도였음(2021년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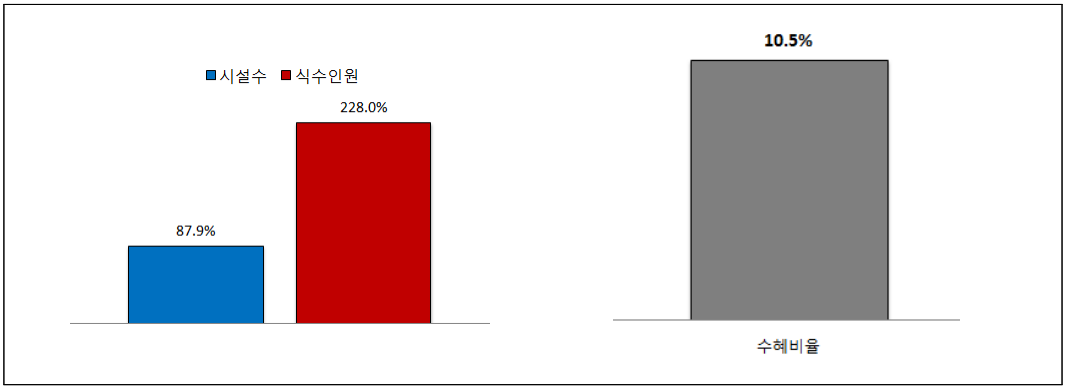
-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공급식 로컬푸드 수혜비율은 2017년에 0.4%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10.3%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12%대로 증가함.

〈그림 5-15〉 나주시 공공급식 참여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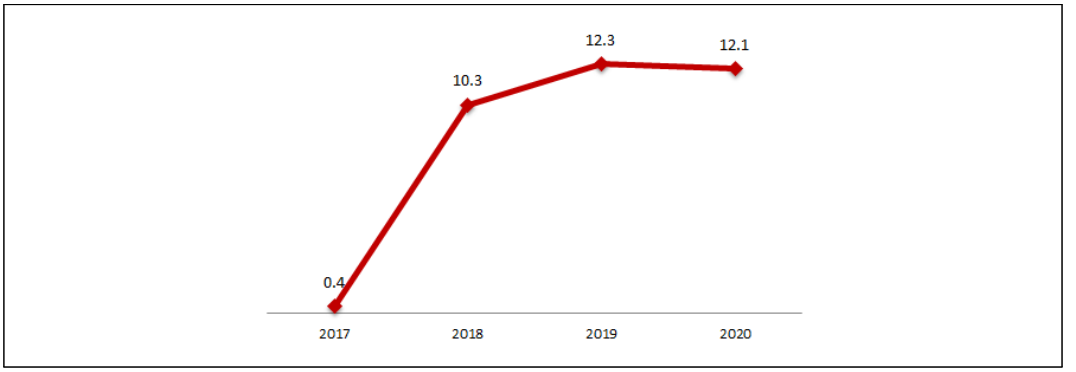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6〉 나주시 공공급식 참여 시설 연평균 증가율(2018-2020년)과 인구 대비 수혜비율(2021년 현재 기준)



주: 인구 대비 수혜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식수인원 비율로 계산함. 2021년 주민등록인구는 1월 기준 인구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7〉 나주시 연도별 인구 대비 급식 로컬푸드 수혜비율(2017-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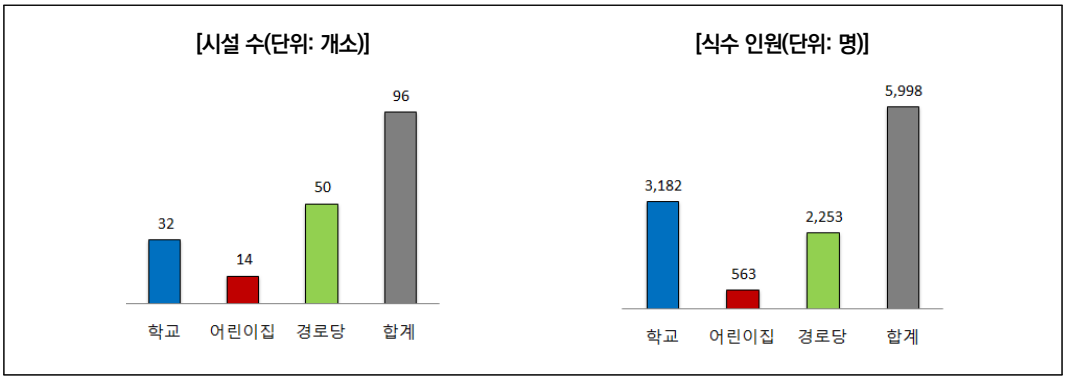


주: 인구 대비 수혜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식수인원 비율로 계산함.
자료: 저자 작성.

❍ 청양군에서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96개, 식수인원은 5,998명임(2020년 기준). 청양군은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대상 시설 수 및 식수인원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시설 수는 연평균 36.3%가 증가하였으며, 식수인원은 연평균 12.9%가 증가함. 인구 대비 공공급식 로컬푸드 수혜비율은 19.2%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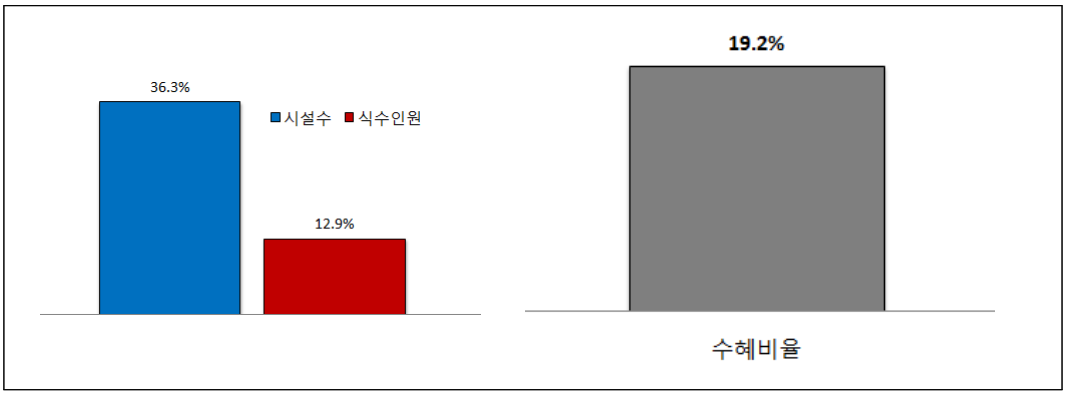
-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양군의 공공급식 로컬푸드 수혜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수혜비율은 2018년에 11.2%였으나, 2020년에는 14.9%로 증가함. 이러한 수혜비율은 2021년 현재 19.2%까지 증가한 것임.

〈그림 5-18〉 청양군 공공급식 참여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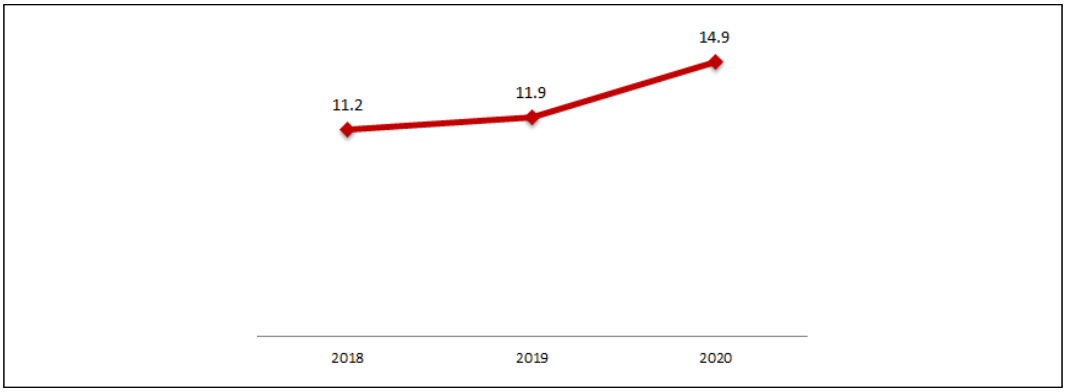
주: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9〉 청양군 공공급식 참여 시설 연평균 증가율(2018-2020년)과 인구 대비 수혜비율(2021년 현재 기준)



주: 인구 대비 수혜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식수인원 비율로 계산함. 2021년 주민등록인구는 1월 기준 인구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0〉 청양군 연도별 인구 대비 급식 로컬푸드 수혜비율(2018-2020년)



주: 인구 대비 수혜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식수인원 비율로 계산함.
자료: 저자 작성.

3.3.2. 먹거리 안전성 개선 효과

❍ 화성시는 매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16년에 안전성 검사가 로컬푸드 직매장 89건, 공공급식이 350건 등 총 439건이 실시되었으나, 2020년에는 직매장은 3,007건, 공공급식은 353건으로 총 3,360건이 실시됨(정밀검사 기준). 이는 2016년 비해 직매장은 2,918건, 공공급식은 3건으로 총 2,921건이 증가한 것임.

❍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참여농가당 안전성 검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공급식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의 2년간은 참여농가당 안전성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함. 종합적으로 화성시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한 참여농가당 안전성 검사 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편임.

〈표 5-36〉 화성시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89	1,555	2,209	2,915	3,007
공공급식	-	-	254	296	353
합계	89	1,555	2,463	3,211	3,360

자료: 화성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37〉 화성시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 효과 분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	619	683	749	840	920
	참여농가당 검사 건수	0.14	2.28	2.95	3.47	3.27
공공급식	참여농가 수	-	-	75	62	135
	참여농가당 검사 건수	-	-	3.39	4.77	2.61
참여농가 당 검사 건수(전체)		0.14	2.28	2.99	3.56	3.18

주: 화성시의 경우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자료: 저자 작성.

❍ 나주시는 2016년 이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2016년에 안전성 검사가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123건 실시되었으며, 2020년에는 직매장은 287건, 공공급식은 500건으로 총 787건이 실시됨.

❍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참여농가당 안전성 검사 건수는 2016년 0.26건에서 2020년에 0.44건으로 0.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공공급식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의 2년간은 참여농가당 안전성 검사 건수가 3.00건 내외로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2020년에 3.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20건이 증가함. 종합적으로 나주시의 경우 참여농가당 안전성 검사 건수가 2016년에 0.26건에서 공공급식 로컬푸드 검사가 시작된 2018년에는 0.70건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다시 0.97건으로 증가함.

〈표 5-38〉 나주시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123	295	240	240	287
공공급식	-	-	240	484	500
합계	123	295	480	724	787

자료: 나주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39〉 나주시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 효과 분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	471	499	602	634	656
	참여농가당 검사 건수(A)	0.26	0.59	0.40	0.38	0.44
공공급식	참여농가 수	-	-	80	161	156
	참여농가당 검사 건수(B)	-	-	3.00	3.01	3.21
참여농가 당 검사 건수(전체)		0.26	0.59	0.70	0.91	0.97

주: 나주시의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 청양군은 2019년에는 공공급식의 경우 211건의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급식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158건의 검사를 실시함. 직매장의 경우 2020년 8월에 대전 유성점 직매장이 개장되면서 400건의 검사를 실시함. 2020년 한 해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로컬푸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558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

❍ 참여농가당 안전성 검사건수 2019년에는 1.35건이며, 2020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1.64건, 공공급식에 대해 1.09건으로, 종합적으로 참여농가당 1.43건의 안전성 검사가 실시됨.

〈표 5-40〉 청양군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대전 유성점)	-	400 (2020. 8. 26.~2020. 12. 31.)
공공급식	211	158
합계	211	558

주: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 건수는 대전 유성점 자료이며, 대전 직매장이 2020년 하반기 8월 이후에 개장하여 8월 이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자료임.
자료: 청양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41〉 청양군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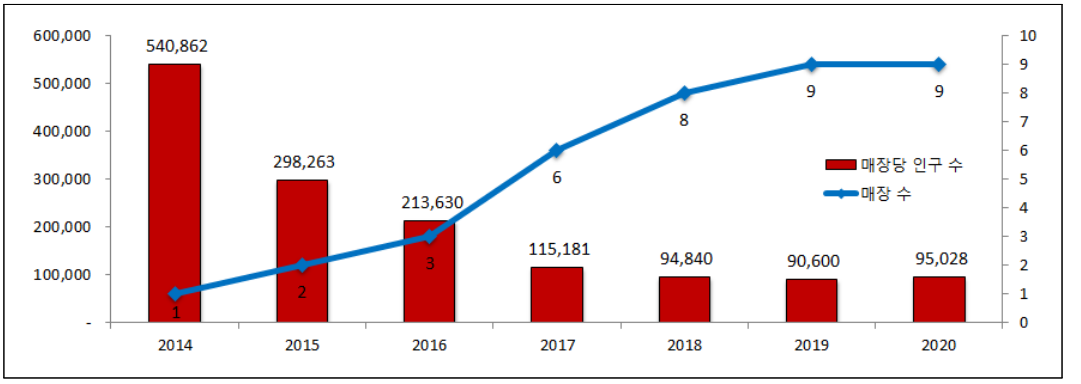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	-	244
	참여농가당 검사 건수(A)	-	1.64
공공급식	참여농가 수	156	145
	참여농가당 검사 건수(B)	1.35	1.09
참여농가 당 검사 건수(전체)		1.35	1.43

주: 청양군의 로컬푸드 직매장(대전 유성점)이 2020년 8월에 개장함.
자료: 저자 작성.

3.3.3. 먹거리 접근성 개선 효과

❍ 화성시는 2014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으로 개장한 이후 2020년까지 총 9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됨.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014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당 인구 수가 54만 명이었으나, 로컬푸드 직매장이 순차적으로 개장되면서 2018년 이후에는 매장당 인구수가 9만 명대로 낮아짐.

〈그림 5-21〉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 및 직매장당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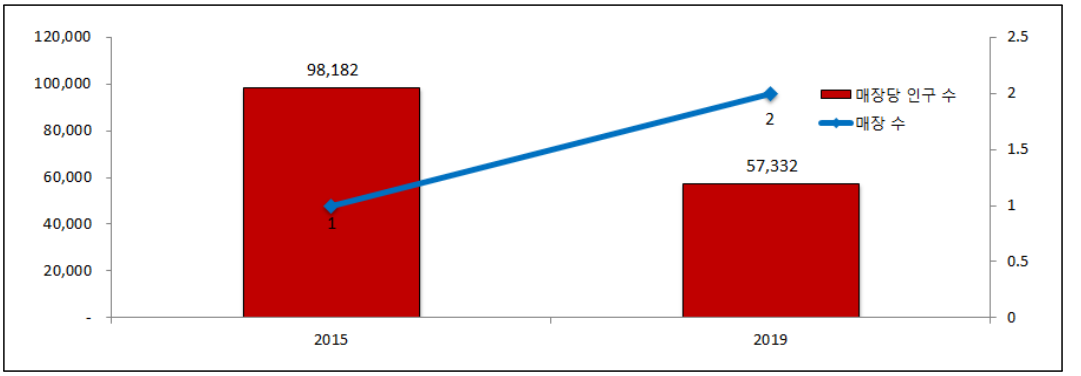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나주시는 2015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으로 개장한 이후 2019년에 2호점을 개장하여 현재 지역 내 총 2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1호점 개장 첫 해인 2015년에 로컬푸드 직매장당 인구 수는 98천 명에 달하였으나, 2019년에 2호점이 개

장되면서 매장당 인구 수가 57천 명으로 감소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22〉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 및 직매장당 인구 수



자료: 저자 작성.

❍ 청양군은 인구가 3만 명대인 농촌지역으로서, 지역 내에서는 생산자 조직인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2017년 개장). 청양군의 인구 규모와 인구의 감소세를 고려할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의 추가 개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청양군은 2017년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될 당시 인구가 32,837명이었음.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0년에 30,948명 정도임.

❍ 청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0년 8월부터 인접지역인 대전 유성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청양군의 경우 청양군 내로 로컬푸드 범위를 한정하는 협의의 로컬푸드 관점을 적용하여 직매장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보다 확장된 개념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모델을 제시함.

❍ 청양군의 경우 농촌형 지역푸드 플랜 추진 지역으로서 생산기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기반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인접지역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임.

3.4. 지역 먹거리 기반 개선 효과 분석

3.4.1.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42)]

❍ 최근의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지역 생산 먹거리의 지역 내 소비의 확대, 즉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 화성시의 경우 화성시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지역 순환 비중이 채소류는 39.1%에 달하며, 이밖에 곡물류는 16.4%, 과일류는 10.9%이었음. 종합적으로 화성시의 경우 지역 먹거리의 지역 순환 비중이 18.5%에 달하였음.

〈표 5-42〉 화성시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2020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지역 생산량(A)	지역 내 로컬푸드 공급량(B)	지역 순환 비중(B/A)
곡물류	69,461	11,397	16.4
채소류	14,590	5,706	39.1
과일류	20,131	2,204	10.9
합계	104,182	20,131	18.5

주 1) 화성시의 먹거리 지역 순환 비중은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역 내 농협 등을 통해서 판매(공급)되는 화성시 지역 농산물이 화성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
2)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추산함.
3) 화성시 농산물 지역 생산량은 화성시 통계연보(각 연도)를 활용함. 2020년 생산량 자료는 아직 집계·공표되지 않아 이전 자료를 3개년 평균하여 활용함. 지역 내 로컬푸드 공급량은 화성시와 지역 농협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함.
4) 화성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공급량은 물량이 아니라 개수 단위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내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지역산 농산물의 자료와 로컬푸드 직매량의 판매액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량을 추정함.
자료: 저자 작성.

❍ 나주시는 화성시에 비해 지역 내 소비 기반은 적고, 생산 기반은 큰 편임. 그러나 먹거리 지역 순환 비중은 곡물류 15.6%, 채소류 24.0%, 과일류 13.0%이며, 전체적으로 17.6%에 달하고 있어, 화성시의 18.5%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됨.

42)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역 순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역 내 농협 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이 지역 생산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분석함. 기타 지역 유통경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비중은 분석에서 제외함.

- 나주시의 경우 화성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이나, 인구 규모는 약 117천 명(2018년 기준) 정도로, 화성시의 798천 명(2018년 기준)의 1/7 수준에 불과함. 이에 비해 먹거리 생산 규모는 품목별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주시가 큰 편임. 예컨대 곡물류 생산 규모는 나주시와 화성시와 유사한 수준이며, 채소류, 과일류 등은 나주시의 생산량이 화성시에 비해 큰 편임.

〈표 5-43〉 나주시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2020년)

단위: 톤, %

구분	지역 생산량(A)	지역 내 로컬푸드 공급량(B)	지역 순환 비중(B/A)
곡물류	66,575	10,378	15.6
채소류	62,086	14,871	24.0
과일류	55,267	7,202	13.0
합계	183,928	32,450	17.6

주 1) 나주시의 먹거리 지역 순환 비중은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역 내 농협 등을 통해서 판매(공급)되는 나주시 지역 농산물이 나주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
2)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추산함.
3) 나주시 농산물 지역 생산량은 나주시 통계연보(각 연도)를 활용함. 2020년 생산량 자료는 아직 집계·공표되지 않아 이전 자료를 3개년 평균하여 활용함. 지역 내 로컬푸드 공급량은 나주시와 지역 농협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함.
자료: 저자 작성.

❍ 청양군은 지역 먹거리 생산 기반에 비해 지역 내 소비 기반이 작은 농촌지역임. 이에 따라 먹거리 지역 순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례 지역에 비해 작은 편임. 곡물류의 지역 순환 비중은 1.4%, 채소류는 2.1%, 과일류는 0.2% 정도에 그치고 있었음. 전체적으로 먹거리 지역 순환 비중은 1.8%인 것으로 분석됨.

- 청양군 인구는 같은 사례지역인 나주시의 약 30% 수준이며, 화성시에 비해서는 화성시의 약 4%정도에 불과함. 이에 비해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등의 생산량이 나주시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인구 규모에 비해 큰 편임.

〈표 5-44〉 청양군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2020년)

단위: 톤, %

구분	지역 생산량(A)	지역 내 로컬푸드 공급량(B)	지역 순환 비중(B/A)
곡물류	31,825	457(457)	1.4(1.4)
채소류	44,534	933(2,777)	2.1(6.2)
과일류	2,482	5(904)	0.2(36.4)
합계	78,841	1,395(4,138)	1.8(5.2)

주 1) 청양군의 먹거리 지역 순환 비중은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역 내 농협 등을 통해서 판매(공급)되는 청양군 지역 농산물이 청양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
2)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자료는 2020년 8월에 청양군이 대전 유성구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자료를 포함함.
3) 지역 내 로컬푸드 공급량과 지역 순환 비중의 ( )는 인접지역인 대전 지역 공급량과 이를 포함한 지역 순환 비중 측정치임.
4) 먹거리 지역 순환 효과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추산함.
5) 청양군 농산물 지역 생산량은 청양군 통계연보(각 연도)를 활용함. 2020년 생산량 자료는 아직 집계·공표되지 않아 이전 자료를 3개년 평균하여 활용함. 지역 내 로컬푸드 공급량은 청양군과 지역 농협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함.

자료: 저자 작성.

3.4.2. 지역 먹거리 가격 안정화 효과[43)]

❍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의 주요 품목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품목의 중품기준 연간 도매가격, 소매가격과 비교함. 대부분의 품목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서는 높으며, 연평균 소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음. 따라서 로컬푸드의 확대가 대체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격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44)]

- 일부 품목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소매가격)에 비해 낮은(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체로 최소가격과 최대가격의 범위 안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음.

43)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분석함.

44) 분석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 낮은 편이었음. 사례지역 면담조사 결과 이러한 상황은 ① 품질 및 가격 차이가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딸기의 경우 생식용과 잼용) ② 해당 지역의 기상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 품질 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 ③ 전국 유통망을 보유한 다른 주산지에 비해 지역 내 생산자가 많은 반면, 수요가 적은 품목인 경우 ④ 수확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등으로 농가가 보유 물량을 운송비 등이 들지 않는 지역 내 판매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이 연구에서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친환경 등이 포함된 품목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중품 기준의 소매가격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일부 있음.

❍ 화성시의 경우 2019년에는 딸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임. 또한 쌀, 파프리카, 깻잎, 양파를 제외한 품목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가격이 연평균 소매가격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쌀을 제외한 파프리카, 깻잎의 경우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간 최대 소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음.

- 딸기의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최소 도매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표 5-45〉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19년)

단위: 원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 가격 (kg 당 가격)	연간 도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간 소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쌀	3,077	2,346	2,233	2,390	2,622	2,512	2,700
딸기	6,169	7,416	4,700	11,900	9,650	7,140	14,960
파프리카	5,875	3,847	2,704	5,998	5,305	3,925	8,715
(대추)방울토마토	4,558	4,277	2,075	4,866	7,938	5,319	13,026
오이	3,416	2,415	1,367	3,108	4,988	2,804	7,672
수박	1,440	1,416	1,056	1,930	1,859	1,342	2,512
고구마	3,491	2,672	2,006	3,307	4,236	3,543	4,728
깻잎	14,620	8,197	5,087	13,674	11,270	8,300	16,710
양파	1,315	423	336	677	1,198	996	1,519
청양고추	10,049	4,909	2,969	8,475	7,350	5,370	11,860

주: 오이는 1개당 가격을 개당 175g을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수박은 1개당 가격을 개당 10kg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고구마 도매가격은 밤고구마 가격임.
자료: 저자 작성.

❍ 2020년에는 딸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임. 또한 쌀, 파프리카를 제외한 품목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가격이 연평균 소매가격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양파는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과 연간 소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임.

- 딸기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도매가격의 최소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쌀, 깻잎을 제외한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최대 소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표 5-46〉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20년)

단위: 원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 가격 (kg 당 가격)	연간 도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간 소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쌀	3,295	2,400	2,271	2,712	2,676	2,568	3,030
딸기	9,208	9,524	5,967	13,882	9,540	7,490	15,500
파프리카	7,149	4,921	2,415	9,185	6,215	4,485	10,625
(대추)방울토마토	6,159	4,959	2,948	6,613	6,634	4,199	10,147
오이	4,113	2,457	1,346	4,154	5,389	2,960	9,091
수박	1,714	1,306	591	1773	1,836	1,312	2,438
고구마	3,846	3,752	2,133	5,549	4,825	3,544	6,699
깻잎	22,325	10,147	7,146	16,901	12,150	9,210	20,050
양파	1,803	936	569	1,225	1,802	1,084	2,140
청양고추	13,028	5,556	3,193	10,721	8,220	5,240	16,610

주: 오이는 1개당 가격을 개당 175g을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수박은 1개당 가격을 개당 10kg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고구마 도매가격은 밤고구마 가격임.
자료: 저자 작성.

❍ 나주시의 경우 2019년에는 수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임. 수박의 경우에도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과 연평균 도매가격의 차이가 kg당 15원 정도로 크지 않음. 소매가격의 경우 백미, 양파, 무, 배추, 대파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가격이 연평균 소매가격에 비해 높은 반면, 이를 제외한 품목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가격이 연평균 소매가격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 수박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최대 도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백미, 무, 배추, 대파를 제외한 품목들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최대 소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2020년에는 딸기, 고구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임. 소매가격과 비교할 경우 배, 백미, 양파, 대파, 깐마늘을 제외한 품목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가격이 연평균 소매가격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 딸기, 고구마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최대 도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양파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최대 소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표 5-47〉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19년)

단위: 원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 가격 (kg 당 가격)	연간 도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간 소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딸기	7,495	7,416	4,700	11,900	9,650	7,140	14,960
배(신고)	4,205	3,032	2,300	4,385	4,285	3,154	5,995
대추토마토	4,594	4,277	2,820	4,866	7,938	5,319	13,026
고구마(꿀)	2,690	2,672	2,006	3,307	4,236	3,543	4,728
수박	1,401	1,416	1,179	1,930	1,859	1,342	2,512
백미	3,476	2,346	2,233	2,390	2,622	2,512	2,700
복숭아	4,145	3,699	3,619	3,810	5,933	7,255	5,031
양파	1,397	423	266	677	1,198	996	1,519
양배추	1,018	590	390	1,183	2,371	1,802	3,538
무	5,664	500	277	1,083	1,622	1,358	1,973
배추	10,192	675	244	257	3,037	2,239	4,121
참외	4,915	3,391	1,910	5,286	13,002	8,235	19,683
대파	2,822	1,264	842	1,569	1,810	1,280	2,220
상추	4,994	3,844	1,778	3,844	7,865	5,060	16,015
마늘	6,004	5,199	3,183	6,890			
깐마늘	12,830	4,196	3,458	4,963	10,734	9,055	11,687

주: 수박은 1개당 가격을 개당 10kg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고구마 도매가격은 밤고구마 가격이며, 복숭아 도매가격은 백도가격 기준, 소매가격은 10개당 가격을 개당 250g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마늘은 소매가격이 집계되지 않음. 무(배추) 소매가격은 봄, 고랭지, 가을, 월동 무(배추) 가격을 평균함. 배 소매가격은 10개당 가격을 개당 600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상추가격은 적상추 가격과 청상추 가격을 평균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48〉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20년)

단위: 원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 가격 (kg 당 가격)	연간 도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간 소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딸기	7,938	9,524	5,967	13,882	9,650	7,140	14,960
배(신고)	4,336	3,279	2,441	4,386	3,827	5,040	3,233
대추토마토	5,021	4,959	2,948	6613	6,634	4,199	10,147
고구마(꿀)	3,234	3,752	2,133	5549	4,825	3,544	6,699
수박	1,572	1,306	591	1,773	1,836	1,312	2,438
백미	3,649	2,400	2,271	2,712	2,676	2,568	3,030
복숭아	5,583	4,152	3,901	4,419	6,809	6,168	7,555
양파	1,874	936	569	1,225	1,802	1,084	2,140
양배추	1,162	1,093	457	1,870	3,953	2,347	5,593
무	907	582	346	1,167	1,861	1,378	2,612
배추	1,429	970	354	2,315	4,423	3,535	6,353
참외	5,375	4,254	2,496	6,845	13,678	8,436	22,577
대파	3,154	1,762	781	2,806	2,173	1,426	3,142
상추	4,999	3,762	1,865	11,237	8,430	5,230	20,690
마늘	6,934	5,445	3,053	11,521	-	-	-
깐마늘	12,096	4,832	3,386	6,380	8,275	6,360	10,422

주: 수박은 1개당 가격을 개당 10kg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고구마 도매가격은 밤고구마 가격이며, 복숭아 도매가격은 백도가격 기준, 소매가격은 10개당 가격을 개당 250g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마늘은 소매가격이 집계되지 않음. 무(배추) 소매가격은 봄, 고랭지, 가을, 월동 무(배추) 가격을 평균함. 배 소매가격은 10개당 가격을 개당 600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상추가격은 적상추 가격과 청상추 가격을 평균함.

자료: 저자 작성.

❍ 멜론, 풋고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이 연평균 도매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임. 딸기, 배, 대파, 시금치, 양파, 청양고추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가격이 연평균 소매가격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 멜론, 풋고추의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최대 도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딸기, 배를 제외하고는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연간 최대 소매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표 5-49〉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품목별 가격 수준 분석(2020년)

단위: 원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 가격 (kg 당 가격)	연간 도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간 소매가격(중품기준, kg 당 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연평균가격	최소가격	최대가격
딸기	17,910	9,524	5,967	13,882	9,450	7,490	15,500
사과	4,076	4,423	3,048	6,359	9,376	7,206	11,987
방울토마토	6,036	4,959	2,948	6,613	6,634	4,199	10,147
배	4,512	3,279	2,441	4,386	3,827	5,040	3,233
대파	4,145	1,762	781	2,806	2,173	1,426	3,142
시금치	6,403	3407	1,604	9,798	3,803	2,471	10,251
양파	2,137	936	569	1,225	1,802	1,084	2,140
상추	6,907	3,762	1,865	11,237	8,430	5,230	20,690
쪽파	6,970	4,566	2,023	8,290	-	-	-
배추	1,030	970	354	2,315	3,686	5,294	2,946
멜론	3,216	3,288	2,762	3,904	-	-	-
무	1,315	582	346	1,167	1,861	1,378	2,612
애호박	3,733	3,634	2,006	7,013	4,269	2,585	9,600
풋고추	3,627	4,939	2,301	8,623	7,880	5,630	13,390
청양고추	10,380	5,556	3,193	10,721	8,220	5,240	16,610

주 1) 청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 판매가격은 2020년 8월에 개장한 대전 유성점 자료임.
2) 사과 소매가격은 1개당 가격을 개당 250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소매가격은 10개당 가격을 개당 600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상추가격은 적상추 가격과 청상추 가격을 평균함. 무(배추) 소매가격은 봄, 고랭지, 가을, 월동 무(배추) 가격을 평균함. 애호박 가격은 개당 275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환산함.

자료: 저자 작성.

3.4.3.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 인식 수준 향상 효과

❍ 화성시의 경우 로컬푸드에 관한 먹거리 주체의 인식 수준이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평균적으로 4.6점(5점 척도 기준), 소비자가 4.3점 수준으로 생산자에 비해 0.3점 정도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평균 4.6점, 소비자가 평균 4.1점으로 평가하여 소비자가 생산자에 비해 0.5점 정도 낮게 평가함. 종합적으로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는 생산자가 9.2점(10점 만점 기준), 소비자가 8.4점 수준이었음.

-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경우 환경에 대한 이로움을 대체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의 경우에도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지역 농업 여건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표 5-50〉 화성시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5점 척도 기준)

구분		생산자	소비자
로컬푸드 속성 평가	지역 농산물은 신선하다	4.6	4.6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4.5	4.4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환경에 이롭다	4.5	3.7
	지역 농산물 구매는 지역 생산자/경제에 도움이 된다	4.7	4.3
	지역 농산물 소비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4.5	4.3
	평균(5점 척도 기준)	4.6	4.3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4.4	4.1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4.5	4.1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4.2	3.7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지역 소비자에게 먹이고 싶어졌다	4.6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싶어졌다		4.5
	지역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4.5	3.9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다	4.6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자부심이 생겼다		4.0
	평균(5점 척도 기준)	4.6	4.1
평균 합계(10점 만점 기준)		9.2	8.4

자료: 본 과제의 생산자와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주시의 경우 로컬푸드에 관한 먹거리 주체의 인식 수준이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평균적으로 4.6점(5점 척도 기준), 소비자가 4.4점 수준이며,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평균 4.4점으로 평가함. 종합적으로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는 생산자가 9.0점(10점 만점 기준), 소비자가 8.8점 수준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에 비해 0.2점 정도 높은 편이었음.

-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환경에 대한 이로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의 경우에도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소비자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자부심이 생겼다'는 항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표 5-51〉 나주시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5점 척도 기준)

구분		생산자	소비자
로컬푸드 속성 평가	지역 농산물은 신선하다	4.6	4.5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4.6	4.5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환경에 이롭다	4.4	4.3
	지역 농산물 구매는 지역 생산자/경제에 도움이 된다	4.7	4.5
	지역 농산물 소비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4.6	4.4
	평균(5점 척도 기준)	4.6	4.4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4.3	4.3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4.4	4.4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4.1	4.3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지역 소비자에게 먹이고 싶어졌다	4.5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싶어졌다		4.5
	지역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4.5	4.4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다	4.5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자부심이 생겼다		4.2
	평균(5점 척도 기준)	4.4	4.4
평균 합계(10점 만점 기준)		**9.0**	**8.8**

자료: 본 과제의 생산자와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청양군은 로컬푸드에 관한 먹거리 주체의 인식 수준이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평균적으로 4.4점(5점 척도 기준), 소비자가 4.1점 수준이며,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4.3점, 4.0점으로 평가함. 종합적으로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는 생산자가 8.7점(10점 만점 기준), 소비자가 8.1점 수준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에 비해 0.6점 정도 높은 편이었음.

-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환경에 대한 이로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소비자의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 소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인식도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의 경우에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대적으로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소비자는 이밖에도 '지역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자부심이 생겼다'는 항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표 5-52〉 청양군 먹거리 주체 로컬푸드에 관한 평가(5점 척도 기준)

구분		생산자	소비자
로컬푸드 속성 평가	지역 농산물은 신선하다	4.5	4.2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4.5	4.2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환경에 이롭다	4.2	4.0
	지역 농산물 구매는 지역 생산자/경제에 도움이 된다	4.5	4.1
	지역 농산물 소비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4.3	4.0
	평균(5점 척도 기준)	4.4	4.1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향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4.3	4.1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4.4	4.0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4.1	3.8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지역 소비자에게 먹이고 싶어졌다	4.5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싶어졌다		4.1
	지역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4.3	3.9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다	4.4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자부심이 생겼다		3.9
	평균(5점 척도 기준)	4.3	4.0
평균 합계(10점 만점 기준)		**8.7**	**8.1**

주: 청양군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여, 본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의 생산자와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4.4. 환경 영향(푸드마일리지) 저감 효과

❍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된 주요 배경에 지역 내 생산·소비를 통해 농식품의 원거리 이동에 의해 초래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저감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음. 로컬푸드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예컨대 생산자가 농식품을 생산한 후 타 지역으로 운송하여 판매하고, 소비자는 타 지역에서 운송되어 판매되는 농식품을 소비하는 경우 푸드 마일리지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함. 바꿔 말하면, 로컬푸드가 확대될 경우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게 됨.

❍ 화성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타 지역으로 운송·판매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판매·소비될 경우 저감되는 푸드 마일리지 감축분은 1,960,342t·km,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분은 490,085kg·CO_2임. 이밖에 나주시의 경우 로컬푸드 확대를 통해 감축되는 나주시 푸드 마일리지는 20,709,196t·km,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77,299kg·CO_2이며, 청양군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는 792,956t·km(2020년 기준 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8,239kg·CO_2임.

- 지역별로 생산된 농산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판매되어 최종적으로 소비됨. 이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의 지역 내 판매·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통해 판매·소비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례 지역별 푸드 마일리지, 이산화탄소 배출량를 추산하고, 이를 로컬푸드 확대에 따른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분으로 해석함.[45]

- 우리나라 1인당 농식품 푸드마일리지는 2010년에 7,085t·km 수준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음.[46]

---

45)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육상운송의 탄소배출계수 0.25를 적용함.

46) 환경부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me.go.kr: 2021. 5. 21.).

〈표 5-53〉 로컬푸드 확대를 통한 사례지역 푸드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규모

구분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푸드마일리지 감축분(t·km)	1,960,342	20,709,196	792,956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분(kg·CO_2)	490,085	5,177,299	198,239

주 1) 푸드마일리지 감축분,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분은 사례지역인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지역 밖으로 유통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역 내 농협을 통해 공급될 경우 감축되는 푸드마일리지(이산화탄소 배출량) 규모를 계산함.
2) 각 사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서 제공된 자료를 활용함.
자료: 저자 작성.

❍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등 3개 사례지역의 푸드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규모 효과(2020년 기준)가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로컬푸드 확대를 통해 감축 가능한 푸드 마일리지는 1,731,233,362t·km,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분은 432,808,341kg· CO_2 정도임.

〈표 5-54〉 로컬푸드 전국 확대 시 푸드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규모

전국 푸드마일리지 감축분(t·km)	전국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분(kg·CO_2)
1,731,233,362	432,808,341

주: 전국 감축 규모는 사례지역인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지역 내 농협을 통한 지역 농식품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푸드마일리지(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규모를 전국 시군구 지역 수를 반영하여 추산함.
자료: 저자 작성.

6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이 장에서는 로컬푸드 관련한 실태에 대한 검토와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등 주요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1. 정책 방향

1.1. 지역별 여건과 지역민을 고려한 정책 마련

❍ 로컬푸드는 일정 지역 범위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며,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수립·추진되는 정책임. 로컬푸드 정책이 추진되는 개별 지역들은 지역 입지 및, 경제, 산업, 환경 등 기타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여건·환경이 상이함. 또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동일하지 않음. 따라서 로컬푸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지역민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2. 연계·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

❍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공공-민간, 지역 간 협력 등 다양한 연계·협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국가단위에서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이슈·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단위에서의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이를 통해 먹거리와 관련한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된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먹거리 비전·목표를 설정하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인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의 로컬푸드 정책은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 확대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매개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지역민 먹거리 보장, 지역 일자리 창출, 먹거리 안전성 확보 등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따라서 로컬푸드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의 정부·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여건·환경에 따라 로컬푸드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가치의 틀 속에서 지역 간 연계·협력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음.

1.3. 로컬푸드 정책의 지속성 확보

❍ 로컬푸드를 매개로 하여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로컬푸드 정책이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로컬푸드 정책이 장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로컬푸드의 직접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과 함께 로컬푸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2. 정책 과제

2.1. 생산자와 소비자의 애로사항 해결 필요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함.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로컬푸드 공급 및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가 로컬푸드 공급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① 소량의 농산물의 빈번한 납품 ② 가격 결정 ③ 주문량에 맞춘 생산량 조절 등임.

❍ 첫째,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품목, 소량, 연중 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중소농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을 추진함. 이러한 생산·공급 구조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로컬푸드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생산자들은 출하 과정에서 소량의 농산물을 빈번하게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별 로컬푸드 공급 체계 구축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례지역 조사 결과 생산자들은 소량 생산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의 장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로컬푸드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소량의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매일(또는 자주) 납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둘째,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출하 시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적정 가격 수준을 결정을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시함. 사례 지역 현장 조사에서도 출하 제품 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 가격을 선정하거나, 기준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시장 가격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이 있었음. 가격 결정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셋째, 생산자들은 주문량에 맞춰 생산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농 조직화,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생산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소량 다품목 중심의 로컬푸드 공급 구조에서 생산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임.

〈표 6-1〉 사례지역 생산자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가격을 정하는 일이 어려움	주문량에 맞춰 생산을 조절하기 어려움	요구하는 품질을 지키기 어려움	상품검사가 까다로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움	소량의 농산물을 매일(또는 자주) 납품하는 것이 어려움	기타
화성시	27.9	19.8	10.1	3.4	4.0	23.8	11.1
나주시	21.1	22.0	5.0	3.2	8.3	33.0	7.3
청양군	20.9	25.6	8.8	2.7	5.1	30.6	6.4
평균	23.3	22.5	8.0	3.1	5.8	29.1	8.3

주: 1,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을 적용하여 합이 100%가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과정에서 일반소매업체와는 달리 배달이 되지 않거나, 다양한 종류의 상품 또는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구매 상품 배달의 경우 로컬푸드 초기 단계 또는 지역 범위가 넓거나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없어서 원거리 배달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도입이 어려움. 상품 구색의 경우 현재 로컬푸드 공급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 구색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6-2〉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시 불편했던 점

단위: %

구분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없음	다른 매장보다 가격이 비쌈	집에서 거리가 멂	주차장이 협소함	편의시설이 부족함	교통이 불편함	운영시간이 짧음	배달이 안 됨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함	특별한 불편함이 없음	기타
화성시	10.8	13.9	9.4	2.0	6.3	4.0	5.1	9.0	15.6	3.1	13.4	7.4
나주시	17.7	21.4	4.1	7.2	8.9	3.9	0.6	2.3	11.8	3.9	17.5	0.8
청양군	13.9	18.7	6.3	13.5	2.6	1.3	4.6	2.0	13.9	8.0	13.4	1.7
평균	14.1	18.0	6.6	7.6	5.9	3.1	3.4	4.4	13.8	5.0	14.8	3.3

주: 1, 2, 3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3:2:1)를 적용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2.2. 지역 여건을 고려한 로컬푸드 확산 전략 도입

❍ 전국적으로 지역 푸드플랜과의 연계 속에서 로컬푸드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입지 및 먹거리를 둘러싼 여건·환경이 다양하여, 로컬푸드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지역별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여건이 로컬푸드 확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은 로컬푸드 확대의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지역 생산 또는 소비 여건에 따라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공공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생산에 비해 소비 규모가 충분하지 않음. 반대로 도시 지역은 소비 규모는 큰 반면, 생산 규모는 작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예컨대 사례지역인 청양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추가적인 개장과 기존 소비자를 바탕으로 하는 소비 확대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공급식의 경우에도 인구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공급식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크지 않음.

❍ 사례지역인 화성시(도농복합지역)와 청양군(농촌지역)의 경우, 두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상당한 반면, 지역 농업 생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편임.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농가 조사에서도 화성시의 경우 출하 농가는 생산 농산물의 평균 55.4%를 로컬푸드 직매장, 18.2%를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반면, 청양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은 평균 37.3%, 학교/공공급식은 5.5%에 불과하였음.

- 화성시는 지역 인구가 798천 명에 달하는 반면, 농촌지역인 청양군은 33천 명 정도에 불과함(2018년 기준). 그러나 농업 생산 규모(식량작물 기준)는 청양군이 화성시의 40% 수준으로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큰 편임.

- 화성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소비기반을 토대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임(현재 9개 매장). 그러나 농촌지역인 청양군의 경우 지역 내 1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임. 청양군의 경우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인접지역(대전 유성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로컬푸드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시군과 연계한 로컬푸드 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기반에 비해 생산기반이 큰 농촌지역과 생산기반에 비해 소비기반이 큰 도시(도농복합) 지역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배송 거리 단축, 유통단계 축소 등의 로컬푸드의 개념·취지와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 목적을 고려할 경우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 최근의 직매장, 공공급식 등을 통한 로컬푸드 확대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주로 채소류를 위주로 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었음. 소비자들은 대체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자의 제품을 판매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과정에서 구입하려는 상품이 없거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없는 것을 주된 불편함으로 지적함. 이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직까지는 상품구색이 다양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례지역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상품구색이 다양한 대형마트를 같이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음. 사례지역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비중은 평균 36.5%였으며, 다음으로 대형유통업체 이용 비중이 평균 21.4%로 높은 편이었음. 사례지역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하는 주요 품목은 엽채류(15.5%), 과채류(13.9%), 조미채소류(10.3%) 등으로 채소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론 공공급식에서의 로컬푸드의 상품구색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청양군, 나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이 활발하지는 않은 편임. 로컬푸드의 확대를 위해서 지역 영세농·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상품을 가공·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일반소매업체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가공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을 통한 농산물 중심의 공급 구조를 탈피하여 지역 생산자들에게 추가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 지역 영세농·중소농은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개별적으로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가 충분치 않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료공급,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자 대상 제품 개발, 위생·가공 교육, 마케팅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양군의 경우 농산물 가공센터를 2개소(특화가공센터, 종합가공센터 등) 운영하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소규모 HACCP인증 지원, 가공유통활성화 지원(포장재, 홍보비 등) 등 가공활성화 지원을 실시함. 또한 가공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2.4.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공공급식 활성화

❍ 학교/공공급식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로컬푸드 주요 공급처로서 향후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중요함. 최근 지역별로 학교/공공급식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까지는 로컬푸드 공급 기관·시설이 다양하지 않거나, 시설 수가 많지 않음. 학교를 제외한 기관·시설에만 로컬푸드를 공급하거나,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업이지만, 지자체 또는 지역 내 공공기관을 제외한 지역 내 일부 급식 시설에만 로컬푸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화성시의 경우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어린이집으로 대상이 한정적임. 청양군의 경우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어린이·청소년 노인 대상 시설이 주요 공급 대상임. 나주시의 경우 어린이지·유치원, 관내기관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비교적 로컬푸드 공급 시설이 다양하지만, 학교급식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먹거리 공공성, 복지 개념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 식사·식품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급식 이외에 로컬푸드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은 노인,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계층 등 특성이 다양하며, 필요로 하는 식사·식품 지원의 형태도 다양함.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리가 가능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급식, 도시락 등 식사 지원이 필요하며, 조리가 가능한 계층의 경우 식품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계층 도시락, 식사 지원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할 경우 지역 고용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음.

2.5. 로컬푸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확대

❍ 로컬푸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로컬푸드가 먹거리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로컬푸드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의지도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

치 중에서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구매 의향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로컬푸드 소비가 지역 농업 여건,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었음.

❍ 학교급식과는 달리 어린이집·유치원, 복지시설, 병원,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유형을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급식의 경우에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서는 가격적 측면에서의 이점 이외에도 공공급식에서의 로컬푸드 이용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로컬푸드 관련 조직들은 주로 로컬푸드의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 공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에도 로컬푸드 판매 과정에서 지역 소비자와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나, 일반 소매유통업체와 같이 농식품 판매처로서의 역할을 할 뿐임.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로컬푸드 공급·판매 기능 이외의 지역민들이 로컬푸드에 관한 인식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기존의 판매 기능 이외에 지역의 문화 및 식생활 기능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중이 79%~86%로 높은 편이었음.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60%~80%정도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이었음.

〈표 6-3〉 사례지역 생산자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 문화 및 식생활 교육 기능 담당 필요성에 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비중					척도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화성시	1,7	7.8	12.1	41.4	37.1	4.0
나주시	2.5	0.0	11.3	38.8	47.5	4.3
청양군	0.0	2.6	12.2	54.8	30.4	4.1
평균	1.3	3.5	11.9	45.0	38.3	4.1

자료: 본 과제 생산자 조사 결과.

〈표 6-4〉 사례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 문화 및 식생활 교육 기능 담당 필요성에 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비중					척도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화성시	0.0	0.0	19.8	50.5	29.7	4.1
나주시	1.0	7.9	21.8	37.6	31.7	3.9
청양군	0.0	20.0	20.0	50.0	10.0	3.5
평균	0.3	9.3	20.5	46.0	23.8	3.8

자료: 본 과제 소비자 조사 결과.

2.6. 로컬푸드 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한 지속 점검·평가

❍ 로컬푸드 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지수를 개발·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사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로컬푸드 지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로컬푸드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데는 유용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산업, 사회 등 관련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 수준과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확대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련 주체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본 지표는 정성적 측면에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에 관한 실태를 보여주지 못함.

❍ 지역별 먹거리 관련한 여건·환경에 대한 조사, 로컬푸드와 관련한 정량적, 정성적 요소들을 종합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점검·평가 및 분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평가 양식을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로 점검·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들의 양식·내용이 일정하지 않음. 따라서 지역 간 분석 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름. 또한 로컬푸드 지수 이외에 정례화된 점검·평가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바로정보'와 같은 기존의 로컬푸드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점검·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의 효율성, 체계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및 관련 현황을 분석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지원 기간 동안 연도별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지원 마지막 년도(또는 종료 다음 년도)에 지역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의 성과·효과를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바로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정보시스템임.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 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직거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부 록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현황

〈부표 1〉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현황(2017-2019년, 28개소)

번호	사업장 명칭	인증번호	주요 특징
1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1호점	2017 -001	• 김포 엘리트농업대학 창업지원학과 졸업생 5명이 현재 농산물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 인식 공유 후 로컬푸드공동판매장 개설 • 인증 사업장 중 직거래·지역농산물 취급비중이 93%로 가장 높으며,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이 54%로 가장 높음
2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2017 -002	• 마트 등 부족했던 혁신도시에 직매장을 세워 주민정착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해냈음 • 각종 체험행사와 향토음식 판매로 농업인-소비자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절 선물 시식행사(배, 나주봉 등) 반응이 뜨거움
3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017 -003	• 직매장 주변에 논과 밭이 펼쳐진 다소 불리한 입지여건 속에서도 다문화 카페,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지역민 참여행사 다수 개최로 '협치'에 앞장서고 있음
4	문양역 로컬푸드직매장	2017 -004	• 대구 문양역에 위치하여 마천산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여 연 방문객 40만 명에 달함
5	세종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도담점	2017 -005	• '15년 개장 후 참여농가 700여 명, 일평균매출 4,000여만 원으로 전국 단일매장 매출 1위 달성 • 세종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단을 구성하여 직매장, 사회적기업, 관계자로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활성화를 추진
6	완주로컬푸드직매장 모악점	2017 -006	• 모악산관광단지·미술관 옆에 직매장이 위치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매장임('13.7월 개장) • 다품종 소량재배 농가 등 조합원 1,500명가량 참여 중, 레스토랑을 통해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7	완주로컬푸드직매장 삼천점	2017 -007	•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자립형매장(생산자·직원 조합원 직접투자)'으로 농가에게 더 큰 이윤이 돌아가고 있음 • 생산지와 떨어진 전주 도심에 위치하여 고령농을 위한 수집차량 운영 중
8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하가점	2017 -008	• 맞벌이 부부가 많은 소비자와 고령화된 생산자가 공존하는 직매장으로서 설립 초기 일매출 20만 원에서 현재 월매출 4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성장함
9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효자점	2017 -009	• 완주로컬푸드직매장 6개소 중 가장 먼저 탄생한 직매장으로 연매출 95억 원, 하루 1,200명 방문 • 1년 내내 엽채류를 동일 가격을 유지하여 소비자 신뢰 형성
10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2017 -010	• '12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으로서 700여 농가 참여, 700 품목을 취급하여, 일평균 소비자 2천 명 방문
11	원당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017 -011	• 교육수료 및 출하약정 체결 농가 570농가, 270여 가지 품목 출하 중(150여 품목 연중 출하) • 이동형 차량으로 외곽지역 아파트 방문하여 로컬푸드 홍보하고 있음
12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2017 -012	• '일산아지매' 맘카페의 입소문 타면서 일매출 2,500만 원을 달성 • 행복찬방' 즉석두부 코너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고, 화훼주산지답게 꽃 판매대의 인기가 많음

번호	사업장 명칭	인증번호	주요 특징
13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2018 -001	• '13년 농가 38명으로 시작하여 주말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하는 정도로 성장함 • 15일마다 한 번씩 농가별 매대 위치를 옮겨서 농가에게 공정성을 부여하고 있음
14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2018 -002	• 순천시와 관내 시민·소비자단체, 생산농가가 합작하여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를 설립함('16.5월) • 소비자 회원 수 만 삼천여 명, SNS회원 3천 명 이상으로 일매출 1천만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15	완주로컬푸드직매장 둔산점	2018 -003	• 완주군의 대표적인 농촌지역(봉동읍·비봉면 등 6개 읍·면)에 위치하여 산지와 가까운 이점 존재 • 소농이나 가족농, 여성농이 다수 참여 중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직접 걸어서 소량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16	익산로컬푸드직매장	2018 -004	• '13년 토요장터로 시작하여 현재는 생산자 회원 600여명에 달하고, 하루 고객 천 명 내외가 방문하는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성장함
17	전북삼락로컬마켓	2018 -005	• 도비와 군비가 투입돼 만들어진 광역로컬푸드직매장으로서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되는 곳임 • 진열품목 700~800개에 달하고, 매장 내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두부 가공장과 즉석반찬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음
18	전주푸드 송천점	2018 -006	• 대단지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하루 방문객 4천여 명에 달하며, 오송제 둘레길 초입에 있어서 캠핑·요리 대항전 등도 진행 • 청년 서포터즈단을 운영하여 SNS를 통해 직매장을 홍보 중
19	전주푸드 종합경기장점	2018 -007	• 전주 구도심 재생차원에서 '16.12월에 종합경기장점에 매장오픈 • 장보기 어려웠던 인근 거주 노인들이 마실 나오듯 매장을 찾아 교류하며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음
20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2018 -008	• 포천 최초 직매장으로서 연간 20만 명의 소비자가 방문 중 • 출하농가가 로컬푸드작목반을 구성하고, GAP인증을 받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400여 농가 800가지 품목 연중생산)
21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2018 -009	• 25만 명의 소비자가 밀집해 있는 대구 북구 태전동에 매장 위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등 로컬푸드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있음
22	강동구청 싱싱드림*	2019 -001	• 강동구청 도시농업과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 농산물 직매장으로, 도농상생의 가치를 도심지역에서 확산하기 위해 29명의 도시농부가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고, 소비자회원 11천 명이 이용 중임
23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현대아울렛점*	2019 -002	• 대기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프리미엄화에 성공한 모델로서, 생산자는 품질이 높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로컬푸드의 가치를 더욱 높인 사례로 손꼽힘
24	세종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아름점*	2019 -003	• 세종시 아파트단지 밀집구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연매출 8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음
25	순천로컬푸드직매장 조례호수공원점*	2019 -004	• 생산자의 자조회모임 활성화로 농산물 안전성을 위한 농가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돋보임 • 참여농가 468명, 소비자 교류실적 연간 13회로 체험행사를 통한 도농교류 활발히 추진 중임
26	옥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019 -005	• 청암산 및 오토캠핑장 등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직매장으로 참여농가 대부분이 엽채류를 생산하는 소농으로 구성됨
27	천북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019 -006	• 경북 유일의 인증직매장으로서 경주·포항 시내권과 10분 거리에 매장이 위치하여 70만 배후 소비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28	청양로컬푸드직매장*	2019 -007	• 칠갑산, 칠갑호수, 천장호수와 출렁다리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직매장이 위치하여 공휴일에 관광객의 유입이 많음

주: 인증서 발급번호는 가나다 순으로 별표(*)표시된 곳은 2019년 신규 인증사업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년 2월 27일자, "농식품부, 2019년 '우수 직거래 사업장' 7개소 선정!").

참고문헌

국승용. 2012.『로컬푸드 현황과 발전 전략』. 신유통포커스 12-15호.

김상효·이계임·문동현·허성윤·이욱직·유기환. 2021.『농식품 지원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안·정상택·길청순·이소진·송기선·김현일·김진희·이지은·노순응·박은희·김영하·권재현. 2019.『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2016.『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

_____. 2019.『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안)』.

_____. 2021.『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

성미애·김대곤·이재범·류지연·홍유덕. 2011. "푸드 마일리지를 이용한 식품의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량 평가."『한국기후변화학회지』2(1): 15-32.

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R8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최병옥·최재현. 2019.『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R8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각 연도.『농림어업조사』.

_____. 2015.『농림어업총조사』.

_____. 각 연도.『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나주시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화성시. 각 연도.『통계연보』.

황윤재·김경필·최재현. 2018.『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방안 연구』. C2018-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박성진·김상효·차원규. 2021.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농업전망2021』. pp. 215-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홍연아·박시현·최준영. 2019.『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R8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2. 27. "농식품부, 2019년'우수 직거래 사업장'7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5. 13. "우리 지역 먹거리를 더 가치있게! 농식품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사) 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 2020. 11. 3. "2020 로컬푸드 지수 측정,'전북 완주군'등 13개 우수 그룹 선정."

통계청 보도자료. 2020. 4. 16.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파이낸셜 뉴스. 2021. 6. 1. "'소멸위기' 인구감소지역 100곳에 재정특례 부여."

네이버 블로그. 2019. 6. 10. “작지만 강한 청양의 자부심,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농부마켓&농부밥상’.”〈https://blog.naver.com/gr22nade/221558455327〉. 검색일: 2021. 4. 2.
네이버 블로그. 2021. 5. 29.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요?”. 〈https://blog.naver.com/adisabaa/222372710197〉. 검색일: 2021. 6. 2.
청양군 로컬푸드협동조합 블로그.〈https://blog.naver.com/cylocalcoop〉. 검색일: 2021. 4. 2.

고용정보원 웹페이지. 〈https://www.kei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https://www.law.go.kr〉.
나주시청 웹페이지. 〈https://www.naju.go.kr〉.
네이버 사전 웹페이지. 〈https://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웹페이지. 〈https://terms.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웹페이지. 〈https://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웹페이지. 〈http://uni.agrix.go.kr〉.
바로정보 웹페이지. 〈https://www.baroinfo.com〉.
서울특별시 공공급식 웹페이지. 〈(https://donong.seoul.go.kr〉.
(사)소비자시민모임 웹페이지. 〈http://www.consumerskorea.org〉.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웹페이지. 〈https://lofin.mois.go.kr〉.
청양군청 웹페이지. 〈http://www.cheongyang.go.kr〉.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페이지. 〈https://kosis.kr〉.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웹페이지. 〈http://www.klca.or.kr〉.
화성시청 웹페이지. 〈https://www.hscity.go.kr〉.

나주시 내부자료.
청양군 내부자료.
화성시 내부자료.